

교과서연구

제 39 호

2002. 12

차 례

- 발행인 / 김효수
- 편집기획위원장 / 김성환
- 위원 / 김만곤, 김정호, 박삼서,
송정현, 최봉규
- 간사 / 최해홍

권두언

교육의 토양을 생각한다/김학천4

특 집

어떤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인가?

새로운 교과서의 기능/함수곤8

좋은 교과서 만들기, 그 정답은 없나/윤광원14

사실과 원칙 중심의 오류 없는 교과서/정용환19

좋은 교과서의 조건들/배종수22

교육 현장에 만족을 주는 교과서/류장걸27

어떤 교과서?/김경현32

현장 교육

중학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개발 및

적용/김윤갑36

논 단

‘편수관’이라는 이름/김만곤41

나의 제언

더 나은 교과서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10가지/홍후조50

창의적 재량 활동, 무엇이 문제인가/김옥중55

* 『교과서연구』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교과서연구』에 게재된 내용은 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연재

인도네시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박제윤	57
-------------------------------	----

편수 행정의 발자취

제4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 방향/정태범	63
식민주의사관 논쟁에 휘말렸던 국사 교과서/윤종영	72
장르 중심 단원 구성으로 바뀐 국어 교과서/정준섭	79
제2외국어 편수 낙수 二話/양원	84

단상

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논쟁’/신영범	88
‘대안 교과서’와 이를 둘러싼 시비/박남화	92

연구 과제 소개

한국 편수사 연구(Ⅱ)	98
한말 및 일제 강점기의 교과서 목록 수집 조사	99

자료

북한의 교육	100
교과용 도서 보상금 지급 기준	111

● 원고 모집	62
● 연구재단 소식	112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114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115

* 표지 글씨 : 신두영

* 표지 디자인 : 대한교과서(주) 편집팀

더 파괴되기 전에 돌아보자

일찍부터 사람 키우는 일을 농사에 비유한 사례가 많다. 투자하는 노력과 소출이 정확하게 비례한다는 점에서 이 낡은 비유는 아직도 정확하다.

교육은 농사(農事)다. 그리고 농사의 터전은 토양(土壤)이다. 기대하는 농산물을 거두기 위해서 정직하기 이를 데 없는 토양이 이제 얼마나 까다로워지고, 그 기능이 오르락내리락 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교육의 토양을 생각한다

교육 투자는 농사꾼이 밭을 돌보는 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밀하고 과감해야 하지만, 그보다 훨씬 힘든 일은 가꾸고 돌보아 주는 장본인들이 어느 정도는 직접 모델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땅의 저력을 너무 남용해서 온통 비료와 약품으로 범벅되는 현상은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다.

몇 해 전부터 나는 집에서 소규모이지만 밭농사를 하고 있다. 몇 가지 대단치 않은 푸성귀를 키우면서도 그 식물들이 밭 주인인 필자가 보살핀 만큼만 흰칠하게 자란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양육에 관한 엄정함과 무서움을 느끼곤 했다.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사실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토양의 중요성과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분위기에 대해서 모르는 점은 거의 없다. 어른들의 고질적인 이기주의가 토양을 가꾸는 각 항목을 끈질기게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사람이란 어차피 조금씩은 모두 다르게 태어나고 그 다른 점만 정확히 인정한다면 훨씬 경제적이고 안정된 인생을 구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안정성이 터를 잡는 시기는 유아, 청소년기, 즉 교육을 받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어른들의 대처, 너나없이 저지르는 교육 토양의 훼손과 방치에 대

해서 우리는 거듭 지적하고 성찰을 그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다.

심각한 과제들

교육의 토양을 토양답게 하는 과제란 실로 수없이 많다. 뻔한 논리임에도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절대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몇 가지부터 들어 보도록 한다.

첫째는, 적성이라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세상은 어느 한 가지, 이른바 고급 직업만으로 채워지거나 그 한 가지 직업만으로 굴러가게 아닐 터이다. 사회와 삶의 규격을 완성되게 해 주는 여러 직업과 전문 기술 및 그에 관한 자긍심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긍심과 전문성이 인정되기까지는 누구에게나 세 가지 구비 조건은 고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가정 교육, 공교육, 그리고 본인이 선택하는 전문 교육이다. 이 세 가지가 세태를 반영한다는 명목하에 모두 빠르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한 가지 목표만을 지향한다면 세상은 사교육비의 함정, 찰흙은 부동산값의 혼란을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성장하는 젊은이들에게 인간다운 양심의 터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 해결의 실마리라도 잡고자 교육 방송 편성에 직업 교육을 대폭 확대했다.

늘 인용하는 경험이지만 독일의 공동 묘지에 있는 묘비에는 그 귀천을 가리지 않고 생전의 자기 직업을 자랑스럽게 새겨 놓았고, 그것이 입시 지옥이나 인생 경쟁의 불공정이라는 사회적 취약점을 끌어 버린 철학이란 점을 강조했다. 적어도 대학 입시 경쟁자의 3분의 1 정도는 공연스레 적성과 관계 없는

실패의 쓴맛만 보면서 위축되고 심약한 인생 출발이 되지 않도록 강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과제도 청소년 혼자서만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그들이 선택한 적성에 대하여 복돋아 줄 장치가 미약할 뿐 아니라, 부모들의 천편일률적인 욕심과 무모한 이기주의가 장애가 되는 것이다. 자식의 교육에 관한 한 욕심이라든가 무모한 이기주의라는 표현은 사실 적절한 표현이 되기는 어렵겠으나 자식을 반듯하게 키우는 교육적 토양에는 도움이 안 되는 점은 분명하다.

현대 사회에 적성을 쫓는 젊은이들을 보살필 장치는 아직 부족하지만 이들이 한 번 결정한 방향을 살면서 바꾸거나 향상시킬 장치는 전과 다르게 발전되어 있다. 마치 대학만 졸업하면 모두 교수가 될 것처럼 입시에만 몰려들지 않아도 적절한 시기에 고급 지식에 도전할 기회, 이른바 사회 교육적 장치들은 충분히 갖추었다는 뜻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도박처럼 사교육비를 투입하고, 성공과 실패의 긴장 속에서만 살게 하는 일은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뜻이다.

둘째로, 토양 유지의 결정적 항목은 ‘정직성을 가르치는 일’의 취약함일 것이다. 쉽게 표현해서 정직성이라고 했지만 이 점은 아무 때나 대수롭지 않게 표출되는 사회적 모순의 뻔뻔스러움을 모두 합친 표현이다. 이것은 또한 어렵게라도 적성에 맞게, 또는 분수에 맞게 세상을 살고 자기 발전을 도모하려고 마음먹은 모든 평범한 청소년들에게 의문을 갖게 하고, 맥빠지게 하고, 왜곡된 방향도 주저 없이 걷게 하는 기능을 하게 한다.

교육을 제 궤도에 올려놓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궁극적인 교육의 목표를 ‘정직’, ‘용기’

또는 ‘자기 의견 형성’에 두고 있는 점은 새겨볼 만한 사항이다. 다른 나라라고 해서 ‘정직성’을 가르치는 데 전 사회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상황이야 어렵겠지만, 우리처럼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에 통일 과제까지 노출되는 상황들이 뻔뻔스러움이라는 표현 외에는 적절한 말이 없는 사회 환경은 아닌 것이다.

이처럼 몇몇치 못한, 게다가 그것이 일상화되어 가는 사회 변화는 곧바로 교실에서 나타나고, 끼리끼리 주먹만 휘두르는 폭력에서 나타나고, 이제는 교사나 부모의 힘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청소년 문제로 노출되는 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정 부패, 일상사 속에 묻혀 있는 생명 경시 풍조, 최근에는 ‘카드 빚’으로 표현되고 있는 경제 생활에 있어서의 자기 상실,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인 성인들의 선정주의와 한탕주의 등은 농사일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농사꾼의 역할을 포기한 현상들인 것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공교육의 붕괴 등 절박한 결과를 인식하고 염려한 지는 오래 되었지만 사실상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해 둔 채 정직하고 활기에 찬 교실만을 기대한다는 일은 얼마나 허망한 생각인가.

이미 깊숙하게 상처를 입은 사회 각 부문이 어느 날 일거에 치유되어 건강한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장래를 예측하고 이를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는 데는 어른들의 막가는 이기주의가 단계적으로라도 개선된다는 의지와 실행을 보여 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점은 날이

갈수록 목표의 설정과 청소년의 비전이 거리가 멀어진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국면이 아닐 수 없다.

모든 미디어를 동원하여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방법은 이제 상당한 정도로 개발되었지만 이를 시행하는 전문가와 기구에 대한 신뢰도와 감동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인식을 안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비록 막연하지만 피할 수 없는 교육의 토양인 것이다.

셋째로, 토양은 사회에 만연한 갈등 구조를 이해시키고 이를 전망하고 비판하고 합의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이다. 이것은 분위기만이 아닌 실행 개념으로, 역시 서구에 비해서 가장 뒤쳐진 교육 현상 중의 하나일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거니와 사회란 모든 갈등과 모순을 제거한 명경지수와 같은 상태는 없으리라. 이와 같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부단히 토론하고 합의하고 내세우는 주장을 분명하게 할 수 있으면서 주변의 의견도 수렴할 줄 아는 인간됨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의 성장 발전에 기본 토대인 이와 같은 의견 형성의 문화도 청소년에게 보여 줄 만한 일상화된 모델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네 형편이다. 토론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합의에 이른 갈등 조정 능력은 미약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토론은 오늘날의 생활 이념인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실천해서 각자 자기 장래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며, 외부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비판과 책임을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기본적인 도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생활 훈련은 학교, 가정, 사회의 순으로 알맞은 빈도만큼은 이루어지고 그것


이 곧 교육받는 시기에 주된 일과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매스미디어 환경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텔레비전의 경우는 ‘말’보다는 ‘그림’이 앞서는 전달 방식 때문에 의견 형성과 교육이 성취되는 데는 많은 제약을 안고 있으며, 인터넷이라는 뉴미디어 역시 정보를 얻는 기능은 어느 정도 확대되고 있으나 생산적 의견 형성 기능이 확립되기까지는 아직도 더 기다리고 감시를 게을리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청소년을 위한 교육 설계의 부족과 함께 성인들의 순간적인 향락과 소비적 이용이 더 큰 이유가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교육 방송이 그 틈새를 이용하여 필요한 것, 유익한 것, 그리고 의견 형성에 기여할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있으나 좀더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빠져든 단순한 ‘재미’의 유혹들을 헤쳐 나가기에는 아직도 힘든 형편에 있는 것이다.

맺음말

거듭 강조하거니와 교육은 먼 미래를 보는 투자이지만 여타 투자나 저축처럼 쓰고 남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문이 시급하다고 느낄 때는 대부분 이미 뒤쳐져 있거나 늦은 상태이므로, 서둘러 시행해야 겨우 경제성이 있는 그런 투자이다. 그리고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 그 경제성을 먼저 도모하도록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 투자는 농사꾼이 밭을 돌보는 것에 비교할 수 없을만큼 치밀하고 과감해야 하지만, 그보다 훨씬 힘든 일은 가꾸고 돌보아 주는 장본인들이 어느 정도는 직접 모델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는 생활 형편이 좀 나아져서 마음만 먹으면 교육 환경은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교만한 자세로 게으름을 피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이다.

또한, 설명하기 어려운 뻔뻔한 사안이 등장할 때마다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지?’ 하는 걸치레 염려만으로는 교육 토양이 비옥해지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그렇다. 교육 토양은 분명한 품질 수준이 존재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뼈를 깎는 어른들의 변신도 필요한 때다. 

새로운 교과서의 기능

■ 글 / 함수곤(한국교원대학교 교수)

1. 서 론

교과서는 수많은 출판물 중에서 매우 중요한 출판물임에 틀림이 없다. 오늘날 세계의 어느 국가에서도 교과서라는 출판물을 펴내지 않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 나라의 교과서를 보면 그 나라의 교육, 문화, 경제, 기술 등의 형편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그 나라가 지향하는 바와 국민성도 거의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과서는 일반 출판물에 비하여 매우 중요성을 지니는 특수한 출판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는 오래 전에 학교 교육의 중심적인 교육 자료로 출현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과 표현, 체제, 인쇄, 제본 등 모든 면에 걸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교과서는 학교 교육에서 매우 비중이 큰 중요한 도구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의 변화에 따라 당연히 교과서도 변하기 마련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학교 교육의 설 계도이자 교과서의 어머니격인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교과서도 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교의 기능과

교육 내용 및 방법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교과서도 그 기능과 내용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 학교가 지식의 전달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던 시기에는 당연히 교과서도 지식의 전달에 효과적인 도구로 만들어졌다. 정선된 지식을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암기시키고, 반복 연습하게 하는 데 편리하도록 제작되었던 것이다.

농경 사회를 지나 산업 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 지식 기반 사회로 접어들면서 학교의 기능은 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과거 처럼 학교가 학습자에게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을 수행하는 기능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단편적인 기존 지식을 학습자에게 전달해서 학습자의 두뇌에 차곡차곡 저장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별로 의미도 없는 작업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정보 통신 기술의 혁명적 발전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생활 깊숙이 정착되어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누구나 손쉽게 구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 학교의 기능에 변화를 가져

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학교는 지식 전달의 기능을 줄이고 학습자 하나하나의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지원하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과거와 같은 지식의 전달과 저장 등의 기능은 이제 학교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기구와 시스템이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학교 기능의 변화는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고,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교과서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2. 학교 기능 변화에 따른 교과서의 기능

이제 학교 교육은 과거와 같은 교과서 중심 교육, 교사 중심 교육, 획일적인 일제 수업 중심 교육, 지식의 주입 암기식 교육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접어들었다. 수업은 분명히 전개되었는데 학습은 없었던 그런 교실 수업이 사라져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제부터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중시되는 학교 교육이 실현되어야 할 때이다. 학생이 평소 수업에서 스스로 계획 수립, 과제 탐구, 자료 수집, 문제 발견, 해결 방안 탐색, 발표, 토론, 표현, 제작, 실습, 비교 분석, 요약, 결론 도출 등 다양한 직접 체험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 속에서 자신의 발달 가능성을 발견하여 신장해 나감으로써 자아 실현을 성취해 나가도록 교사는 안내하고 도와 주고 지원하는 원조자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즉, 교실 수업에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에 적극 참여하고 직접 체험을

중시하는 활동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실 수업의 변화는 당연히 교과서 기능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교과서는 이제 교사가 가르치는 데 편리하게 꾸며지는 것보다는 학습자가 학습하는 데 편리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과서의 기능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요구되고 강조되어야 할 중심적인 기능 몇 가지를 제시하면 대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가. 학습 의욕 환기 기능

교실 수업을 기존의 단편적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보지 않고, 학습자가 교과서를 단서로 하여 학생 스스로의 힘으로 지식을 형성하고 문화의 가치를 생산하는 하나의 창조적 활동을 돕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교과서는 학습자를 미지의 세계로 인도하고 학습의 동기와 기대를 갖게 하여 학습하고자 하는 마음에 불을 당길 수 있는 매력을 갖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문적, 이론적 접근이나 논리에만 충실해서는 안 되고 학습자의 문화와 눈높이에 맞는 내용과 편집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에 밀착된 소재의 선정과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학습 과제 제시 기능

학습자의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학습 활동을 조직하고 전개하기 위해서는 학습 과제를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자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교과서에는 학습

**교과서는 학습자를 미지의 세계로 인도하고
학습의 동기와 기대를 갖게 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하고자 하는 마음에
불을 당길 수 있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 학습자의 문화와
눈높이에 맞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제가 명확하게 제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학습자가 이번 학습에서 무엇을 배우면 좋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학습 과제가 교과서에 매력 있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 과제는 학생의 호기심과 강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과 형식으로 제시되어 학생을 학습으로 강하게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학습 방법 제시 기능

교실 수업을 자기 주도적 학습과 그러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도와 주는 과정으로 조직하고 전개하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그러한 방향으로 편찬되어야 한다. 즉,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방법을 탐색하고 사고하는 단서가 되어 줄 수 있는 교과서가 되어야 하고, 그런 사고를 촉발하는 자료가 되어야 한다. 학습의 방법, 사고의 방법,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 등을 안내하고 유도하는 기능을 교과서가 보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계획을 세우는 방법, 조사하는 방법, 관찰, 실험하는 방법, 발표하는 방법, 보고하는 방법 등이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적절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라. 학습의 개성화·개별화 기능

앞으로의 교과서는 학습의 개별화를 도모하고 개성을 살릴 수 있게 하는 데 공헌해야

한다. 학습의 개별화 기능을 가진 교과서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공통 학습 과제와 개별화 학습 과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학습자가 자신에 알맞은 학습 과제나 학습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야 하며, 셋째, 학년과 교과에 따라서는 복수의 교과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넷째, 학습자의 자학 자습이 가능하도록 패키지화된 교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학습자의 개성화를 돕는 교과서 기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사고와 추리를 자극할 수 있는 내용 서술이 필요하고, 둘째, 학습자의 자기 학습을 돕는 정보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마. 학습의 정착 기능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면서 학습의 성과를 정착시키는 기능을 가진 교과서가 되도록 한다. 즉, 학습자가 학습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다시 점검하면서 학습의 성과를 정착시킬 수 있게 꾸며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장치는 후속 학습 과제나 학습 방법의 발견과 탐구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새로운 교과서 상(像)

이상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의 교과서 기능

은 새로운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기능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수·학습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의 교수(敎授) 중심의 수업과 그러한 수업을 성립시킨 교과서라는 관점으로부터 학습(學習) 중심의 수업을 성립시키기 위한 교과서라는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학습 중심의 수업을 구상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전제 아래 '학습재(學習材)로서의 교과서'에 대한 기본적 요소를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교재로서의 교과서'를 '학습재로서의 교과서'로 전환시켜 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지향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지식 중시의 교과서를 학습 의욕을 제고하는 교과서로

학습재로서의 교과서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자극하고, 환기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서로 만드는 일이다.

흔히 '교과서를 가르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교수 중심 수업에서의 교과서를 말하는 것이다. 학습재로서의 교과서는 교과서로 가르칠 때의 교과서가 아니라 '교과서로 배울 때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는 재미있는 교과서, 편집과 인쇄가 세련된 교과서, 읽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 학습 안내가 자상하게 되어 있는 교과서, 학습 목표와 과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교과서, 멀티미디어를 적용한 교과서로 만들어야 한다.

나. 지식 전달 교과서를 자기 학습력을 향상시키는 교과서로

교사가 많은 학생을 일제히 가르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서의 교과서를 학습자가 주체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태도나 기능을 높이는 도구와 수단으로서의 교과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 사용의 안내나 지침(guideline)이 제시되어 있어야 하고, 교과서 내용 속에 학습의 순서와 방법 등이 잘 나타나 있어야 한다. 또, 교과서를 이용하여 학습자가 각자의 흥미·관심과 학습 속도 등에 맞춰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장한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교과서의 기술 혁신은 인쇄 교재로서의 교과서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교과서(전자 교과서 등)를 탄생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교과서는 활자로 인쇄된 교과서보다 학습 공간을 제한된 교실에서 더욱 넓게 확대하고 자기 학습력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일 수도 있으므로 교육 내용에 따라서는 인쇄 매체로서의 교과서만 고집해서는 안 될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다. 교사를 돕는 교과서를 학생의 학습 활동을 돕는 교과서로

교사 중심 수업에서는 교과서가 교사의 가르치는 행위를 돕는 유일한 도구이고 수단이였다. 그러한 수업에서는 학습자의 학습 행동은 없었고 수동적으로 교사의 교수 행위를 그대로 수용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의 교수 행위보다는 학생의 학습 활동이 중시되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에서는 교과서가 교사를 돕기보다는 학생의 학습 활동을 돕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과서에 학습의 구체적 안내와 적절한 학습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어야 하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가 수록되어야 한다.

즉, 학생이 학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꾸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요약, 정선된 지식이나 정보의 나열에서 벗어나 제시된 학습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학습하게 할 것인가를 학습자가 스스로 찾아 낼 수 있도록 꾸며져야 할 것이다.

4. 결 론

앞으로 교과서는 교사를 돕는 도구이기보다는 학생의 학습 활동을 돕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앞에서 강조한 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대개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 각 교과서의 기초·기본적 내용을 정선하여 제시한다.

각 교과서는 지엽말단적인 지식이 아니라,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개념과 원리를 정선하고 이를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확실하게 정착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풍부한 정보를 제시하여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유도하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적은 내용의 제시, 많은 학습 시간의 투입, 깊이 있는 학습의 실현).

나. 사고력, 창의력을 기르는 표현과 편집에 유의한다.

학습의 결과로 획득되어지는 지식을 서술해 놓은 교과서가 아니라, 학습하는 방법이나 사고하는 방법 그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기 학습력을 길러 갈 수 있는 자료와 정보가 풍부하게 제시

되어 있어야 한다.

다. 공통 학습에서 개별 학습으로 연결이 잘 되게 만든다.

일제·공통 학습과 개별·소집단 학습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조화롭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로서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일제 수업이 모두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 학습이라고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학습 과제와 내용, 방법에 따라서 그 특질과 단계에 맞게 일제 학습과 개별 학습, 교사 중심과 학생 중심 학습을 조화롭게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과서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학습 방법과 형태를 암시할 수 있는 표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 체험 학습, 직접 경험에 의한 학습과 연결되게 한다.

교과서가 학생의 체험 학습과 직접 체험이 필요한 부분은 이를 강조하고 안내하는 정보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설명식 본문 서술형 중심으로 편찬되는 현재의 교과서는 앞으로 학생의 다양한 직접 체험을 요구하는 안내와 지시를 발신하는 적극적인 안내형, 작업형 교과서로 변신해야 한다.

마. 본문, 정보, 자료, 학습 활동 안내 및 돕기 등의 구성에 유의한다.

본문 중심의 단조롭고 평면적인 현재의 교과서는 학생의 학습 활동을 돕기보다는 교사의 교수 행위를 돕는 데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교과서에는 본문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 각

종 자료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고(꼭수 증면이 예상됨.) 학습 과제 제시와 안내, 학습하는 방법, 문제 해결의 실마리, 요약하는 법, 보고하는 법 등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돕는 내용이 포함되게 하여야 한다.


바. 정보 수집, 이용, 처리 능력을 기르는 내용과 구성에 유의한다.

정보화, 지식 기반 사회에 살아갈 학습자를 위해서 문제 해결 학습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선택하는 방법, 목적에 맞게 조직하고 조작하고 처리하는 방법 등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교과서도 그러한 흐름에 맞게 내용 구성에 특히 배려해야 한다.

사. 교과서가 패키지화된 교재의 중핵이 되게 한다.

멀티미디어가 중시되고 과거에 비하여 엄청나게 다양하고 풍부해진 첨단 교육 자료가 범람하는 시대에 종이로 만든 인쇄 매체인 교과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은 수많은 교재, 자료 중에서 모항(母港)과 같은 중핵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학습 활동이 교과서로부터 시작[出港]하여 그 학습의 종결 정리 단계에서 다시 교과서로 돌아오게 하는[歸港] 기능을 교과서가 가지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보유한 교과서를 만든다면 교과서는 아무리 최첨단 교육 자료가 쏟아져 나온다 해도 그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여 필요한 교육적 기능을 발휘하면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아. 교사가 수업의 진행 과정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앞으로의 교과서에는 교사의 성공적인 수업 절차의 단계와 이상적인 전개 모형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치 미지의 항구를 향해 항해하는 선장이 나침반과 항해도에 의지하는 것처럼 교사는 교과서를 들여다보면서 수업의 항로를 확인하고 때로는 수정하면서 학습 목표를 향해 항해해 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좋은 교과서 만들기, 그 정답은 없다

글 / 윤광원(대한교과서(주) 편집기획관리팀장)

국가의 교육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교과서가 교육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교과서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선진국과 후진국이 다르지 않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 수립 후 교육과정 개편 때마다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대책들이 활발히 논의되었고, 실제로 이를 위한 노력들이 교과서에 담겨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및 일부 교과서 관계자들이 제기하는 비판적 시각은 앞으로 우리의 교과서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의 시각은 이렇다. 교육과정 개편 때마다 논의된 좋은 교과서 만들기에 대한 노력은 항상 기초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 결과적으로는 종전의 관행을 답습하여 편찬, 발행함에 따라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호된 비판이다. 여기서 말하는 ‘종전 관행의 답습’은 교과서의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교과 내용을 포장하는 외형 체제 모두에 해당된다.

또한, 지금까지 교과서는 일반 출판물에 비해서 답을 내용에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내용을 어떠한 모습,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담고 전달하며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더욱이 이러한 외적 마무리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지원이 뒤따르지 못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교과서는 내용 구성과 내적 체제면에서 근간에 엄청난 변화를 보여왔지만, 유독 외적 구성면(지질, 색도, 판형, 편집 디자인 측면 등)에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편집자를 제외한 여타 분야에서는 전문가조차 양성되어 있지 않아 교과서의 외적인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적 수준에서 편집 디자인 측면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시각적으로 풍요로운 교과서의 편찬을 강조함으로써 종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개선되었

지만, 아직은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업적이 부족하고, 과도적인 출발 단계라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외적으로 수준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분야를 개괄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물론, 여기에는 전문가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다분히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교과서 개발에서 외적 구성 체제를 고민하고 적용해야 하는 편집 일선에 근무하는 일원으로서 나름대로의 소신이나 추구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비록,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교과서의 외적 구성과 체제 개선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기는 하였지만, 교과서에 대한 생각이나 체제 등이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연구되고 교과서에 관한 이론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지 않은 탓에 개념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직 모호한 점이 많고 체계적으로도 매우 부족하다.

교과서도 일반 출판물과 같이 크게 내용 체제와 외적 체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편집이라는 말을 쓸 때는 내용 체제와 외적 체제를 모두 포함하는 말로 쓰고 있으나, 실제로는 내용 체제와 외적 체제는 각기 다른 전문성을 요하는 별개의 영역이다.

주로 책자 형식의 인쇄물을, 그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시각적으로 배치하고 구성하는 것을 우리는 편집 디자인(editorial design)이라 일컫는다. 책의 내용을 기획하고 글을 다듬는 것은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 편집(copy editing)의 영역이고, 그 내용에 어떠한 옷을 입히는가는 외적 체제에 해당되는

시각 편집(art editing)이다. 시각 편집은 곧 편집 디자인과 통한다. 편집 작업은 내용 전달의 수단이라고도 하지만 외적인 마무리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과서 집필자가 아무리 내용을 잘 선정, 조직하고 조리 있게 서술했다 하더라도 이 외적 뒤처리(편집 디자인)가 소홀하면 그 전달 효과가 저하되고, 전달 효과가 저하되면 매력 없이 주의를 끌 수 없는 교과서가 되어 학습에 부적절한 도서가 되고 만다. 따라서, 교과서의 연구,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은 내용적인 면과 아울러 외적 체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앞으로 우리 나라의 교과서 연구 개발에 있어서는 학습 내용의 선정, 구성, 조직, 배열 등의 내용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편집 디자인(지질, 여백, 활자, 색도, 사진, 삽화 등) 등과 같은 외형적 측면에 좀더 많은 연구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것이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명확한 답이 될 것이다.

교과서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세우는 초석이다. 때문에 양질의 교과서를 학생에게 제공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하다. 교과서는 그 대상이 아직은 어리지만 장차 성인이 될 국민 전체라는 점과 교수·학습에 직접 이용되는 교육과정의 실현 자료가 된다는 점, 그리고 그 내용의 선정이나 연구, 집필, 발행, 공급이 특별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이 여타의 출판물과 다를 뿐, 특정한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인쇄 매체라는 점에서는 교과서도 책(출판물)이 갖는 속성에서 예외일 수 없다.

아무튼, 근간에 우리 나라의 인쇄 출판물의 외적 체제와 편집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발전과 연구 성과의 결과로 많은 진전이 있

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특수한 출판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교과서를 실제로 연구하고 개발한 그 담당자들에게는 개발 여건의 불비와 시간 부족, 충분한 예산 및 연구 부족 등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교과서 외적 체제 개선의 참고가 될 만한 관련 자료를 제시해 본다.

■ 교과서 외적 체제 개선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1. 판형에 관한 사항

○ 문제점

판형	문 제 점
국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집 설계(layout) 제약으로 편집이 단조로워질 가능성이 높음. - 운전 인쇄시 엇걸 제본으로 주름이 생기고, 책 펴짐이 유연하지 못하며, 낙장 및 책의 갈라짐 현상이 심한 편임. - 교과서의 판형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크라운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수록량이 책 크기만큼 많지 않음. - 인쇄 기계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손지 발생률이 높은 편임. - 경제성이 떨어짐.
4×6 배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관리가 다른 판형보다 용이하지 못함. - 편집 디자인의 수준이 떨어질 경우 낭비 요인이 될 수 있음.

○ 판형에 대한 연구

- 용지 이용의 경제성
→ 국판, 4×6 배판 > 크라운판
- 레이아웃의 융통성
→ 국판 < 크라운판 < 4×6 배판
- 책 관리의 용이성
→ 국판 > 크라운판 > 4×6 배판
- 학습자의 선호도

→ 국판 < 크라운판 < 4×6 배판

• 학습의 효율성

→ 국판 < 크라운판 < 4×6 배판

○ 판형 선택시 고려 사항

- 가독성 및 경제성
- 사진, 삽화가 해당 교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효과의 중요성
- 주활자(폰트) 크기와 행장에 상응한 선택
- 사용자의 편의성과 판면 여백 감안

2. 지질에 관한 사항

○ 문제점

- 교과서에 적합한 지질 개발 미흡(유연성 있는 저평량 고급 지질)
- 지질 선택에 있어서 교육적인 면보다 경제적인 면에 너무 치우침.
- 사용 기간이 짧은 교과서라는 이유로 고급 화할 경우 낭비적인 요인 때문에 지질 향상에 제약을 받음.
- 정부 및 교과서 관계자들의 관심과 노력 미흡

○ 지질에 대한 연구

- 중질지는 인쇄 망점 및 실물 재현도가 좋지 않음(교과서 용지로 부적합).
- 교과서 가격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지질을 향상시켜야 함(저평량 고급 지질).

○ 지질 개선시 고려 사항

- 인쇄 적성 : 평활도(매끄러운 정도), 불투명도(되비침 정도), 실물 재현도(인쇄 효과), 인장·인열·내절 강도(종이의 찢어지는 강도)
- 가독성 : 백색도, 광택도(눈의 피로도)
- 경제성 : 종이 가격, 교과서 사용 기간 및 기능 등

3. 색도에 관한 사항

○ 문제점

- 색도 사용에 있어 교과별 적용 효과 연구의

미흡(workbook, 미술 및 디자인 교과, 과학 교과 등의 색도 차별화)

- 인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외형 체제 미비(편집 디자인 분야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체제)

○ 색도에 대한 연구

- 색도는 편집 도구로서 기능적으로 사용될 때에 의미가 있으므로 배경색, 책의 꾸미는 기능, 내용의 이해를 돕는 접속 수단, 내용의 강조 수단 등으로 효과가 있을 있을 때 사용해야 함.
- 색도는 책에 대한 쉬운 접근, 속독, 다독 및 이해 등의 촉진제 역할을 하는 데 효과적임.
- 대체적으로 원색은 실물 재현(사진), 다색은 그림, 선, 글자의 강조 기능 등에 사용되고 있음.

○ 색도 반영시 고려 사항

- 지질에 부합되고 인쇄 효과를 통한 학습 효과 제고
- 교과별 특성과 교과 내용에 상응하는 색도 선정
- 시각 효과 증진 및 편집의 다양성 추구

4. 편집 디자인

○ 문제점

- 획일적인 편집 체제 기준(다양한 편집 디자인 기법 도입 미흡)
-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편집 디자인 분야 경시(대부분 교과 교육 전문가가 교과서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디자인 분야를 경시함.)
- 집필 과정과 편집 과정의 괴리(집필 과정에서 편집진이 직접 참여하지 않으므로 편집 디자인 기법 활용의 제한을 받음.)

○ 디자인에 대한 연구

- 교과서는 내용 못지않게 편집 체제가 잘 꾸며졌을 때, 정보 전달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교과서 편집 디자인 수준의 낙후성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전문 북 디자이너의 참여 부재에 기인함.

○ 디자인 분야 강화시 고려 사항

- 학교급별, 학년별, 교과별 특성에 맞는 디자인 기법 도입
- 디자인 기법을 전 교과에 걸쳐 강조하되 전체적인 통일성 유지
- 특히, 초등 학교 교과는 사진, 삽화 질을 높이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함.

■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외형 체제

1. 판형

- 4×6 배판을 원칙으로 함.
- 규격은 현행 교과용 도서의 4×6 배판 규격 사용

2. 지질

- 본문 용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도하여 개발한 교과서 용지 사용($80 \pm 5 \text{ g/m}^2$ 정도의 상질지) 단, 미술, 사회과 부도, 역사 부도는 아트지 120 g/m^2
- 표지: 엠보싱 240 g/m^2
- 기타 부속물의 지질은 교과서에 적합한 지질 사용

3. 색도: 교과용 도서 판형, 쪽수 및 색도 등을 기준하여 지정한 다음 활용

4. 편집 배열

- 표지 → 속표지 → 차례 → 본문 → 부록의 순으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함.
- 2색도 이내 도서는 필요한 경우 4쪽 이내의 화보 배열 가능

5. 편집 디자인

○ 디자인 설계 및 레이아웃

- 시각성, 창작성, 적합성을 충실히 살리고, 사용자의 연령, 교과목, 단원 등에 맞는 디자인 설계로 이해력과 흥미를 높인다.
- 시각적인 일관성과 다양한 변화를 통해 책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구성한다.
- 특히, 교과 내용과 사진·삽화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공간을 구성 배치한다.

○ 타이포 그래픽

- 본문 : 중학교 교과서는 11 포인트, 고등학교 교과서는 10.5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고, 활자체, 어간, 자간, 행간 등은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한다(한문, 영어, 독일어 등 외국 문자는 종전 ‘교과용 도서의 체제 기준’을 참조).
- 제목 및 기타 : 글자의 조형미와 기능에 맞게 사용한다.

○ 사진·그림

- 그림보다는 사실적인 사진을 이용하고 컴퓨터 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풍부하게 사용한다.
- 그림은 질과 사실성을 높이고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다.
- 효과적인 그래픽 소재를 적절하게 선택 사용한다.

○ 교과용 지도서의 외형 체제 : 판형은 4×6배판, 본문 지질은 중질지 70g/㎡, 색도는 2색도 이내로 하며, 기타 외형 체제 사항은 적절하게 선택 사용한다.

이상에서 보듯 제7차 교육과정은 이전의 교육과정의 시행과는 달리 교과서의 외적인 질 향상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준거를 마련, 시행하였고, 이에 따른 결과물도 학생과 교사, 그리고 여론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

고 있다. 어느 학부모가 마치 흑백 텔레비전 시대에서 컬러 텔레비전 시대로의 변화와도 같다고 하면서,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올해 고등 학교 2학년인 아들을 안타까워했다고 하는 일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정 교과서인 초·중등 학교 교과서는 전문 아트 디렉터의 손길을 거치고, 중·고등학교의 2종 교과서는 검정 심사에 편집 디자인 분야를 포함함으로써 이 같은 결실을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교과서의 편집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있으므로,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 비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와 아량이 필요하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요지는 이렇다. “교과서다운 편집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 없이 모두 시각적인 아름다움만을 강조하여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부분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변화를 모색한 첫 시험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라 하겠다.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만, ‘이것이 교과서 편집 모델이다.’란 명제에 접근할 때까지 우리의 관심이 교과서를 떠나서는 안 된다. 여기에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는 두말 할 필요 없는 필수 조건이다. 일반 출판물의 외적 수준이 선진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은, 교과서 외형 체제의 앞날에 큰 도우미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는 더 나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국가 주도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가 요구되는 때라 하겠다. ㉔

사실과 원칙 중심의 오류 없는 교과서

■ 글 / 정용환((주) 천재교육 편집국장)

우리는 흔히 원칙과 사실에 매우 충실하고 오류가 없는 경우를 가리켜 ‘교과서적’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교과서는 어떠해야 한다.’는 요건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 요건이란 교과서는 사실적이어야 하고 원칙에 충실해야 하며, 틀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적’이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또는 ‘있었던 그대로’를 뜻하는데, 여기에는 과학적 실증과 합리성이 뒷받침될 때 생명력을 얻는다. ‘원칙에 충실하다.’라는 말은 ‘규칙 규정 등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뜻한다. ‘틀림이 없다.’라는 말은 ‘어그러지거나 어긋남이 없이 확실한 것’을 뜻한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 ‘원칙’, ‘오류’를 중심으로 좋은 교과서의 요건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과서는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사실에 근거한 기술’은 교과서의 가장 기본 요건이 된다. 예를 들어 과학의 경우, 실험 활동에서 직접 실험을 해 보지 않고서 예상한 결과를 기술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직접 실험 활동을 하는 도중에 결과가 잘 나오지 않거나,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또, 오래 전 일이지만(제5차 교육과정 때) 어느 교과서에서는 일본 학생이 일주일 동안 집에서 관찰한 기록을 우리 나라 학생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교과서에 실었다가 나중에 그 활동 기록이 일본 교과서에 있는 학생의 것으로 확인되어 신문에 실린 부끄러운 일도 있었다.

이와 같이 교과서 내용이 사실과 실증에 바탕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문장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무엇일 것이다.’라든가, ‘무엇일 것 같다.’는 표현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추측을 뜻하는 것이므로 교과서에서는 지양되어야 한다.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편찬 관계자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면 자칫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는 교과서 편찬자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기본 요건이다.

둘째,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현해야 한다.

좋은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교과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즐겁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알맞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즐겁게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그것은 교육과정
이 교과 내용의 근간이 되는 ‘규정’이기 때문
이다. 교육과정은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교육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토의하고 연구하여 우리 나라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의 설계도이다. 이것이 무시되
면 중구난방식의 자유스럽고 개성적인 교과
서들이 나타나 특정 저작자의 개인적 사상이
나 감정, 지식 세계에 교육이 담보되는 폐단
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은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교과서는 변화
된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구성 방향을 잘
반영하여야만 한다.

셋째, 오류가 적은 교과서라야 한다.

흔히 교과서는 틀린 것이 없는 완벽한 책
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원칙
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오류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교과서라는 말을 아직까지 들어 본
적이 없다. 사소한 실수는 곧 수정하면 되지
만, 큰 실수는 바로잡히기가 어렵다.

① 개념상의 오류가 적어야 한다.

많은 개념들이 나열된 지식 속에는 오개념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오개념은 여러
단계에서 줄여 나가야 하지만, 특히 원고에서

저자의 몫이 크다. 특히, 전문 지식이나 최신
이론 등은 여러 사람들이 검토하여 확인한
후에 입증된 이론을 실어야만 한다. 막연히
어디서 본 기억이 있던 이론을 실어 놓으면
그 이론을 편집과 교정 단계에서는 확인하기
가 어려우므로 개념의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

② 편집상의 오류를 줄여야 한다.

이런 오류는 편집자가 범하기 쉬운 것들로
서 사진이 뒤집혀서 양복 주머니가 오른쪽에
있거나, 사진 속의 영문자 글씨가 바뀐 모양
이 실린 교과서도 있었다. 또는 삽화나 도표
등을 실을 때에 확정된 최종 원고와 배경 상
황을 치밀하게 고려하지 않는 평범한 진행이
오류로 표현되어 내용과 삽화가 일치되지 않
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오류들이 책이 완성
된 후에야 보이는 경우도 있다.

③ 표현과 표기의 오류를 줄여야 한다.

한 문장의 구성이 어색하게 표현되어 문맥
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오류로서 우
리가 흔히 범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예를 들
면, 존재하고 있다(존재한다), 공감을 느낀다
(공감한다), 결론을 맺는다(결론짓다), 담임
을 맡다(담임이다), 여러 가지 종류(여러 종
류) 등과 같이 무심코 쓰는 말들 중에서도
비문법적인 오류들이 많다.

이와 같이 문장의 오류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적어도 조사와 어미의 오용, 적절하지 못한 낱말의 사용, 표현 방법의 미숙, 문맥의 오류 등을 최소한 줄여야만 할 것이다.

특히,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는 아직도 학자에 따라 의견이 다른 주장이 있어서 어려운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국어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보다 아주 정밀한 검토를 거쳐 출간되지만 의외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틀린 곳이 많다고 최근에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교과서에서만은 평범한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표현 표기가 우선 깨끗하게 이루어진 교과서가 아니라면 좋은 교과서라고 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오류가 적은 교과서만이 교과서로서의 모범이 되고 자격이 있는 것이다.

넷째,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교과서일지라도 배우는 학생이 없다면 교과서로서 생명력이 없다. 교과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즐겁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알맞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즐겁게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 활동의 소재는 가능한 우리 주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 소재부터 친근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야 학생들이 교과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자인의 효과를 잘 살려서 사용하기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자인에 대한 효과를 강조하고 비중을 두는 요즘의 경향을 볼 때 더 나은 디자인을 연구하고 개

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컬러 교과서뿐 아니라 교과서에 사용하는 사진 자료는 선명하고 깨끗한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사진과 함께 사용하는 삽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선명하고 깨끗한 것으로 하여 싫증이 나지 않고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좋은 교과서란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여기에 언급된 것 말고도 더 중요한 것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 좋은 교과서라면 무엇보다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이상적인 교육과정에 맞추어 사실적으로 진술한 후 오류를 줄여야 한다. 이것을 학생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학습 효과를 쉽게 올릴 수 있는 디자인을 한 그릇에 어울리게 담아서 편찬한다면, 좋은 교과서가 될 것이 분명하다. ㉠

좋은 교과서의 조건들

■ 글 / 배종수(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들어가는 말

21 세기는 정보화 사회로서 정보 수집과 처리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계발,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 등이 요구된다. 이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 과정이 개정되고,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응하여 교과서도 변하여야만 한다.

좋은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수·학습 활동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자료이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목표를 나타내기 위한 자료는 교과서를 비롯하여 보조 교과서, 멀티미디어 자료, 시청각 자료 등이 있다. 비록, 교과서는 이들 자료 가운데 하나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매우 클 수밖에 없으며, 좋은 교과서 편찬은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좋은 교과서의 논의는 외형적인 체제와 내

용의 선정과 조직에 따라 생각할 수 있다.

외형적인 체제

외형적인 체제는 교과서의 가로와 세로의 크기, 전체 쪽수, 보조 자료의 종류와 형태, 종이의 질, 활자의 크기, 색도의 종류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교과서의 외형은 단순한 물리적인 특성 외에 심미적, 심리적, 사회적 관점에 따라 비교할 수도 있다. 교과서의 글씨 크기와 모양도 학생들의 연령과 발달 정도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삽화의 제작과 편집도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과 관련지어 고려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외형은 학습의 효율성과 관련된 요소들을 가장 심도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 교과용 도서의 종류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 내용이 선정되어 조직되고 평가가 제시되고 있는 교과서가 있어야 한다.

교과서로 학습한 내용을 연습하고 익히거

나 보충·심화하기 위한 자료로서 보조 교과서가 있어야 한다.

교과서와 보조 교과서로 학습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CD-ROM을 비롯하여 멀티미디어 자료, 시청각 자료, 구체적인 조작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학습 자료가 있어야 한다.

또, 교사들이 교과서와 보조 교과서, 학습 활동 자료들을 자세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가 있어야 한다.

○ 판형의 크기

판형은 교과서의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말한다. 판형은 교과서의 외형적인 체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판형은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가독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판형은 학생의 신체적, 정서적인 측면과 활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활자의 크기와 사진·삽화의 규격, 교과서 제작의 경제성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 종이의 질

종이의 질은 각 교과마다 다를 수 있다. 미술이나 음악, 사회과 부도와 같은 특수한 교과에서는 특수한 종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종이의 질은 글자와 색도의 인쇄, 가독성, 제본, 교과서의 무게 등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종이의 질은 무게, 학생들의 편리 등에 유의하여 선정해야 한다.

○ 글자의 크기

글자의 크기는 글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글자의 변별성과 글을 읽기 쉽도록 하는 가독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화보의 활용

사진이나 삽화, 표와 같은 화보는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나타내거나 보충하는 보조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학습자의 지루함을 덜어 주기 위하여 활용된다. 그러므로 화보는 화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 색도의 다양화

색의 사용은 학생들이 책에 쉽게 접근하기 위하여, 많은 내용의 양을 짧은 시간 안에 읽게 하기 위하여, 지루함을 덜어 주어 오랜 시간 동안 책을 읽게 하기 위하여 고려된다. 그러므로 색도는 단색에서 벗어나 다색 또는 원색으로 되어야 한다.

○ 재정적인 지원

교과서의 외형이 인쇄와 출판 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학생들이 접하는 많은 도서들의 외형과 비교하여 질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교과서 정책 당국은 교과서 편찬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하고, 각 교과의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며, 평가의 여러 가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교과서는 교수·학습 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하여야 한다. 특별히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교과서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각 교과의 교수·학습 과정이

교과서는 학생들이 학습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학생 실생활 중심의 사례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내용이 선정되어 구성되어져야 한다.

개선되도록 선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하는 교과서

모든 교과서는 각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반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전인적인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고,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고,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교과서에서는 이와 같은 인간이 배출되도록 교과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를 반영하는 교과서

교과서는 각 교과목의 성격과 목표에 충실한 내용을 선정하여야 한다. 내용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시간과 학생들의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양과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선정된 내용은 각 교과목의 교수·학습 방법과 학습자의 학습 능력, 학습 심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실제 수업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조직하여야 한다.

평가는 학습 활동의 결과와 함께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하고, 다양한 평가 기법과 평가 도구를 교과서에 구체적이

고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평가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내에서 평가되어야만 한다.

○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

교과서는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 탐구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교과서가 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교과서는 학생들이 학습 과정의 단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정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져야 한다.

교과서는 학생들이 학습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학생 실생활 중심의 사례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내용이 선정되어 구성되어져야 한다.

학생들의 자율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학생 중심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 교수·학습 과정의 개선에 공헌할 수 있는 교과서

전통적인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 과정을 중시하고 탐구 과정을 중시하는 교수·학습이 되도록 내용이 구성되어져야 한다.

지식을 요약하거나 개념을 압축함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실과 많은 사례를 제시하고 절차와 방법을 중시하는 학습 과정을 전개함

으로써 각 교과와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 쉽고 재미있고 활동하기에 편리한 교과서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흥미와 동기 유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양한 편집과 디자인 기법을 도입하여 가독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비롯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 학습과 소집단 학습이 가능하고 직접 경험을 중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미래 사회의 삶을 준비하는 교과서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지금과 전혀 다른 사회가 될 것이다. 미래 사회는 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에 교과서도 변해야 하며, 교사가 현실의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과서가 편찬되어야 한다.

유의해야 할 몇 가지

교과서는 공적인 학습 자료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몇 가지가 있다.

○ 관련 법령의 준수

교육은 교육에 관한 법에 의하여 시행되어지고 있으므로 교육에 관한 법의 정신에 따

라야만 한다. 그러므로 교과서는 헌법을 비롯하여 교육 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및 동 시행령, 교과용 도서 관련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교육의 중립성 유지

교육은 정치나 종교, 직업, 상품, 성, 단체, 기관 등에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 내용은 공정하고 교육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표현과 표기의 정확성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 국어의 로마자 표기 등은 규정된 법령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인명과 지명, 각종 용어, 지도, 기타의 모든 자료들은 최신의 공인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계량 단위도 규정된 법령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삽화, 도표, 통계 등의 자료는 신빙성이 있고, 적절한 것이 선정되어야 한다.

○ 범교과 학습 내용의 선정

학습 내용의 소재는 인성 교육을 비롯하여 환경 교육, 정보화 교육, 경제 교육 등 민주시민으로서 관련되는 교과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과서 활용에 대한 제언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알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학교나 학급에서는 교과서를 각 지역의 여건이나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히 융통성을 가지고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 교과서 중립의 한계

교과서는 특정 종교나 단체, 상품 등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교과서에 선정되는 소재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상품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상품 이름을 내용의 소재로 선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과서에 선정되어 있는 상품들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상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과서에서는 특별한 상품을 소재로 선정하기보다는 사탕이나 연필과 같은 일반적인 상품만을 소재로 선정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현장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소재를 지역이나 학급의 실정에 맞추어 상품을 바꾸어 지도하여야 한다.

○ 교과서 활용 지역의 한계

사회과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교과서는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내용 지도를 위한 소재들은 전국의 학생들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농촌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농촌 외의 학생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현장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는 소재를 지역이나 학급의 실정에 맞추어 소재를 바꾸어 지도하여야 한다.

○ 학생들의 호기심 변화

학습 내용의 소재에 대한 학생들의 호기심은 항상 변할 수 있다. 그러나 편찬된 교과서는 개편할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과서의 소재들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현장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소재를 바꾸어 지도하여야 한다.

○ 교과서 편찬의 한계

교과서는 3차 공간에서 한 시간 동안 학습 활동이 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2차 공간(평면)인 종이 2~3쪽 위에 정적으로 나타내는 데 한계를 가지고 편찬된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서를 이용하여 교육하는 교사들은 교과서의 공간과 시간에 대한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교과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2]

참고 자료

- 한국 교육 개발원(1995). 교과서 정책과 내용 구성 방식 국제 비교 연구, 연구 보고 RR 95-17.
- 한국 교육과정 연구회(1997). 교과서 체제 개선 연구.
-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1998). 교과서 모형 개발 연구, 연구 보고 RRC 98-8.
- 교육부(1998).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1998년도 초·중·고등학교 1종 도서 편찬 추진 계획.
- 서울 교육 대학교 1종 도서 편찬 위원회(1998).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수학 교과용 도서 개발에 관한 연구.
- 교육부(1999).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1999년도 초·중·고등학교 1종 도서 편찬 추진 계획.
- 한국 교과서 연구 재단(1999). 교과서 연구 제 32호.
- 한국 교과서 연구 재단(2002). 교과서 연구 제 38호.

교육 현장에 만족을 주는 교과서

■ 글 / 류장길 (인천 연성중학교 교사)

너무 잘 만들었다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바뀐 교과서를 선정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모여 심의하는 일은 아주 큰 즐거움이었다. 처음 바뀐 교과서를 접한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너무 예쁘다.”, “너무 잘 만들었다.”, “종이 질이 좋아졌다.”, “학습 내용이 풍부하다.” 등 찬사 일색이었다. 한편으로는 한층 다양해지고, 지질이나 인쇄의 상태, 사진의 해상도, 교과서 디자인이 아주 좋아져서 어떤 교과서를 선정해야 할지 즐거운 고민을 하던 기억이 새롭다. 그래서 그 좋았던 느낌을 안고 마치 간밤의 달콤한 꿈이 오래 지속되도록 잠에서 깨기를 주저했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교과서와 우리가 더욱 좋아하게 될 교과서에 대한 몇 가지 단편적인 생각들을 옮겨 보고자 한다.

희상-교과서는 흑백, 참고서는 컬러

새 교과서가 나오기 이전의 교과서는 질 낮은 종이에 흑백의 인쇄물이었던 것에 비해,

참고서는 고급스러운 지질, 감각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에 원색으로 치장하고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그 때마다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로서 한편으로는 괜한 무기력함이 느껴지곤 했었다.

어릴 적 기억에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크게 깨끗하며 번듯한 건물은 학교였다. 집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학교에서 볼 수 있어서 당시에는 귀했던 재래식 양변기가 놓인 학교의 화장실을 일부러 찾는 경우도 있었다. 책이 귀했던 때라 동화책을 읽으려고 발뒤꿈치를 들고 좌측통행으로 도서관 앞 긴 복도를 한 줄로 서서 소리 죽여 걷던 기억이 새롭다. 학교는 늘 새로운 것을 보여 주었고 좋은 환경을 접하게 했었다. 그러다가 우리 사회가 한층 잘 살게 되면서 가정이 교실보다 훨씬 좋은 환경을 갖추었고, 이제는 사설 학원의 근사한 인테리어와 첨단 기자재, 원색의 홍보물들이 학교의 구태의연함을 짓누르게 되었다.

질 낮은 종이에 늘 같은 판형의 교과서로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정서와 감각과 유행에 맞추어 캐릭터화한 다양한 학습 참고서를 보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내가 가르치

는 교과서도 저렸으면…….’ 하는 막연한 바람이 현실이 되어 질 좋은 종이에 선명한 사진과 아주 예쁜 디자인으로, 간혹 캐릭터까지 등장하여 학습의 흥미를 돋우는 교과서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 주었고 거의 폭발적인 인기와 만족감을 주고 있다.

‘어? 내가 수업하기에 딱이네!’

새 교과서는 내용의 구성이나 쓰임새도 요긴해서 “어? 내가 수업하기에 딱이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있다. 이런 만족감의 원인은 교사들의 수업 설계와 진행에 맞추어진 내용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풍부한 자료 제시로 교사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이 용이하게 만들어졌다. 교과서에서 제시한 학습 내용을 학습한 후에 학습 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학습지 형태의 형성 평가지들이 예시되거나, 때로는 직접 교과서를 이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가 교과서를 이용해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전에는 교과서를 깨끗하게 사용한 후 ‘교과서 물려 주기’를 하나의 미덕으로 여겼으나, 지금의 교과서는 교과서를 직접 학습지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교과서를 후배에게 물려 주기란 어려운 일이 되었지만, 그만큼 쓰임새 있는 교과서가 되었다는 것은 집필진에 현직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한 때문인 것 같다.

“어유! 진도 빼기 힘들겠다.”

수준별 교육과정이 도입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와 같은 과목의 교과 선생님들

은 축소된 수업 시수와 심화·보충 학습의 내용으로 더욱 풍부해진 교과서를 접하고 “어유! 진도 빼기 힘들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물론, 학습량을 줄여 밀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교과서에 심화 학습 자료와 보충 학습 자료 등을 풍부하게 제시하여 교사가 교육과정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에 맞추어 교육하도록 편성한 교과서의 본래의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막상 풍부한 학습 내용을 보면 그 어떤 선생님인들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인가 싶다.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훈련이 새 교과서를 통해 일선의 선생님들에게 부여된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더 많은 자료를 제시하면 어떨까? 엉거주춤하게 확대된 분량으로 재구성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듯하고, 모두 가르치기에는 양이 과한 듯한 수준을 확대해서 교과서에 필수 학습 요소와 관련된 참고 자료를 대폭 확대하여 제시하면 선생님들은 자신의 수업 설계에 맞추어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학교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 학생들에 대한 이해, 교사의 교육관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훨씬 다양한 내용을 스스로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유행에서 비껴 간 1970년대의 ‘완전 학습’ 관련 도서에서 받은 그런 인상은 아직도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많은 분량을 모두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취 수준에 맞추어 취사선택하여 학습하던 완전 학습 도서는 어릴 적 스스로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었다.

좋은 디자인

21 세기는 문자와 텍스트 중심의 시대에서 이미지 중심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문자나 텍스트는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완성된 문장의 형태를 지녀야 하고 서술된 긴 문장을 다 읽어야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지는 바라보는 그 순간 감각적으로 의미가 전해지는 특성이 있다. 좋은 디자인의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이미지에 대한 적용력을 높여 준다.

또한, 좋은 디자인의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통한 학습의 집중과 심미적 안목을 높여 정서 순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가 북 디자인의 영역에서 좋은 디자인의 기능을 갖추면 그 교과서를 통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우리 사회의 디자인적 가치 창출의 밑바탕이 튼튼해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디자인의 교과서는 교육 환경의 질을 높여 주는 효과가 있다. 좋은 디자인의 교과서를 통해 심미적인 만족 속에 안정된 마음으로 즐겁게 공부하는 교실은 훨씬 아름다운 정경일 것이다.

ICT 활용에 적합한 교과서

요즘의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이 좀더 폭넓은 심화 학습과 보충 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ICT 활용 수업에 적합한 인터넷 주소가 많이 안내되어 있다. 그런데 ICT 활용 수업을 준비하면서 웹서핑을 하다 보면 간혹 사소한 실수 탓에 ‘후유-’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다.

‘<http://www.download.com>’에서 무심코 ‘do-

wnroad’로 잘못 입력했더니 download 사이트가 아닌 음란 사이트가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http://www.lotte.com>’에서 ‘lotte’로 잘못 입력해도 나타나는 등 유사한 어휘 구성을 가진 도메인을 이용하여 비영어권의 네티즌이 작은 실수라도 할라치면, 이를 이용해 자신의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하는 나쁜 어른들의 발상으로 자칫 유해한 정보로 안내할 우려가 있다. 만일, 수업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해 볼 때 교과서에서 안내되는 도메인은 언제나 정확해야 한다.

통일 신라의 대표적인 문화 유산이며 우리나라 건축의 정수인 석굴암을 공부할 때, 석굴암의 신비를 이해하기 쉽도록 디렉터로 제작한 재미있는 콘텐츠가 삼성 전자의 홈페이지(http://samsungelectronics.com/corporateinfo/design/sokkuram/sokkuram_korean/get_shockwave.html)에 탑재되어 있어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했었다. 그래서 자신 있거나의 홈페이지에 링크를 시켜 놓고 학생들에게 추천 사이트 목록으로 안내해 놓았는데, 삼성 전자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이 유용한 콘텐츠를 삭제하여 클릭을 하면 삼성 전자의 홈페이지와 함께 서버에 탑재되어 있지 않다는 안내 문구가 나온다. 결국 학생들에게 석굴암을 공부시키려다 특정 회사의 배너 광고를 달아 준 꼴이 되고 말았다.

교과서를 이용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돕기 위한 인터넷 주소를 안내할 때에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내용인지 확인해야 하고, 또 그 사이트가 폐쇄되었거나 다른 성격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적절히 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과서는 한 번 검정을 통과하면 새로 교과서 검정을 받기 전까지 사용하게 되

므로 재판을 낼 때까지는 이런 부분을 꼭 점검해야 할 것이다. 아날로그 시대의 정보는 변화의 기간이 길었지만 디지털 시대의 정보는 수시로 바뀌고 있다.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교재이면서 교사나 학생, 학부모가 가장 신뢰하는 교과서에서 바뀐 정보나 그릇된 정보, 유해 정보들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서 등의 학습 자료가 매년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판매되는 것처럼, 교과서도 집필진과 출판사가 교과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정 증보판을 발행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된 교과서

선생님들이 교실 수업에서 학습 자료를 제작할 때에 교과서의 참고 도판이나 사진들을 스캔하느라 애를 많이 쓴다. 요즘같이 전자출판 시스템으로 책이 편집되는 시대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된 교과서를 만들어 제공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물론, 초등 영어 같은 일부 교과서는 CD-ROM 자료까지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고, 교과서를 출판한 회사별로 간혹 교사용 CD-ROM 타이틀을 제공하여 교과서의 관련 내용들을 지도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자 책의 기능이라기보다는 판촉용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를 출판사가 편집한 전자 출판 문서 상태를 그대로 PDF와 같은 전자 문서로 변환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전자 문서의 특성상 화면의 일부를 확대해도 글꼴의 원형이 보존될 수 있고 관련 사진만이 아니라 동영상까지도 링크될 수 있으므로 오프라인에서 출판

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원형 그대로 온라인상에 E-book으로 탑재하면 교사가 교수·학습을 위한 자료 제작시 교과서의 내용을 스캔하는 등 다시 가공하기 위한 수고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교과서 활용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러한 시도는 연주곡을 들려주는 음악 교과서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 등의 이유로 교과서의 전자 도서화 탑재가 어렵다면 교사용 지도서만이라도 E-book으로 탑재하면 좋을 것 같다.

또, E-book은 내용의 수정 증보에 인쇄 출판과 같은 막대한 비용 없이도 가능하므로 관심만 있다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미래의 교과서 형태는 E-book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지역화된 교과서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이 전국적인 상황일 수는 없다. 도시와 농촌의 여건이 다르고, 대도시와 중소 도시, 내륙 도시와 항구 도시가 다르다.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와 대도시의 과밀 학급의 교실 풍경과 수업 전개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포용할 수 있는 교과서는 어떨까? 마치 요즘 신문이 지역별로 다변화하여 지역판을 발행하는 것 같은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학습 내용은 통일성 있게 만들고 초등 학교 사회 교과서처럼 일부 특정 단위만 지역화하여 제작하면 어떨까?

사회 교과서에 대구 광역시를 소재로 한 지역 탐구 단원이 있다면 그 단위만 지역화해서 인천에 공급하는 교과서는 인천 광역시를 소재로 하고, 제주도에 공급하는 교과서는 제주도를 소재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를 통해 제시된 내용을 학습 활동으로 연계시키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지역마다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과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과서의 지역화는 결국 학습의 다양성과 개별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더욱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교과서 검토의 기준이라든가 출판사의 수익성 같은 것에 대한 정보가 무지한 물정 모르는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이왕이면 교과서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 오래도록 보아도 싫증나지 않는 미학적 결실이라는 황금비를 줄곧 유지하고 있는 교과서의 크기나 모양을 더욱 다양화하면 어떨까? 조금은 형태를 달리해서 복잡한 수식의 풀이가 길게 이루어진다면 직사각형으로 약간 긴 형태로 만들어 풀이 과정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화집(畵集)을 통해 감상이 이루어지는 미술 교과서의 그림들은 적은 지면에 많은 양을 제시하고자 하다 보니 도판의 크기가 너무 작은 경우가 많다. 미술 교과서를 훨씬 크게 만들어 큰 그림으로 원화의 느낌에 가깝게 인쇄해서 교과서를 만들면 작품을 감상할 때 미술품의 작가명, 작품명, 제작 기법과 같은 단순 지식만을 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통해 느끼는 감동까지도 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교과서

너무 많은 요구를 한 듯하다. 때로는 물정 모르는 이야기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속내 모르는 요구일 수 있으나, 내가 좋아하는 교과서의 기본은 교실이라는 교육의 터전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즐겁게 학습하는 도구로써 활발히 활용되는 교과서이다. 국가 수준에서 교육해야 할 명시적인 최소한의 학습 내용뿐만 아니라, 훨씬 다양한 사고와 창의적인 발상들을 끄집어 낼 수 있는 도구로써,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도구로써 교과서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의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만족을 전해 주는 교과서의 첫걸음을 내디뎠기에 애써 욕심을 더해 본다면 말이다. 

어떤 교과서?

글 / 김경현 (경남과학고등학교 2학년)

어릴 적의 교과서는 표지만 두꺼우면 그 만이었다. 딱지 접는데 다 배운 교과서 표지 만한 게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책들의 두꺼운 표지가 더 많은 딱지를 위해 희생되어 갔지만 교과서 표지를 따라갈 만한 종이도 없었던 것 같다. 모자라면 보던 책도 뜯어서 썼다고는 차마 말을 못 하겠지만 철 없던 그 때 교과서는 좋은 놀잇감이었다. 중학교 때까지 나의 교과서에 대한 애정은 계속되었다. 국어, 도덕 등 판본체로 쓰여진 많은 교과서 제목들이 북어, 모범 등 희희낙락한 이름으로 변형되어 갔다.

어쨌든 고등 학교 2학년, 현재까지 11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목적으로 많은 교과서가 내 손을 거쳐갔고, 또 우리 학년은 계속 바뀌는 교과서를 마지막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새 교육과정으로 바뀌는 다른 교과서도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고등 학교에서도 우리 학년이 6차 교육과정의 마지막 학생들이었고, 우리 아래 학년부터 7차 교육과정으로 공부한다.). 그렇게 많은 교과서들로 공부해 오고, 또 읽어 보면서 좋은 교과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평소에 그렇게 깊이 생각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 교과서에 대해 가졌던 자그마한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이제껏 주어지는 교과서로 그저 그렇게 공부해 왔지만, 지금 우리 학생들이 어떤 교과서를 바라는가에 대해 짧게나마 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한다. 다만, 우리는 여태껏 이전 6차 교육과정 교과서로 공부해 왔기 때문에—지금 1학년의 7차 교과서도 한 번 읽어 보긴 했지만—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옛날 교과서만에 대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초등 학교 때에는 새 교과서를 받으면 마냥 신이 나서 괜히 하나하나 읽어 보고는 했다. 국어 읽기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들도 재미있게 읽었고, 새로 나오는 수학(산수) 교과서도 궁금했다. 이것저것 만들기를 좋아해 실과 교과서나 미술 교과서도 재미있게 보았다. 그렇게 어느 정도 교과서에 관심이 가고, 읽기에 편한 과목들은 쉽게 공부할 수 있었다. 교과서는 먼저 읽기에 편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읽기에 편리하다는 것은 내용은 물론, 종이 질이라든지 컬러, 인쇄 등 책 자

체의 품질면까지 두 가지에서의 의미이다.

우선, 인쇄물로서 교과서의 품질에 대해서이다. 시중의 일반 책에 비해서 교과서의 가독성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다. 수많은 디지털 매체가 넘쳐나는 지금의 시대에 아직도 교과서는 미술 교과서와 같은 몇몇 교과목을 제외하면 거의 흑백에다 누르스름한 종이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 다만, 지금 1학년이 사용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바뀐 교과서들은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뒤에 다시 이야기할 내용면에서도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단순히 종이의 질이나 가독성 면에서도 우리 학년이 사용하던 교과서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다. 하지만, 미술 교과서에서 쓰이는 용지와 같은 지나치게 반짝거리는 종이의 남용은 문제가 있다. 미술 교과서야 미술 작품들이 교과서에 들어가니 인쇄 품질을 위해 그렇고 또 얇으니 별 문제 없다고 치더라도 일반적인 과목들에까지 코팅 종이가 사용되어 괜히 책만 무겁게 하고 또 책에 글씨를 쓰기도 힘들게 한다(연필이나 샤프펜으로는 잘 써여지지 않고, 펜으로 쓰면 마르기 전에 번진다.). 물론, 책의 재활용을 힘들게 하고 전국적으로 교과서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자원 낭비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간단히 말한 책의 외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내용이 더욱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당연히 교과서는 쉽게 읽혀져야 한다. 예로 사회과 교과서를 들겠다. 우리가 보아 오던 사회과 교과서—사회, 지리, 도덕, 국사 등—는 단순한 건조체의 설명문 형식이다. 정말이지 상당히 읽기 피곤한 형태이다. 새 교과서를 받아 와서 사회책을 펴 들었던 적은 전혀 없었던 것 같다. 중학

교, 고등 학교 수업 시간에도 그다지 흥미롭게 읽히지 않았고, 시험을 칠 때가 되어서야 마지못해 펴 들었다. 아니, 시험 기간에도 그냥 문제집을 훑지 교과서는 잘 읽혀지지 않았다.

‘사회는 내가 싫어하는 과목이야.’

원래 사회 과목을 싫어했는지도 모르지만, 내가 사회 과목을 싫어하게 된 데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사회 교과서의 글도 한몫을 한 것 같다. 생각해 보면 사회 과목들—그러니까 인문 과목들—자체를 그저 싫어했던 것은 아니었다. 가끔씩 수행 평가의 명목으로 떨어지는 조사 과제들은 나름대로 흥미롭게 할 수 있었다. 그저 주어진 지식이 단순히 그것도 재미없게 기술되어 있을 뿐인 교과서보다는 좀더 활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과서가 필요했다.

그리고 보면 교과서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고, 그 습득한 지식을 단련하는 데 주목적 이 있는 듯하다. 수학 교과서는 단순히 공식이 나온 후 계속적인 공식의 적용으로 그냥 문제를 풀어 나가고, 과학 역시 수학보다는 읽어야 할 것들이 풀어야 할 것보다는 많은 것이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수능 타기기는 하지만 국어 시간에는 고조선 이래로 역사 속의 수많은 문학 작품을 이해나 암기(?)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고등 학교 중에 국어 시간에 말하기나 쓰기 수업을 하는 학교는 없을 것 같다. 물론, 이것이 굳이 교과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교과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탓도 크다. 이 때문에 꼭 필요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쓰는 데에 대한 연습이 많이 부족해져 있다. 실제로 나도 정말 오랜만에 이런 글을 써 보는 것 같다.

매년 교과서를 새로 내는 것은 힘들겠지만,
 몇 년에 한 번씩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바꾸어 내는 것보다는
 매년 조금씩이라도 고쳐 나가 주었으면 한다. 몇 차 교육과정 하는 식으로
 한꺼번에 교과서가 바뀌어 버리는 것도 문제다.

여기서 또 하나 교과서에 바라는 점을 말하자면, 우리에게 공부해 나갈 길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다. 너무 두루뭉실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물고기를 잡아 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다. 단편적인 지식의 나열이 아닌, 우리가 좀더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왜 이런 것이 필요한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가’, ‘이걸 대체 어디에다 써먹는가’ 하는 것 없이, 그냥 답안지를 외워가고 있는 공부를 하는 것 같다. 실제로 고등 학교 때까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식은 얼마 되지 않는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리고 대학에서 좀더 심화된 공부를 하기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것을 빠른 점수 향상을 위해 단순히 우겨놓는다고 해서 남는 것은 없다.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한, 또는 자신이 스스로 문제—단순한 시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를 연구해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연습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를 어느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적혀 있다. 교:과-서(教科書). 배우는 과정에 관한 책이다. 교과서는 학생이 지식을 얻는 ‘과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수학 교과서라면 왜 이런 이론, 공식이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과학 교과서에서는 간단한 실험을 우선으로 하여 결과

로 이끌어 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옆에서 도와 주기만 하여 수학, 과학을 처음부터 만들어 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 과정에 대해 언급은 필요하다.


내가 교과서를 보고 가장 경악했을 때가 있다. 아마도 중학교 3학년 때였을 것이다. 기술 교과서에 컴퓨터 사용에 관한 내용이 나왔었다. 그 부분을 수업 시간에 배우지는 않았지만 주로 전산 관련 공부를 죽 해 온 터라 한 번 읽어 봤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나는 경악했다. 으레 교과서에서 따지기 좋아하게 마련인 반쯤을 차지하고 있는 에니악부터 줄줄이 나오는 컴퓨터 역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은 GW-BASIC에 대해 설명되고 있었다. GW-BASIC이 프로그래밍 기초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 왔기는 했어도 그건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이야기였고, 내가 컴퓨터를 배울 때만 해도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그것은 MS-DOS 3.0에 포함되어 있는 언어이다. 지금은 아마 구하려 해도 찾기 힘들 것이다. 너무 오래 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교과서는 조금 더 빨리 변화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와 같은 경우는 그 변화가 극단적으로 빠른 경우이기는 하지만,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이 경악하고 실소를 자아낼 정도라면 그다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을 것이다. 다른 과목도 그다지 다를 것은 없다. 이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학년이 계속

바뀌기 직전의 교과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 많이 느껴 왔다. 몇 년마다 교과서가 바뀌기는 하지만 바뀌기 직전쯤에는 정말 우스운 내용이 조금 생기는 건 사실이다. 물론, 매년 교과서를 새로 내는 것은 힘들겠지만, 몇 년에 한 번씩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바꾸어 내는 것보다는 매년 조금씩이라도 고쳐 나가 주었으면 한다. 몇 차 교육과정 하는 식으로 한꺼번에 교과서가 바뀌어 버리는 것도 문제다. 비용 문제도 그러려니와 바뀌기 직전 학년은 괜히 억울하고(몇 년 전 내용으로 공부하게 된다.), 한꺼번에 교과서가 바뀌어 교육과정에 대한 혼란도 초래하게 된다는 생각이다.

내용면에 추가해서, 앞에서 말한 교과서의 재질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아직 얇고 누런 종이에 흑백 인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온갖 매체가 난무하고, 교실에는 각종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프로젝션 TV, 비디오, 컴퓨터, 혹은 전자 칠판까지—도 구성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재는 종이 책에만 국한되어 있다. 교실마다 잘 마련해 놓은 하드웨어가 활용할 수 있는 전자 교재의 부족으로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몇몇 선생님께서 직접 제작하시거나 아니면 구매하신 자료가 한정적으로 조금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종이 책에서 벗어나 교실의 여러 정보 기기들, 특히 컴퓨터를 활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학생들이 다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좀더 확대된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사이버 대학에서의 학점 취득, 온라인을 통한 기업 교육, 어학·컴퓨터 교육 등은 e러닝 시스템—LMS, LCMS— 등의 시스템을 통해 서서히 구축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우리 초·중·고등 학교 교육에서는 멀기만 하다. 물론, 앞으로 어느

정도는 계속 사용될 종이 책의 재질도 좀더 나아졌으면 한다(우리 아래 학년이 쓰는 7차 교육과정 교재는 거의 컬러 인쇄로 바뀐 것 같았다.).

재질 같은 단순한 사항에서부터 교과서가 담겨 있는 매체, 교과서가 추구하는 바까지 학생들의 공부를 최대한 도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한다. 그리고 조금 덧붙이자면, 학교나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대한 선택권을 조금 더 넓혀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혹은 교과서를 사용한 후, 평가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냥 쓰던 교과서니까, 매년 써 왔으니까 하는 식으로 선택되어지다 보니 교육과정이 바뀔 때가 아니면 교과서는 경쟁이 없어 그다지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교과서를 실제 사용하는 것은 선생님들과 우리들이다. 앞으로는 조금 더 나은 교과서로 좀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한다. 

중학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개발 및 적용

■ 글 / 김윤갑 (울산 동평중학교 교사)

1. 들어가며

중학교에 제 7 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지 2 년째가 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주어진 교육과정’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즉,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주체 의식을 자각하도록 하여, 이것들을 바탕으로 지역·학교 실정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교사들의 참여를 높여서 전국적 보편성과 지역·학교 수준의 특수성을 지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였다.

여기에서는 본교에서 편성·운영한 방법의 사례 몇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2.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 교육과정이라면 학교 교육 활동 전체를 의미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한 절차와 기간 활동 중심의 활동을 지칭하기로 한다. 편성·운영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준비, 편성, 운영, 평가 단계의 과정을 거쳤으나 단계의 구분 없이 살펴보도록 한다.

가.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조직·운영

제 7 차 교육과정 적용 첫해인 2001학년도에는 교육과정 위원회에 가급적 많은 교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참여 자체에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많은 교사의 참여는 책임감 및 관심 부족으로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협의회 운영을 어렵게 하는 등 교육과정 위원회 활동의 문제점의 하나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2002학년도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원칙과 절차의 비민주성이란 비판을 각오하고 교육과정 위원회를 소수 정예화(팀장 1, 기획 1, 5 개 분과) 함으로써 위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

키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위원의 소수 정예화에 따른 대다수 교사의 참여 문제는 교육과정 전담 부서 컴퓨터를 전체 교사에게 공유시켜서 교육과정 시안을 열람한 후에 개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별 교육과정 스터디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나. 학교 교육과정 시안 검토·심의

교육과정 시안의 검토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전체 교사들의 참여’라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위원회 활동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였다.

첫째, 교육과정 시안 작성 단계에서는 교육과정 전담 부서의 컴퓨터를 공유시켜서 전체 교직원이 열람하게 한 후에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다음은 교육과정 위원회와 각 업무 부장 협의회를 통하여 교육과정 내용을 검토한 후에 수정, 보완하였다. 세 번째는 학교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사안별로 한정함으로써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즉, 학교 운영 위원회는 교육과정 위원회의 전문성을 존중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명시하지 않은 구체적 운영 방법(예: 예산, 교사·학생 권익 보호 등)에 대하여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보다 비중을 두고 심의하였다.

다. 학교 교육과정 기간 활동

기간 활동(기간 활동이란,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시켜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바탕이 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주체로서의 활동을 지칭하기로 한다.)은 교육과정 스터디 운영, 교육과정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 자율 공개 수업 권장·지원, 직원 연수의 체계적 운영, 기존 자료 활용 방안, 교과 관련 행사 활동의 행사 주관 교과 수업 시수 산정 방법 모색 등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교수·학습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활동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활동 영역별 구체적 내용은 생략한다.

3.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는 기본 과정의 철저한 학습을 통하여 기초·기본 학력을 정착시키고 학습의 수월성 확보와 학습 부진의 누적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가. 수준별 교육과정

교과별로 기본 과정의 학습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단원 및 단위 시간의 수업 모형을 정립하고, 적용 효과를 월별로 분석하여 학생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수업 방법의 개선에 노력하였다. 또, 결과 중심 평가와 과정 중심 평가의 방법을 다양화하여 학생 평가가 총괄 평가뿐만 아니라 학습 의욕을 자극하는 기능으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어과는 국어와 생활 국어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학교 행사에 따라 지도 순서를 재구성하여 교수·학습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였다. 학습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게 하는 사회과 학습, 7종 교과서의 분석을 통한 공통 및 필수 실험 시간을 운영하는 과학과 학습 등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고 실현하였다.

수학과는 기본 과정의 반복 학습을 강화하는 운영, 영어과는 학습 집단의 융통성 있는 조직과 운영을 통하여 의사 소통 능력 신장과 기본 학력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진급 기준의 다양화

진급 기준은 진급과 미진급을 구분하는 규정보다는 자극을 통하여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초·기본 학력을 정착시키는 등 진급을 도와 주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교에서는 진급 기준을 다양화하여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기준으로서의 실질적 적용이 가능하였고, 특별 보충 과정에 대한 교사·학생의 관심이 증대됨으로써 특별 보충 과정에 대한 참여율이 증가하였다. 수학과와 진급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성취 기준에 도달한 자
- ② 특별 보충 과정에 60% 이상 출석한 자
- ③ 기초 학력 부진 학생으로 기초 학력 부진 과정을 이수한 자
- ④ 운동부로서 별도 과제를 해결한 자
- ⑤ 특별 보충 과정 불참자로서 별도 과제를 해결한 자

다. 특별 보충 과정

특별 보충 과정은 학기당 중간 고사를 시점으로 전·후반부로 나누어 각 10 시간 내외로 지도하였다. 지도 교재는 담당 교사가 직접 제작하거나 기존 자료를 재구성하여 활용하였으나, 각 단계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수학은 7-가 단계와 8-가 단계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8-가 단계의 전반부에 7-가 단계의 필수 학습 요소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영어는 7-b 단계와 8-a 단계가 보다 강한 연계성이 있으므로 7-b 단계의 후반부와 8-a 단계의 전반부에 7-b 단계의 필수 학습 요소를 포함시켜 지도하고 있다.

4.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량 활동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가. 선택 과목

선택 과목은 1학년에서는 한문 한 과목만 개설하고 2학년 진급시에 3개 과목(일본어, 컴

퓨터, 한문)을 개설하여 택일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과목의 선택 전에 과목 담당 교사와 진로 인성부에서 과목 선택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였다. 이 사전 지도는 과목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사전 지도 후에 선택한 과목은 재선택의 요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운영 방법은 과목의 적절한 선택을 돕고, 선택 과목 개설에 따른 교육적 유도가 가능하며, 과목 선택에 대한 수요의 가변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 창의적 재량 활동

창의적 재량 활동은 교사 주도 주제 학습(교사 주도 주제 학습이란, 학습 과제의 해결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지만, 학습과제의 제시와 수업의 시종은 교사가 이끌어 가는 교수·학습 방법을 지칭하기로 한다.)과 학생 주도 탐구 학습을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교사 주도 주제 학습은 인성, 성, 정보, 경제, 환경, 진로 교육 등 6개 영역을 1년에 4개 영역씩(1영역 6~8시간, 총 30시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학습 방법은 다음 차시에 해결해야 할 학습 문제를 미리 제시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백과 사전, 신문, 잡지, 인터넷 자료 등) 수집 활동을 과제로 제시하여 학습 부담을 줄였다. 본시 학습 활동은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토론, 학습지 해결, 탐구 활동 등을 개별, 협력, 체험 학습 방법으로 격주 목요일 5, 6교시에 운영하였다.

학생 주도 탐구 학습은 교사 주도 주제 학습의 영역 중에서 깊이와 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1개의 주제를 선택하여 탐구 활동을 전개하는 학습 방법, 즉 교사 주도 주제 학습의 심화를 위한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그리고 학생 주도 탐구 학습에 별도의 4시간을 배당하여 담임 교사와 함께 탐구 학습 활동을 위한 준비, 지도, 발표 시간으로 운영하였다.

5. 특별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특별 활동은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면서 영역별 운영 시수를 최소화함으로써 법정 시수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여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가. 자치·적응 활동

자치 활동은 운영 시간을 연 15시간으로 하고 다양한 주제 선정, 자치 활동 개인 기록부 기록 등을 통하여 자치 활동에 대한 관심 제고와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응 활동은 인성 모듬 일기 쓰기, 학급 발자취 모으기, 반기·반기 대회 등을 통하여 실천적 인성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자치, 적응 활동은 창의적 재량 활동의 인성 교육 및 학교의 중점 과제 활동과 연계하여 학급 행사나 학생 활동이 창의적 재량 활동의 토론 주제나 과제 활동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계발 활동

계발 활동은 교사·학생의 요구 조사와 학부모 강사 가능 부서 조사를 통하여 외부 강사 초빙(12명) 부서 포함 50개 부서를 조직하여, 매 3주째 토요일 전일제로 운영하였다. 외부 강사 초빙 확대는 부서 조직을 다양화하면서도 지도의 전문성을 증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특별 활동 기준 시수가 달성된다면 기후 조건 및 교육적 필요에 따라 2학기 중반 이후부터는 계발 활동을 생략하고 교과 중심의 심화·보충 학습을 고려하고 있다.

다. 봉사 활동

봉사 활동은 교육과정 배당 시간(2시간)과 교육과정에는 배당되지 않지만 학생 생활 기록부에 산정되는 시간(18시간)으로 나누어 학교 주관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의 봉사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도도 높여 주었다.

라. 행사 활동

행사 활동은 교과 관련 행사 활동과 필수적 행사 활동으로 구분하고 필수적 행사 활동만 특별 활동 시수에 산정하였다. 교과 관련 행사 활동은 주당 수업 시수가 3시간 이하인 교과에서 다른 교과 시간을 배정받는 행사(유형 i), 주당 수업 시수가 3시간을 초과하는 교과에서 해당 교과 시간 내에 실시하는 행사(유형 ii), 범교과적 행사(유형 iii)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실시하였다. 유형 i은 교육과정 기준의 분석,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등 사전 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되었을 경우에 행사 주관 교과의 수업 시수에 산정하도록 하여 교과 수업 시수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형 ii의 경우에도 교육적 필요와 가치를 고려한 교과 협의회의 건의가 있으면 별도의 시간을 배정하여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관계로 실시 과정에서 관련 교육과정의 분석을 통한 근거의 제시와 철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6. 맺으며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교사들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주체임을 자각할 때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담당 교사가 교사·학부모의 참여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확고한 신념으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장은 해당 학교 교육 모듬체의 교육관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²⁴⁾

‘편수관’이라는 이름

■ 글 / 김만곤(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 과장)

‘편수관’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1. 우리 과의 이름은 ‘학교정책실’ 산하의 ‘교육과정정책과’이고¹⁾, 교육과정의 개선 및 교과용 도서 편찬 업무를 맡아 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 발행 업무는 ‘평가관리과’라는 곳에서 맡아 하고 있다. 우리 과에는 교육연구사와 교육연구관, 장학관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를 보고 ‘편수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실은 우리끼리도 교과서 업무를 이야기할 때는 ‘국어 편수관’ 혹은 ‘박 편수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부르고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아무래도 궁색하여 현장 교원 중 누구에게인가 그것은 ‘애칭’이라고 합리화하여 설명한 적도 있다.

2.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끼리 ‘편수관’이라고 부르고 불리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나는 나름대로 그렇게 부르는 이유에 의미를 붙이고 있다. 즉, 이 교육과정정책과의 전신은 ‘편수국’이었고, 편수국 시절에는 예를 들어 교육과정담당관, 인문과학편수관, 사회과

학편수관, 자연과학편수관이 있었으며, 각 편수관 밑에는 각 교과목별 편수담당자(‘편수관’이 아니므로 공식적으로는 “○○과 편수담당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진짜 편수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를 그냥 ‘편수관’이라고도 불렀다.)가 있었으며, 이들은 대체로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성을 지니고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별도의 연수를 받지 않아도 그 교과목의 편수에 관한 한 독자적인 전문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다가 그 편수국이 ‘학교정책실’에 흡수된 이후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오래 근무하려는 사람도 매우 적어졌고, 결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교육부 근무를 이용하여 교감·교장 자격을 빨리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평까지 받게 되었다²⁾.

따라서, ‘교육과정이란 이런 것이고 편수 업무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연수를 할 겨를도 없이 금방 교육부에 들어온 것 같은데 바로 교육부를 떠나는 사람도 있게 되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편수관’이란 이름은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까닭은 “누가 뭐라 하여도 편수

관은 모름지기…….”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새로 전입해 온 사람이라도 긍지와 책임감 같은 걸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의식에 따라 스스로라도 이것저것 찾아 연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끼리라도 ‘편수관’이라고 부르고 불리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이유이다.

3. 우리 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외에 직급에 관계 없이 ‘편수관’이란 이름으로도 불리고, 그 외에 또다른 이름으로도 불린다. 말하자면 ‘○○○ 선생님’이 그것인데, 이 이름은 당연히 학교에서도 불리던 이름이다. 우리 과에서는 흔히 교육연구사를 그렇게 부른다. 그러나 ‘선생님’이란 호칭은 텔레비전 대담 방송 같은 것을 보면 사회자가 별다른 호칭이 없을 경우 그냥 “아저씨” 하고 부르기도 뭇한 남자를 보고 별 망설임 없이 “선생님, 선생님.” 하니 별로 마땅한 호칭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선생님’이란 호칭이 결코 가볍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의 경우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교육연구사들은 그 외에도 ‘김 박사’, ‘이 박사’라고도 불리는데 ‘김 박사’, ‘이 박사’는 외부에서 온 손님이 대학 교수 같은 전문가일 때, 우리 인력도 이만 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을 경우가 많으며 그럴 때 이용하는 이름이기도 하다.

4. 교육연구사들은 흔히 ‘장학사’라고도 불린다. 장학사는 교육 행정 기관(대개 각 시·도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이며, 교육부에는 장학사가 한 명도 근무하지 않는데도 굳이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교육연구사를 ‘높여서’ 부르고

싶을 때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왜냐 하면, 각 시·도 교육청에는 장학사가 근무하고 교육과학 연구원 등에는 교육연구사가 근무하는데, 학교의 선생님들이 대체로 교육연구사보다는 장학사를 더 치고 있으며(그래서 요즘도 전문직들이 대체로 교육연구사보다는 장학사 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전문직이 공연한 권한을 앞세워 학교 선생님들 앞에서 군림하던 시절에는 당연히 교육연구사보다는 장학사의 권위가 외형적으로 더 높아 보였었고,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 교육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사를 보고도 “장학사, 장학사.” 하는데 이 이름도 그리 합리적이지나 뽕뽕한 것은 아니다.

5. 나는 용기가 부족하여 우리 부에서 나보다 직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을 보고는 말도 못 하고, 동료들한테는 “교육연구사를 보고 제발 장학사라고 부르지 말자. 그것은 연구사를 낮추는 것과 같지 않느냐?”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직위 높은 분, 우리를 고깝게 생각하는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기도 한다.

6. 이래저래 나는, 우리 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편수관’으로 불러 주고 싶지 않다면, 직급 그대로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장학관’으로 부르든지, 그것도 아니면 차라리 ‘선생님’으로 불러 달라고 하고 싶다.

‘編修官’이란 이름의 유래를 알 수 있는 編修局의 변화

1. ‘편수국’의 유래와 변화를 이야기하려면

“편수에 장기간 근무하는 사람들은 늘 저런 소리를 한다.”는 비판을 들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한 번도 직접적으로 들은 적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공연히 눈치가 보인다.

행정자치부에서 1998년에 낸 ‘정부 조직 변화사’라는 자료를 보면, 문교부는 우리 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고 정부를 수립한 직후인 1948년 11월 4일에 1 실, 5 국, 22 과로 신설되었고, 編修局(①)은 이 때 編修課, 翻譯課, 發行課의 3개 과로 설치되었으며, 실장 및 각 국장은 이사관, 기감 또는 編修官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 기정 또는 장학관으로 補한다고 되어 있다. 편수관은 이러한 위상과 기능을 가졌었다.

참고로 이 시기의 교육과정의 변천 사항을 살펴보면, 1945~1946년은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 기간이었고, 1946년 9월 1일에는 국민 학교와 중학교(초급, 고급) 교수 요목을 시달하여 제 1차 교육과정이 시행될 때까지 적용되었다.

2. 편수국은 그 후 여러 차례의 폐지와 신설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고 폐지되었을 때는 대체로 오늘날의 학교정책실(장학실)에 소속되면서 그 형태 또한 다양하게 변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3. 1950년 3월 30일에는 편수국의 번역과가 폐지되어 編修課, 發行課의 2개 과만 남았으며, 공무원의 종류를 이사관, 기감, 編修官, 장학관, 서기관, 기정, 비서관, 통역관, 사무관, 기좌(技佐), 副編修官, 체육관, 주사, 기사, 비서, 통역사, 서기, 기원으로 하였다.

이어 1955년 2월 17일에는 장관, 차관 외에

이사관 5, 編修官 6, 장학관 4, 서기관 15, 기정 1, 비서관 1, 통역관 1, 사무관 17, 기좌 1, 副編修官 2, 체육관 1, 주사 24, 기사 2, 비서 1, 서기 1, 계 82 명의 공무원을 두었고, 編修局의 편수과와 발행과를 編纂課와 出版課로 개편하였다.

1958년 10월 29일에는 문교부의 총 정원이 77 명이었는데 編修官은 2級 4, 3甲 2명이었다. 편수관이 장학관, 서기관보다 높은 위상을 가지고 별도의 직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의 직급으로 근무하는 오늘날보다 매우 이상적이었다고 하면 감상적인 표현일까.

참고로 이 시기의 교육과정의 변천 사항을 보면, 1954년 4월 20일에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사범 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이어 1955년 8월 1일에는 국민 학교와 중학교, 고등 학교 ‘교과 과정’을 제정 공포하였다.

4. 1961년 10월 2일에는 문교부가 4 국, 14 과로 되었고, 학무국에 장학관, 編修官(부편수관)을 두었으며, 1963년 12월 16일에는 기획관리실, 장학실이 신설되고 학무국, 학교관리국, 체육국, 문예국을 보통교육국, 고등교육국, 편수국, 문예체육국으로 개편하였다.

또, 1968년 7월 24일에는 문교부의 직무 중 출판, 저작권, 문화, 예술의 기능을 삭제하고, 국정 교과서 편찬과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발행과의 ‘저작권’ 기능을 삭제하였다. 이어 1969년 7월 22일에는 編修職의 업무 내용이 교과서의 편수 업무와 교육과정의 연구 등 교육 연구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서 編修局長 밑에 있는 ‘교과별 編修官, 副編修官, 編修官補’를 교과별 ‘編

修官' 또는 教育研究官'으로 바꾸었다. 이에 대하여 교과서의 편수, 교육과정 연구 및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編修職을 教育研究職으로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편으로는 편수직의 위상이나 기능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의 변천 사항을 살펴보면, 1963년 2월 15일에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 공포하였고, 1969년 9월 4일에는 국민 교육 현장 이념 구현을 위한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다.

5. 1969년 7월 22일에는 정원 조정이 이루어져 교육전문직 26명(장학관 21, 장학사 4, 교육연구사 1)이 증원되었으나 다시 1970년 1월 26일에는 정원 중 30 인을 감축하면서 編修局에 교과별로 編修官(2乙) 또는 教育研究官 20 인을 두게 되고 그 대신 編修官 2, 副編修官 10, 編修官補 9 명이 감축되었다.

이어 1973년 3월 28일에는 編修局長의 직급을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에서 獎學官으로 바꾸었고, 1976년 12월 31일에는 교과서 편찬요원 14인(教育研究官 4, 教育研究士 10)을 증원하였다. 이는 중화학 공업 교육을 위한 공업계 고등학교 교과서 편찬 요원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 때는 또 장학관으로 보하던 編修局長을 理事官, 副理事官 또는 獎學官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8년 3월 14일에는 처음으로 편수국을 폐지(②)하고 장학실에 과학교육담당관, 教科書行政擔當官을 신설하였다(장학실 전면 개편: 4 담당관 → 6 담당관 - 교육연구담당관,

새마을교육담당관, 인문교육담당관, 사회과교육담당관, 과학교육담당관, 교과서행정담당관). 이 변화에 의해, 편수국은 이후 편수국이 신설될 때까지 없어진 것이었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의 변천 사항을 보면, 1973년 2월 14일에 국민 학교 교육과정을 개정 공포하였고 고등학교에 일본어 과목을 신설하였으며, 그 해 8월 31일에는 고등학교의 국사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1974년 12월 31일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 공포하였고, 1977년 2월 28일에는 고등학교 정치 경제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되었다. 또 1979년 3월 1일에는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하였다.

6. 1980년 2월 27일에는 문교부가 2 실, 8 국, 30 과, 19 담당관(총 519 명) 체제를 갖추었는데, 이 때 編修局(③)이 다시 신설되어 2 개과(편수과, 발행과), 4 담당관(교육과정담당관, 인문교육담당관, 사회교육담당관, 과학교육담당관)을 두었다. 기록에는 장학실에서 통합 운영하던 장학 지도 기능과 교과서 편찬, 발행 기능을 분리하여 장학 지도 기능은 6 개 장학관을 두어 장학실에서 관장하고, 교과서 편찬, 발행 기능은 신설된 편수국으로 이관함으로써 장학 지도 기능을 강화하고 교과서 편찬 및 발행 기능을 보강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2년도 채 되지 않은 1981년 11월 2일에는 문교부가 3 실, 6 국, 26 과, 19 담당관(총 531명) 체제로 변하면서 장학실과 편수국을 통합하여 獎學編修室(④)로 개편되고 그 밑에 9 개 담당관을 두게 되었는데, 장학편수실장 밑에 編修總括官, 教育課程擔當官, 人文科學編修官, 社會科學編修官 및 自然科學

編修官을 두어 편수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교육연구장학관, 정신교육장학관, 교과지도장학관 및 생활지도장학관을 두어 장학 기능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어 1982년 3월 20일에는 編修總括官을 編修管理官으로 개칭하였고, 1990년 1월 3일에는 ‘국어 및 한글에 관한 연구 기관의 지도·감독’ 업무를 신설된 문화부로 이관하였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의 변천 사항을 살펴보면, 1981년 12월 31일에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교육과정이 개정 고시되었고(한국 교육 개발원에 시안 개발 위탁), 1985년 1월 17일에는 고등 학교 교련 과목의 국민 정신 교육 강화 및 군사 기능 내용의 통합 축소, 특별 활동에서의 학도 호국단 활동을 학생회 활동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 1987년 3월 31일에는 중학교 교육과정, 6월 30일에는 초등 학교, 1988년 3월 31일에는 고등 학교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하였는데, 이를 흔히 제 5 차 교육과정이라고 한다(역시 한국 교육 개발원에 시안 개발 위탁).

이어 1992년 6월 30일에는 중학교, 9월 30일에는 초등 학교, 10월 30일에는 고등 학교 교육과정이 개정 고시되었는데 이를 흔히 제 6 차 교육과정이라 하며 이 교육과정은 교육 부에서 직접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한 교육과정으로 유명하다. 당시의 편수관리관은 함수근 현 한국 교원 대학교 교수였고, 교육과정 개정 위원회 위원장은 동국 대학교 한명희 교수였다. 이 교육과정 중·초등 학교 교육과정은 영어 교과 신설을 위해 1995년 11월 1일에 부분 개정되었다. 이처럼 제 4, 5 차 교육과정 개정이 장학편수실 체제에서 힘겹게 이루어졌던 데 비해 제 6 차 교육과정 개정으로 편수에 힘이 실렸는지 편수

국은 곧 되살아나게 되었다.

7. 즉, 1994년 5월 16일 문교부는 3 실, 4 국, 23 과, 25 담당관(총 506 명) 체제를 갖게 되었고, 이 때 각급 학교의 장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학편수실을 장학실과 編修局(⑤)으로 분리 개편하였고, 編修局에는 역시 教育課程擔當官, 人文科學編修官, 社會科學編修官 및 自然科學編修官을 두었다.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되어 왔지만 편수관은 사실상 3 명이었고, 다른 편수 요원들은 장학·연구직렬로서 근무한 것이다.

8. 그러나 1996년 7월 5일(제 36 대 安秉永 장관 재임 시기) 편수국은 다시 폐지되어(⑥) 초·중등교육실(1998년 2월 28일에 학교 정책실로 바뀌었음.) 속에 초등장학관, 중등 장학관, 교원정책심의관, 教育課程審議官, 교원정책담당관, 교원양성담당관, 교원복지담당관, 教育課程擔當官, 교육평가담당관, 編修管理擔當官, 유아교육담당관, 특수교육담당관이 신설되어 실제로는 교육과정심의관 아래에서 교육과정담당관과 편수관리담당관이 종래의 편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96년 7월 5일은 그러므로 編修官 제도가 사실상 종말을 맞이한 날이었다(마지막 편수 국장 : ○○○). 이러한 변화는 1995년 5월 31일 당시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 개혁 위원회에서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신 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의 하나로 ‘인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제안하고, 1996년 2월 9일에 새 교육과정의 기본 골격을 제시함으로써 교육부에서는 그 해 3월 19일 교육과정 개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한국 교육 개발원에 위탁하여 제

7차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을 진행 중에 일어난 일이었다.

9. 1996년 7월 5일의 체제는 이후 오늘날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으나 1999년 5월 24일에는 ‘인력과 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학교정책실의 ‘학교정책심의관’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교육과정정책심의관’에게 이관하였으나, 이후 교육과정정책심의관 폐지(2000년 9월 1일), 교육과정담당관실 폐지 및 교육과정정책과 신설, 편수관리담당관 업무의 평가관리과 흡수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2001년 1월 29일에는 ‘국가 핵심 역량인 인적 자원 개발 정책 분야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할 부총리가 신설되고, 교육부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되면서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의 변천 사항을 살펴보면, 1997년 12월 12일에 공업계 고등 학교 2·1 체제 교육과정이 고시되었고, 1997년 12월 30일에는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는데 이 교육과정은 적용 단계에서 교직 단체의 극심한 비판에 부딪혀 우리 ‘교육과정정책과가 고군분투한 교육과정’³⁾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10. 교육과정 개선, 편수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려면 ‘편수관제’ 혹은 ‘편수국’이 부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교육 정책 기능의 효율화, ‘작은 정부’의 구현 등 고려되어야 하는 조건들에 비추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까. 답답할 때는 마지막 편수국장을 지낸 분을 만나 한 번 그 견해를 들어 보고 싶기도 하다.

‘편수관’의 機能과 所信과 責任과 權限과……

1. 다음은 신문이나 잡지, 소설, 광고에서 교과서를 빗대어 표현한 부분을 찾아본 것이다. 얼마든지 있지만 몇 개만 나열해 보았다.

- 맥킨지 보고서 베스트 셀러 종합 1위 :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구조 조정의 교과서’(매일 경제, 1998년 5월 5일자 23면)
- “지금 우리 나라의 상황은 영미(英美) 등 일류 국가의 체도를 교과서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단계가 아니다.”(趙甲濟, “근대화의 혁명가” 朴正熙의 생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371 회), 조선 일보, 1999년 1월 26일자 21면)
- 대중 욕구 꿰뚫은 이중섭展과 쉬리 : 교과서에 그 이름이 나오는 ‘국민 작가’로서 실제 작품을 볼 기회가 극히 드물었다는 점(문화 일보, 1999년 3월 9일자 17면)
- ‘ML 큰 별’ 디마지오 전설 속으로 : 이길 줄 아는 지혜를 지녔고, ……디마지오는 타격의 교과서로 지칭된다.(문화 일보, 1999년 3월 9일자 20면)
- 인터뷰—이데이 노부유키(소니 사장) : “다가올 시대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조선 일보, 1999년 3월 2일자 8면)
- 아듀…… 20세기<61> 정치 선전 마술사 피벨스 : 그는 대중 선동의 기본과 선전의 무서운 효과를 처음으로 보여 준 교과서였다. …….(조선 일보, 1999년 4월 12일자 21면)
- 김미숙은 드라마가 인생의 교과서라고 응수했다. “드라마 속 현모양처처럼만 하면, 큰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조선 일보,

1999년 5월 31일자 37면)

- 현대 시조의 교과서 조운 - 분단 50년 만에 '햇빛' 봤다. (조선 일보, 2000년 7월 22일자 37면)
- 광고 (정신 세계사) - 신이 들려준 '영혼의 교과서' 「내 안의 나」
- "아빠는 꼭 교과서처럼 얘기하시네요."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신동란 역, 「로리타」, 모음사, 1987년 13판, 134쪽)
- 책 소개 - 백만장자가 되는 길의 '교과서' 「백만장자 마인드 1·2」 (토머스 J 스탠리 지음, 장석훈 옮김, 북하우스)
- 위법 행위를 처벌하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물론 교과서의 1장 1절이다. (柳根一 칼럼 - "너흰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 조선 일보, 2000년 9월 16일자)
- 교과서적인 말만 반복해서 지껄여 대는 선생들..... (이만교, 「결혼은 미친 짓이다」, 민음사, 2000, 226~227쪽)
- 조선 일보 선정 '이 달의 책' (제 1회) : 「살아 있는 한국사 교과서 (1, 2권)」 - 전국 역사 교사 모임 지음, 휴머니스트.
- "교과서에 범생이에 해피보이, 그야말로 미숙함의 총체라구." (정길연, 「그 여자, 무회」, 이룸, 2002)
- 어쨌든 교과서에서 정의하는 식의 선(善)을 행한 적은 없었다. 라요스가 야비했는가? (산도르 마라이, 「유언」, 숲, 2001, 17쪽)
- 이 책은 승부사로서 히딩크 감독의 '독기'와 '지혜'를 함께 엿볼 수 있는 '경영학 교과서'적 내용도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조선 일보, 2002년 8월 30일 1면 광고, 히딩크 첫 자서전 「마이웨이」 나온다)

2. 교과서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보다 좀 수다스럽지만 재미삼아 인용한 위의 사례들은 어느 것이나 교과서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교과서는 대단하다는 것이다. 우리 부에서는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교과서를 편찬할 때마다 "교과서는 聖典이 아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자료) 일 뿐"이라고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⁴⁾ 지난 여름의 〈한국 근·현대사〉검정 교과서 문제⁵⁾를 통하여 확인한 것처럼 교과서는 아직도 성전으로 자리잡고 있다. 글자 한 자, 단어 하나, 표현 하나도 돌에 새긴 것처럼 정확해야 하며 국민 하나하나의 마음에 들어야만 할 정도의 '金科玉條'이어야 한다.

3. 한때 우리 '편수'는 70명에 가까운 인원이 하나의 局을 이루고 조직도 3~4개의 담당관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하나의 課를 이루게 되었다. 전체 인원이 20여 명으로 줄어들 때의 논리는 교육부에서는 종래의 표현·표기 및 오류 사항 직접 점검 체제를 탈피하고⁶⁾ 교과목별 편수 정책을 개발하고 분석·심사·평가 등을 통하여 조정, 지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우리는 아직도 읽고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는 일을 하고 있어⁷⁾ 지난 8월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파동(?), 연이은 국어 교과서 1000여 건 오류 소동(?)과 같은 일을 당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잘못된 일도 없으면서 업무 수행의 한계를 드러낸 것처럼 알려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우리 '편수'는 인원은 줄고 업무는 줄지 않았다.

우선 옛날에는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한다 해도 오늘날처럼 관심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고, 고시(저 옛날에는 문교부령으로 공포하였었다.)한 후에도 교육과정 적용에 필요한 교과서와 지도서, ‘교육과정 해설’ 등 기본적인 자료 개발에 매진하면서 시·도 교육청의 대표들을 불러 연수를 시키면 거의 그만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

4. 제 7 차 교육과정만 해도 교육과정 총론(기본 지침)이 복잡하고 현실적이지 못하여 적용할 수가 없다는 비판이 비등하여 교육부에서는 수많은 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왔고, ‘제 7 차 교육과정 시행 준비단’이나 ‘제 7 차 교육과정 지원 장학 협의단’ 같은 특별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이 교육과정의 적용을 위한 지원 활동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옛날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건 아니다. ‘韓國觀 사업’이니 ‘공업 교육 활성화’니 하여 시책 개발과 구현에 힘쓰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5. 교과서와 지도서 개발도 그렇다. 어떤 사람은 “그까짓 것 다 평가원이나 어디 맡기지 뭐 하려고 붙잡고 있느냐?”고 하지만 “그러면 되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래, 교육의 기본이라고 하는 교육과정 업무와 교과서 편찬 업무를 민간 기구에 다 맡기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가령 이 글을 쓰는 오늘의 상황⁸⁾으로 말하면 제 15 호 태풍 ‘루사’가 몰고 온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은 학생 수나 재빠르게 조사해 보고, 아폴로 눈병 확산으로 휴교를 한 학교 수, 눈병이 난 학생 수를 조사하여 고쳐 주지는 못할망정 조사나 빨리 하는 그런 일이나 잘 하면 그만 이겠는가. 국민들이 만족하겠는가.

6. ‘맡긴다’는 것도 그렇다. ‘국정 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이고, ‘교육인적자원부가 편찬하는 도서’이지만 실제로는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 도서는 연구 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는 규정⁹⁾에 의해 국정의 모든 도서를 연구 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하고 있다. 물론 검정 도서, 인정 도서는 모두 민간 출판사 또는 교육청, 학교에서 편찬하는 도서이다. 우리 교육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각 도서의 집필 지침을 만들어 제시하고 교육과정과 그 집필 지침, 검정 기준에 맞추어 심의(검정)하는 일, 최종적으로 그 내용을 분석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 수정, 보완하는 일 뿐으로 이는 교육 활동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에 관한 최종 책임을 국가가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국정 도서, 검정 도서가 있는 나라 치고 그러한 업무를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 나라가 한 나라나 있는가 찾아보라. ‘민간, 민간’ 하니까 정부가 할 일까지 모두 민간에 맡기고 있는 줄 아는 사람이 이 일에 관여하면 우리 교육은 절대로 제대로 될 리 없다. 그럴라치면 차라리 아직 시기상조이거나 말거나 모든 교과서를 자유 발행으로 돌리고 학교 교육이 혼란에 빠지거나 말거나 그나마 제대로 되거나 말거나 귀찮은 업무이니까 요리조리 책임 회피나 하고 마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까짓 것 다 민간 기관에 맡기지 뭐 하려고 붙잡고 있느냐?”는 말은 그 최종의 책임까지 민간에 맡기고 우리는 편하게 지내자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며 국민들이나 학생들도 그것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7.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는 오늘도 교육과정 업무와 편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새로 편찬한 도서 수가 국정은 721 종(책), 검정은 약 1550 책¹⁰⁾, 합계 2270여 책이나 되는데도¹¹⁾ 우리 교육과정 정책과 20여 명의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장학관은 ‘편수관’은 아니지만 ‘편수관처럼’(우리들 스스로만이라도 ‘편수관’이 되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다. 소신과 책임, 권한, …… 이런 것들을 가슴에 담은 채. 희망까지 버리지 않는고. 왜냐 하면, 우리 나라야말로 결국은 교육으로써 제대로 발전할 나라이므로. 그렇게 시시한 나라가 아니므로. ☞

- 1) 학교정책실에는 수석과로 불리는 학교정책과와 우리 교육과정정책과, 평가관리과, 그리고 학교정책실장 아래의 교원정책심의관 밑에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구과, 교원복지담당관이 있으므로 모두 6개의 과가 있다. 교원정책심의관처럼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이 있었으나 2000년 9월 1일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 그 자리가 없어졌다.
- 2) 나는 개인적으로 새로 발령을 받아 와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몸으로 열심히 뛰어 여러분이 하는 일을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인사말을 들으면 그런 말을 겸손과 다른 것으로 해석되고 ‘아는 것도 없이 어떻게 하려고 왔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또, “나는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여 할수없이 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 자리에 앉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혹은 “이 자리를 떠나면 나는 영전일 뿐입니다.”라는 말이 듣기에 역겨워 그런 사람에게는 마이크를 주지도 말고 제일 뒷자리의 어느

구석에 앉혀야 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 3) 이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도 많지만, 우리가 이 교육과정의 합리성, 필요성,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을 때, 제 7차 교육과정을 제안한 교육 개혁 위원회 위원이나 교육 개혁 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우리 부의 교육과정 개정 기본 계획에 의해 총론과 각론 연구 개발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한 기관의 학자들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할 의사를 보이는 분을 찾기가 어려웠으며, 오히려 그들 중의 일부는 현장 교원이나 학생들에게 “제 7차 교육과정은 문제가 많은 교육과정”이라는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 4) 거의 해마다 발간되는 우리 부 ‘교과용 도서 편찬 기본 계획’의 「공통 지침」 참조.
- 5) 2002년 7월 30일자 국민일보 기사부터 8월 한 달 동안 주요 일간지들의 〈한국 근·현대사〉 검정 교과서 관련 기사들을 보라.
- 6) 당시 장관께서는 “교육부 편수관이 교과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읽고 고치는 이런 일이나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었다.
- 7) “내가 만든 그 굴레를 쓰고 ‘떠었다 붙였다’를 반복하는 세월이었다. …… 썩 잘해 봐야 본전도 못 찾는, 잘한 것은 흔적도 없는, 잘못만 크게 남는, 그런 일에 젊음의 힘을 소진한 것이다. …… 그러면서도 이 일은 내가 해야지 하면서 이 감 저 감에 침만 발라 놓고 있다.”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에서 낸 「編修의 뒤안길」(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1991.)에서 편집 전문가 이승구 씨(전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사장, 상임 고문)는 수정·보완의 애환을 그렇게 표현하였다.
- 8) 2002년 9월 3일(화). 각 신문 참조.
- 9)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17634 호, 2002. 6. 25. 전문 개정) 제 5 조.
- 10) 왜 ‘약’으로 표시했는가 하면 2002년 9월 초 현재의 합격본은 1485 책이지만 아직 재검정이 끝나지 않았고 재검정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책 수가 약 70 책이기 때문이다.
- 11) 고등 학교 보통 교과 선택 과목은 제 6차 교육과정 때는 60 과목이던 것이 79 과목으로 늘어나고, 전문 교과는 제 6차 교육과정 때는 9 개 계열 378 과목이던 것이 제 7차 교육과정 때는 10 개 계열 445 과목으로 늘어나 이에 따른 도서 수의 증가도 크다.

더 나은 교과서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10 가지

글 / 홍후조(인하대학교 교수)

이 글은 교과서 제도와 관련하여 필자의 단편적 생각을 밝힌 것이다.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 대안은 ‘교과서의 질 관리를 강화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가장 질 좋은 교재를 확보해 주는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교과서의 질(質)은 ‘정책, 연구와 개발, 심의, 채택 및 관리 과정’ 등 다원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첫째, 국정 교과서를 줄이고 검인정 교과서를 늘려야 한다.

민간의 자유롭고 전문적·창의적 아이디어가 교과서에 구현될 수 있는 길을 넓게 여는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초등 학교 영어는 검정에서 국정으로 회귀하였으며, 중등 학교 사회는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었다. 현재 초등 학교 교과서를 비롯하여 국어, 국사, 도덕 등 국정 도서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초등 학교 교과서는 시장 실패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특정 저작자와 기

관을 지정하여 저렴한 가격에 제작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개별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다. 초등 교과서와 지도서는 예·체능 분야, 수학 및 과학 기술 분야, 그리고 국어, 사회 순서로 점진적으로 검정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전면 개편 교과서보다 꾸준히 수정, 보완하여 판(版) 수를 거듭하는 교과서로 체제를 바꾸어 가야 한다.

현재는 교육과정 전면 개정에 따라 교과서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검정 주기도 정해져 있지 않고, 교육과정에 연동되어 있다. 국가 교육과정 기준도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교과서도 판(版) 수를 거듭하여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 교과서의 전면 개편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개정판, 3판, 4판을 거치며 계속해서 꾸준히 수정해서 질 높은 교재로 만들어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전면 개편하는 교과서는 제작비가 많이 들고, 검정 심사비가 비싸며, 검정 심사를 단

기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의 질을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정기(定期) 검정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제 7 차 교육과정에서는 일시 동시 검정이 아닌 연차별 검정제를 취하였다. 검정의 취지에 맞게 질 높은 교재를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집필자의 원고의 질과 편집자의 편집 전문성이 대체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차별 검정제도 모든 학년에서 합격되지 못하면 사용자가 피해를 보게 되며, 출판사의 집필자 및 편집자 확보, 장기간 집중 집필이나 편집에서 오는 피로 누적, 집필진과 편집진의 중도 교체 및 변화 위험 등 일시 검정제와 비슷한 폐단이 있다. 출판사의 일상적인 업무로서 교과서를 개선해 갈 수 있는 제도로는 정기 검정제가 요구된다. 기존에 사용해 오던 교과서는 교재 발행사와 저작자가 책임지고 꾸준히 수정 개선하여, 교과 특성에 따라 내용이 안정적인 교과서는 4 년마다, 내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변하는 교과서는 2, 3 년마다 검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검정도 수정 보완된 부분(단원, 절)만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기 검정제는 출판사의 장기적 출판 투자의 가능, 완성도 높은 심사본의 안정적 출원, 검정 심사의 질 제고, 부적격 판정에 따른 시비 방지, 학교의 질 높은 교재 채택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넷째, 검정 정책 결정과 정책 시행이 일원화되어야 한다.

현재 검정 과정은 비상설 조직인 검정 심

의회에 완전 위임하기 때문에, 정부는 심의 과정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다. 일본은 문부과학성의 전문 위원(구 교과서 조사관)이 교과별 검정 전 과정을 주도하고 책임을 지며, 대만은 국립 편역관이, 미국은 주 교육부에서 담당하는데 비해, 우리는 교육 인적 자원부의 검정 관련 책임과 권한이 미약한 편이다. 2002년 여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파동에서처럼 교과서 검정 제도의 정책 결정과 시행의 분리가 일어나, 문제나 쟁점이 발생하였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역할의 분산이 일어나고 있다. 교과서를 검정하는 일은 판매와 이윤을 동기로 하는 민간 교재 발행사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준사법적 행정 처분 행위이기에, 쟁점 발생이나 이의 제기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사후 관리는 일관성과 실효성을 위하여 정부가 공공 권한을 배경으로 수행하고, 연구소는 정책 집행 대신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역할 분담으로서 더 바람직하다.

다섯째, 지도서는 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정 도서로 해야 한다.

검정은 미성숙한 학생의 교육 자료를 국가 수준에서 질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고, 지도서는 교사가 교과서를 학생에게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도사이므로 원칙적으로 검정의 대상이 못 된다. 지도서는 경험 부족 교사, 소규모 학교의 다교과 지도 교사, 특정 과목을 전공하고 전체 교과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에게 매우 중요한 수업과 평가 안내 자료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해석

하거나 이를 전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이를 검정하면 전문적이고 경륜 있는 교사들의 수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저해하고 획일적이 될 수 있다. 사용이 미미한 교과 지도서도 적지 않다.

교과서와 함께 지도서를 검정하게 되면 발행사는 교과서 제작과 동시에 지도서를 제작하거나, 2차 심사 직후 곧바로 지도서를 제작해서 심사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집중되어야 할 인력과 자원을 분산시키고 피로를 가중시키는 폐단이 있다. 발행사에서 개별적 혹은 연합하여 후속 서비스 차원에서 학생용 혹은 교사용 참고 자료집을 개발하여 ‘인정’받는 방식으로 지도서를 공급할 수도 있고, 전문적인 교원 단체에 의해 자발적으로 참고 자료나 수업 지도안을 홈 페이지에 올려 다른 교사들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

민간의 창의와 다양성을 살리고 수업용 교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서를 비롯한 다양한 보완 교재들을 검정보다 인정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과별로 어떤 교재가 검정 혹은 인정 대상인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학교 수업용 주와 보완 교재를 다양하게 발행하되, 학생들의 스스로 탐구하고 궁리하는 버릇을 기르기 위해서도 교과서의 ‘문제’를 기초로 한 문제 풀이 ‘정답’이 나오는 학생용 ‘자습서’는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도서는 학생 판매를 급하고 교사에 한하여 판매해야 한다.

여섯째, 교과 특성이나 수업과 학습에의 교과서 의존도에 따라 학생 개인용 교과서보다 교사용,

학급용, 학년용, 다학년용, 학교용 교과서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교과 특성이나 수업과 학습에서 교재 의존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교과에 걸쳐 학생이 1인 1책을 소유하고 있다. 특히, 교과서를 주교재로 하여 서책 형태로 개발하고 검정함으로써, 주교재를 교과서 형태로 개발할 필요가 없는 것조차 교과서로 개발되고 있다.

특히, 실기, 실험, 실습용 교육 내용이 많은 교과 교재들이 그러하다. 실기, 실습, 실험과 관련한 교과 교과서는 교과 특성을 반영한 오디오, 비디오, 멀티미디어 자료 형태로 개발 보급되어야 함에도 서책 형태가 주교재가 되고 있다. 이는 교과서 설명 위주 수업을 고정시키는 면도 있다. 수업과 학습에서 교과서 의존도가 낮은 교과의 경우 학년별 학기별 1인 1책보다 학급용, 교사용, 학년용, 다학년용, 학교용으로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 개인용이 아닌 학교용, 학급용, 교사용으로 만들어 보급해야 할 것이고, 대여 사용 후 반납제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의무 교육기는 국가에서 교과서를 구입 보급하므로, 학급용, 학년용 교재는 국가 재정을 절감을 가져오고, 그 여유분으로 검정 대상을 확대할 수 있고, 국정 교재 개발을 고급화할 수도 있으며, 다양한 보완 교재를 구입 보급할 수도 있다.

일곱째, 교과별 교과서 발행사의 전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질 높은 교재를 생산하고 있는 선진 외국

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수 교재 발행사들이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고 있고, 이들은 검정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집필진, 편집진 등을 확보하고 교재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미 개발된 도서의 개정판을 지속적으로 출판해 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재의 질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검정에 출원하는 교재 발행사의 대부분이 영세하여 교재 출판을 1회성 투기 사업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전문적인 집필진과 편집진이 상시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 출원 당시에 일시적으로 모여 작업을 하고 흩어지는 방식이다. 기존의 발행사들도 너무 많은 교과와 교재를 한꺼번에 제작하여 전체적으로 교재의 질이 높지 못하다. 정기 검정제가 아니고 기존 사용 교재에 대한 검정 주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행사는 장래를 예견할 수 없어서 상설 연구, 편집 체제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결국 교재의 지속적 연구와 질 관리가 어렵고, 그만큼 질 개선도 더딘 것이 현실이다. 출판사의 교과별 전문화 문제는 현재 교과서 판매 수익금 배분 방식 변화와도 관계되므로 교육 인적 자원부의 협조와 검정 협회와 군소 출판사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여덟째, 교과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항상적으로 질 개선해 가는 교과서 모니터제를 확립해야 한다.

발행사들은 매년 수정 보완하기보다 미루었다 다음 교육과정 개정 때 전면 개편하는 방식에 익숙해 있으며, 한 번 공급하고 나면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편이다. 그리고 교과서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수용하는 통로가 미비한 편이다. 별다른 제도화된 대책이 없어 교과서 오류에 대한 문제 제기, 이슈 중심으로 파동을 불러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과서를 개선하는 주체는 교원, 학생, 편집진, 집필진, 학부모, 해당 교과 연구자 등 다양하다.

특히, 교과서를 개선하는 지름길은 이를 사용해 본 교원과 학생들로 하여금, 단원별, 주제별, 차시별로 일정 인원을 지정해 교과서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교원 교과서 모니터 체제’와 ‘학생 교과서 모니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교사는 가르치면서 발견한 문제점을 교재 발행사나 정부의 교과 담당 관계관에게 수시 통보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 혹은 학교 수업용 교재 발행사는 교원 교과서 모니터뿐만 아니라 전국 학교와 사회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과서 모니터 체제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교재 발행사는 교과서 전문을 웹에 올려 누구나 교과서에 대해 보다 나은 의견을 제기하게 하고, 좋은 평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 희망하는 시민을 ‘명예 교과서 심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교과서를 상시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더 나은 교재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발행사들은 매년 일정액의 이윤을 교과서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되, 특히 교과서 오류를 지적하는 모니터 요원에게 사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정기 검정에서 발행사들이 교과서의 확인된 오류 사항을 어떻게 수정해 왔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학교에서도 이미 채택

한 것보다 더 질 높은 교과서가 있으면 매년 교체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도 발행사로 하여금 교과서 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교과 교사 연구 모임 단위로 교과서의 비교 분석을 계속하여, 양질의 교과서가 있으면 다음 해에 채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홉째, 교과서 채택과 선정을 개별 학교보다 권역별로 광역화하여야 한다.

현재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전시하고 채택하기까지 기간은 약 1개월 정도(검토 기간은 15일 내외임.)이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개별 교사가 여러 책을 모두 검토하여 비교 판단하기에는 기간이 짧은 편이다. 단위 학교에서 교과서를 충분히 검토한 뒤 채택하여 질 낮은 도서를 자연 도태시키는 시장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교원의 잦은 이동으로 교과별로 교사 수가 소수인 학교는 자신이 참여하여 검토 추천하고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개별 학교보다 채택 단위를 광역화하여, 학생 수를 감안하여 지구별 자율 장학회별로 혹은 권역별 채택구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수의 공론에 따라 질 높은 교과서를 공동 채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교과서 출판 전문화와 고품질화를 위해 교과별로 2~5종 내에서 복수 추천하고 학교에서 현행 절차를 활용하여 채택하도록 하여, 채택 과정에 다수가 참여하여 선택의 타당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교원 단체 등을 통해 교과서 질에 대한 평가 결과를 권장하고, 다양한 사회 단체의 교과서 질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교과서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열째, 사용 후 반납하는 교과서 대여제를 확대해야 한다.

전면 개편으로 교과서를 한 번 쓰고 버리는 자원의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 교재 발행사는 교과서를 학생 개인 휴대용으로 부피와 무게를 제한하여 만들고 있고, 사용 후 폐기 처분하는 소모품으로 간주하고 제작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소모품처럼 사용하고 버리는 버릇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와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며, 자원의 낭비 또한 적지 않다. 현재 교과서 재활용률은 10% 미만으로 저조하다. 새로 개발되는 교과서들은 지질이나 판형 등에서 1년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 모든 수업과 학습에서 교과서 의존이 낮은 교과와 교재부터, 개인 구입 사용 후 처분형보다 무상 대여용을 점차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정 뒤에도 학교 수업용 교재를 수정 보완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일정 기간 쓰고 버리는 교과서가 아닌 개정판, 3판, 4판으로 판 수를 거듭하는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절감되는 자원의 혜택은 일일이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다. ㉠

창의적 재량 활동, 무엇이 문제인가

■ 글 / 김옥중(광주 운암중학교 교감)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수준별 수업과 창의적 재량 활동이라 하겠다. 특히, 창의적 재량 활동은 후기 산업 사회인 지식 기반 사회에서 필수적인 활동이라 하겠다.

그런데 창의적 재량 활동은 국가가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를 연구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지 않고, 학교 단위에서 학교와 교사가 활동할 경험을 구성해서 학생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가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처방하지 않고 학교와 교사가 자체적으로 편성, 운영해 나가는 탄력적 교육 활동이라 하겠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제 7차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제 13조 재량 활동에서 “재량 활동의 편성, 운영 및 영역에서 내용, 평가 등은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학교의 실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단위 학교가 창의적 재량 활동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데 있어 탄력적인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창의적 재량 활동의 자율 재량권을 발휘할 기회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량권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학습 활동 공간의 확보가 학교에서는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연유로 학교 단위에서는 창의적 재량 활동을 위해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과정에서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갖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창의적 재량 활동을 지도할 전문적인 교사가 필요하다.

창의적 재량 활동은 범교과나 자기 주도적 학습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교사를 요구하고 있다. 수업 시수가 적은 교사가 교과나 교사의 균형잡힌 수업 부담을 위해서 부득이 담당할 경우 창의적 재량 활동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기 쉬우며, 학습자는 진정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문성을 지닌 교사에게 배워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교육적인 고려에서 전문성을 지닌 인적 자원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둘째는, 창의적 재량 활동을 담당할 만한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의 지도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 7 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창의적 재량 활동은 운영에 있어 생소한 부분이 많아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사실 집체적인 전달 연수인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전달 연수에서 벗어나 교사들의 필요에 의해서 계획된 다양한 실천 사례 중심의 워크숍 형태의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 또한 일반적인 교육청의 지명에 의한 연수보다는 교사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연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는, 창의적 재량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정보 자료가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현재 창의적 재량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개발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학습 영역의 자료를 선정하거나 제작하기에는 무리일 뿐만 아니라 창의적 활동의 교육적 자료로서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검증된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충족시키는 데 한계를 느끼게 된다. 이런 연유로 교육청 단위에서 창의적 재량 활동의 교육적 자료로서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걸맞은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사실 학습 자료 없이 창의적 재량 활동을 운영한다는 것은 창의적 재량 활동의 어느 영역이든 간에 형식적인 운영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이런 필요성에 의해 교육청에서는

시범 학교나 연구 학교를 통해 연구된 결과나 실천 사례를 일선 학교에 보급하려 하지만, 이를 실제 활용하기 위한 정보 구축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재량 활동의 운영을 위해 더 많은 사례 연구가 진행되고,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일선 교육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의 보급으로 운영의 일반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는 영역별 집단 편성이 학생들의 희망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창의적 교육 활동이란 주제는 있지만 실제로는 교사 수준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희망대로 창의적 재량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창의적 재량 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일선 중·고등 학교 43개교를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 조사(문길모, 2002.)한 내용을 보면 범교과 학습 영역의 선정에서 2~5개 정도의 영역을 선택한 학교가 중학교는 73%, 고등 학교는 90%로 나타나 있다. 이는 다양한 창의적 재량 활동이 지도 교사의 부족이나 제반 여건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문제점은 창의적 재량 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을 짚어 보았을 뿐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창의적 재량 활동의 편성, 운영 활동이 학교의 특수성과 제반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모색되고 실현되었으나, 후기 산업 사회의 지식 기반 사회로 가고 있는 역사적인 교육적 추세를 거스를 수 없는 당위성 때문에 창의적 재량 활동의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23

인도네시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

■ 글 / 박제윤(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관)

인도네시아의 초·중등 학교는 6년제의 초등 학교, 3년제의 하급 중등 학교(이하 중학교), 3년제의 상급 중등 학교(이하 고등 학교)로 구성되며, 의무 교육 기간은 9년간이다.

인도네시아의 교육 행정은 중앙집권적으로 국가는 주, 현, 시정촌을 통해 초·중등 학교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국가의 교육문화부(이하 교육부)가 초·중등 학교의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또는 문화적 배경의 차이 및 지역에 따라 취학 상태나 시설, 설비 등의 교육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 및 방법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을 관장하는 국가의 행정 기구는 교육부 외에도 종교부 등이 있으며, 종교부 산하의 학교(이슬람 학교)는 사립을 포함하여 전 학생수의 1~2할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언급하고자 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는 교육부가 관장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과정 제도

인도네시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산하 ‘교육과정 개발 센터’의 전문 교육 개발 인력팀에 의해 연구되어지고, 그 연구 결과에 대해 세미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새로운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그것을 교육법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에 관심 있는 학자, 교육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 페이지를 개설하여 많은 교육 실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구자억, 2001 : 87)

인도네시아 교육과정은 1975년에 제정된 이래 1984년과 1994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1994년 교육부 장관령에 의한 교육과정에 의하고 있다.

신학기는 매년 7월에 시작하여 이듬해 6월에 한 학년 과정이 끝나며, 매학년 말에 실시하는 진급 시험을 통해 상급 학년에 진급한

다. 한 학년은 인도네시아의 자연 환경 및 문화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994년부터 2학기 제도에서 한 학기당 4개월로 나뉜 3학기제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연간 수업 일수는 240 일이며, 주 6 일제(일요일이 휴일)가 채택되고 있다.

1 주간의 수업 시간은 초등 학교는 학년에 따라 주당 30~42 단위 시간, 중학교와 고등학교 1, 2 학년은 42 단위 시간, 고등학교 3 학년은 44 단위 시간이다.

1 단위 시간은 초등 학교 1, 2 학년은 30 분, 3~6 학년은 40 분, 중·고등학교는 45 분으로 되어 있다.

가. 초·중학교의 교육과정

초등 학교와 중학교는 의무 교육으로 기초 교육을 중시하며 국가가 정한 필수 교과를 이수하게 된다.

초등 학교 1, 2 학년은 뽀짜실라도덕¹⁾, 종교, 국어, 수학, 기술·미술, 건강·스포츠의 6 과목을 배우고, 3~6 학년은 이과와 사회를 추가하여 8 과목을 배우며, 중학교에서는 영어를 추가하여 9 과목을 배우게 된다.

주당 수업 시간은 초등 학교 1, 2 학년은 900 분이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1,890 분까지 증대된다. 우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초등 학교 1, 2 학년을 제외하고 매학년 360 분~440 분 정도를 더 이수하고 있다<표 1 참조>.

또한, 교과 이외에 '지방의 재량 시간'이 있

어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재량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나. 고등 학교

(1) 일반계 고등 학교

일반계 고등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종교, 어문학 등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1984년 교육과정 개정시 종교 과정을 삭제하고, 자연과학 과정은 수학과 물리 분야를 중요시하는 공과 과정과 화학과 생물 분야를 중요시하는 이과 과정으로 분리하였다. 공과 과정과 이과 과정의 과정별 이수 과목은 동일하며, 다만 시간의 배분과 희망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심화 교육 정도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일반계 고등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공통 필수 과목과 과정별 선택 과목으로 구분된다. 고등 학교 1, 2 학년은 기초 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취향과 능력을 판단하는 기간으로 공통 필수 과정이다.

1, 2 학년의 학기당 이수 과목은 13 과목이며, 그 중 뽀짜실라도덕 및 공민교육, 종교, 국어(언어와 문학), 국사 및 세계사, 영어, 체육, 수학, 물리, 생물, 화학, 경제, 지리 등의 12 과목은 1, 2 학년 공통 과목이며, 1 학년은 예술, 2 학년은 사회 교과의 사회가 추가되는 차이가 있다.

〈표 1〉 주당 수업 시간 비교

(단위: 분)

구분	초 1, 2	초 3	초 4	초 5, 6	중 1~3	비고
인도네시아	900	1,520	1,600	1,680	1,890	
우리 나라	1,000	1,160	1,160	1,280	1,530	

〈표 2〉 초·중학교 교과와 주당 시간 수

학교급		초등 학교						중학교		
교과	학년	1	2	3	4	5	6	1	2	3
뽕짜실라도덕		2	2	2	2	2	2	2	2	2
종 교		2	2	2	2	2	2	2	2	2
국 어		10	10	10	8	8	8	6	6	6
수 학		10	10	10	8	8	8	6	6	6
이 과		—	—	3	6	6	6	6	6	6
사 회		—	—	3	5	5	5	6	6	6
기술·미술		2	2	2	2	2	2	2	2	2
건강·스포츠		2	2	2	2	2	2	2	2	2
영 어		—	—	—	—	—	—	4	4	4
지방의 재량 시간		2	2	4	5	7	7	6	6	6
합 계		30	30	38	40	42	42	42	42	42

※ 1단위 시간은 초등 학교 1, 2학년은 30분, 3~6학년은 40분, 중학교는 45분

〈표 3〉 고등 학교 제 1, 2학년의 교과와 주당 시간 수

구분		학년	1	2
뽕짜실라도덕·공민 교육			2	2
종 교			2	2
국어(언어와 문학)			5	5
국사 및 세계사			2	2
영 어			4	4
체 육			2	2
수 학			6	6
이 과	물 리		5	5
	생 물		4	4
	화 학		3	3
사 회	경 제		3	3
	사 회		—	2
	지 리		2	2
예 술			2	—
계			42	42

※ 1단위 시간은 45분

이러한 2년간의 교육을 통하여 전공 분야를 선택하기 위한 준비가 끝나면 3학년 진학시 심화 선택 교육과정이 결정된다.

3학년이 되면 진로를 고려하여 과정을 정하게 되는데 과정은 어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과정으로 구분된다.

3학년의 학기당 이수 과목은 10 과목으로, 6개의 공통 필수 과목과 4개의 과정별 선택 과목이 있다. 공통 필수 과목은 뽀짜실라도덕 및 공민교육, 종교, 국어, 국사 및 세계사, 영어, 체육으로 과정과 상관 없이 동일하다. 과정별 선택 과목은 어문학 과정의 경우 국어, 영어, 제 2 외국어, 문화사이고, 자연 과학 과정의 경우 물리, 생물, 화학, 수학이며, 사회

과학 과정의 경우 경제, 사회학, 국내법, 인류학이다.

이외에도 과외 활동을 위한 시간이 다소 배정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다양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재량으로 지역 현실에 맞는 지방어, 지역 특성에 맞는 노래나 춤, 교육, 혹은 주변 지역에 맞는 다양한 지역 봉사 활동, 단체 활동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학년별 수업 시수를 살펴보면 1, 2 학기는 12 주로, 3 학기는 10 주로 편성되며 다만 3학년 3 학기의 경우는 8 주로 편성하고 있어, 1, 2 학년은 연간 34 주, 3 학년은 32 주를 이수하게 된다.

〈표 4〉 고등 학교 제3학년의 교과와 주당 시간 수

공통 필수 교과		과정별 선택 과목			
		어문학 과정		자연 과정	사회 과정
뽀짜실라도덕·공민교육	2	국 어	8	물 리	7
종 교	2	영 어	6	생 물	7
국어(언어와 문학)	3	제 2 외국어	9	화 학	6
국사 및 세계사	2	문화사	5	수 학	8
영 어	5				
체 육	2				
(소 계)	(16)		(28)	(28)	(28)
총 계		44			

※ 1단위 시간은 45분

〈표 5〉 주당, 학기당, 학년당 수업 시수

학년 학기	1 학년	2 학년	3 학년
1 학기	12 주 (504 시간)	12 주 (504 시간)	12 주 (528 시간)
2 학기	12 주 (504 시간)	12 주 (504 시간)	12 주 (528 시간)
3 학기	10 주 (420 시간)	10 주 (420 시간)	8 주 (352 시간)
총 계	34 주	34 주	32 주

※ 출처: 구자역, 2001: 90

(2) 실업계 고등 학교

상급 중등 직업 학교(실업계 고등 학교)는 크게 상업, 가정, 공업, 농업의 4종류로 나뉘어지며 이외에도 관광, 미술, 공예 등의 학교도 있다. 학교 수로 보면 상급 중등 학교의 $\frac{1}{4}$ 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기준은 국가가 정하고 있지만 각 학교는 이 기준을 근거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상급 중등 직업 학교의 교육과정은 보통 교육과 직업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교육은 뻘짜실라도덕·공민교육, 종교, 국어, 체육, 국사 및 세계사의 5교과를 위주로 하며, 직업 교육은 모든 직업에 공통되는 기초 교육과 특정의 직업 영역에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교육으로 구성된다.

2. 교과서 제도

가. 교과서의 집필과 발행

초등 학교의 교과서 중 주요 5교과(도덕, 국어, 수학, 이과, 사회)의 교과서는 국가(교과서 개발 센터)가 집필하고, 동 센터가 직접 또는 출판사에 위탁하여 발행하고 있다. 다른 교과의 교과서는 민간의 출판사가 출원하여 교육부의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중등 학교의 교과서는 모두 민간의 출판사가 집필하고 국가의 검정을 받는다.

나. 교과서의 검정

민간의 출판사가 출원한 검정 교과서를 교육부가 심사하는 경우, 심사는 다음의 척도에 기준하여 행해진다.

- ①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에 준거하고 있는가

- ② 언어 표현이 적절한가

- ③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위험은 없는가

다. 교과서의 공급

교과서는 교과서 개발 센터가 공급한다.

초등 학교의 교과서는 아동에게 무상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교과서의 인쇄 책수가 부족하여 모든 아동에게 교과서가 배포되지는 않는다. 정부로서는 적어도 주요 교과에 대해 모든 아동에게 교과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등 학교의 교과서는 무상 대여가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교과서의 인쇄 책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에게 교과서가 대여되지는 않는다. 학교에 따라 부모가 교과서를 구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23

1) Pancasila(뻘짜실라) : 5개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최고 국가 이념으로, 1945년 6월 22일 자카르타 헌장이라고 명명하여 선언되었고, 1945년 8월 17일 공포된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국민의 정신적 지주로 있으며, 모든 학생들은 '뻘짜실라'라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5가지 이념은 다음과 같음.

- ① 전지 전능한 신에 대한 신앙심, ② 정의롭고 예절 바른 인간성, ③ 인도네시아의 통일, ④ 대중 합의와 대의 제도를 통한 지혜로운 정책을 의해서 인도되는 민주주의, ⑤ 전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한 사회 정의

참고 자료

- 구자익. 고등 학교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2001.
- 교육부. 외국의 교육과정 제도. 1999.
- 교육부. 교과서 백서. 2000.
- 재단 법인 교과서 연구 센터. 제외국에서의 교과서 제도 및 교과서 사정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 2000.

『교과서연구』는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의 성과·교육 제도·교육 과정·교육 자료 등
교육 현장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연구』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원고를 모집합니다

교과서 전문 연구지

『교과서연구』

◆ 원고 내용

- 교과서 및 교육 과정 관련 연구와 교육 현장의 교과 운영 현황과 교과서 활용 방안 등
- 교육 현장과 관련된 교수-학습의 특색 있는 내용 등
- 『교과서연구』를 읽고 느낀 점이나 새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등
-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수필·시·만화 등

◆ 원고 매수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A4 용지 10포인트 4매 기준)

◆ 원고료

-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보내실 곳 : 135-936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1-11 서울빌딩 6층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연구』 편집자 앞
E-mail 주소 : editor@kotri.re.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501-9103으로 문의

제 4 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 방향

■ 1부 / 정책면(한남대학교 [표수])

1. 교과서 성격의 규명

제 4 차 교육과정을 고시한 후에 어떤 교과서를 편찬할 것인지 하는 것은 그 때 편수 담당자들이 고려해야 하는 최대 과제였다. 분명히 우리의 교과서는 선진국에 비하여 후진을 면치 못하였고, 일본 교과서보다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뒤져 있었다. 그리하여 교과서 편찬에서는 종전의 교과서보다 획기적 발전을 이룩하여 세계적 수준의 교과서가 되게 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그리하여 교과서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교과마다 교과에 전문가가 교과서 편찬을 담당하였고, 교과서 개발을 연구 개발형으로 하여 심의에 많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였고 예산도 많이 투자되었다. 그리하여 자율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가 되게 하였다.

이 때 교과서의 성격을 규명하면서 학교 교육에서 학습의 위치를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에 따라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교육 자료이다. 교육과정이 국가적 수준에서 각급 학교가 가르쳐야 할 것을 제시한 법령(고시)으로 공포한 교육 내용이라고 본다면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의 교실 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보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한정된 일정량의 지식을 학생에게 습득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을 때 교육과정이란 선정된 지식을 질서 있게 조직, 배열한 것이었으며,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시키기 위한 교과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교육이 내용을 지식의 양에 두는 것보다 실생활에 필요한 경험을 중요시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자, 교과서란 언어적인 설명이나 풀이로서 일관하는 정적이고 평면적 교재가 아니라 동적이고 다양한 학습 활동을 이끌어 주는 교재로서, 학습 자료의 제시와 더불어 학습 방법까지도 암시하여 주는 것, 즉 교육과정에 대한 교재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더구나 지적 탐구를 강조하여 문제 해결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교육관이 대두됨에 따라 학문 영역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일

반 원리와 법칙을 스스로 발견해 내는 탐구 학습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게 되자, 교과서도 학생들이 공부할 최소한의 기본 개념이 담겨야 하고, 이러한 지식을 학생들이 재조 사하고 재조직하는 방법 및 탐구 과정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게 제 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제 4 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편되는 교과서는 새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잘 조직된 적정 양의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 교육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사고 과 정 중심의 자료’로 만든 것이다.

교과서는 학습 자료라는 성격 규명에도 불구하고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교과 내용으로 보 려는 인식이 강하였다. 이는 고사가 교과서 내용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사실 자료의 역할보다 내용 자체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는 한문책을 보는 관점이나 교과서의 성격을 보는 관 점을 동일시한 결과라고 본다.

교과서의 성격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한문 교재와 같이 교훈적 내용을 담은 책으로 보는 견해(교훈집)가 있고, 둘째는 배워야 할 내용을 모은 책이라는 견해(내용집)가 있으며, 셋째는 사고 과정이나 배울 방법을 배운다는 자료의 견해(자료집)가 있다. 우리의 교과서는 배워야 할 내용을 망라한 책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는 교과서의 내용이 상 급 학교의 출제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제 4 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교과서가 아무리 자료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상급 학교의 시험이 그 곳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자료 집의 기능을 할 수가 없었다.

2.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편

가. 교육과정 정신의 반영

제 4 차 교육과정에서는 그것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신을 설정하였다. 그 때 이것을 ‘교육과 정 정신’이라고 하였다. 교육과정 정신은 국민 정신 교육, 전인 교육, 과학·기술 교육이었 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새 교육과정은 지금까지의 교육과정 개정 사상 처음으로 유치원에서 고등 학교까지 하나의 전체적 구조 속에서 교과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었고, 기초 교육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이 적정하게 통합, 조정되었다.

첫째,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새 시대의 요청과 국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 정신 교육을 체계화시켰다. 이것은 국가 이념과 체제의 정당성을 인식시키는 지식·이론 교육과 국 가 이념 체제에 적응하는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정신·덕성 교육 및 공동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가치와 신념을 내면화시키고 실천하는 생활·훈련 교육을 적절하게 통합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둘째,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의 기본적 방향에서 요청되는 전인 교육을 강화하였다. 이것은 조화로운 인격 형성에 필요한 지(知)·덕(德)·체(體)·기(技)의 요소를 겸비하여 자주 적,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 내고자 한 것이다.

셋째,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고도 산업 사회를 지향하는 데 기반이 되는 과학 기술 교육을 강화하였다. 이것은 고도 산업 사회를 지향하는 데 기반이 되는 과학 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기초 기술 교육의 강화와 기술 교육의 생활화를 위한 요구가 새 교육과정에 반영된 것이다.

나. 개편 교과서의 특색

일단 교과서 편찬의 기본 방향은 교육과정 정신의 구현에 두었다. 이에 따라 교과서 개편에서 다음과 같은 특색을 고려하였다.

첫째, 교과와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였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편에서 가장 중점을 둔 기본 방침의 하나가 교육 내용과 수준을 학생의 발달 단계에 부합하도록 적정화한 것이다.

둘째,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 학교와 중학교의 전 교과서를 연구 개발형으로 한 것이다. 교과서의 질 향상을 위한 조치로서 교과서의 편찬 기본 계획은 문교부가 수립하여 연구·개발 기관에 시달하고, 연구·개발 기관에서는 교과서 연구 개발 계획에 의거해서 집필 세부 계획을 세워 문교부의 편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원고 집필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는 원고 집필과 검토, 수정, 보완, 협찬, 심의 등에 현장 교사 외에 교육 행정가, 장학·연구진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조치하여 지금까지 교과서 편찬에서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단행하였다.

셋째, 교과서의 내용 진술에서 단원 전개 과정을 개선하였다. 교과서의 단원은 ① 학습 과정의 안내, ② 학습 내용의 전개, ③ 정리 적용, ④ 확인 보충 등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① 학습 내용의 제시, ② 익힘 문제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번 개편에서는 교과서의 단원 전개에서 안내를 통하여 어떤 단원을 왜 배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학습 내용은 단원의 목적에 맞게 제시하며, 내용은 정리 적용을 통하여 이해하고, 학습 결과는 확인 보충을 통하여 점검하는 등의 단계를 거치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넷째, 교과서의 품질을 향상한 것이다. 교과서는 국가의 교육 이념이나 목적을 구현하는 수단이며 도구로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편찬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 또는 교육 목표와 학생을 결부시키는 매개물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쇄 자료인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품질 개선은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번 교과서 개편에서 판형, 지질, 제본 등을 개선하여 국제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은 점은 우리 교육사에 남을만한 교과서 정책의 발전이 될 것이다.

다섯째, 교과용 지도서를 전 교사에게 공급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교수·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것은 학습 지도의 길잡이가 될 구체적인 지도 지침이 바로 교사용 지도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사용 지도서는 교실 수업에서 학습 지도의 효율화와 교과서 활용에 대한 교육 연수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 교사에게 전 교과분을

공급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사용 지도서는 ① 교육과정을 해설하고 안내하는 연구 자료의 기능, ② 지도 내용을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학습 지도 자료의 기능, ③ 교수·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모아서 제공하는 참고 자료의 기능 등을 다 할 수 있도록 편찬하도록 하였다.

3. 교과서 편찬 방향

교과서 편찬에서는 교과서 제도, 교과서의 내용과 문장, 교과서의 제재와 품질, 교과서의 발행·공급 등을 광범하게 검토하여 개선하였다.

가. 교과용 도서의 내용

교과서는 교사나 학생이 학교 수업에서 활용하는 교재를 말하고, 교과용 도서라 함은 학생을 위한 교과서, 교사를 위한 지도서가 포함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10757 호, 1982. 3. 11.)에 의하면 “교과용 도서라 함은 교과서, 지도서 및 인정 도서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를 말하며,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1종 교과서)와 문교부 장관의 검정을 받는 도서(2종 도서)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주된 교재를 말하며,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1종 도서)와 문교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도서(2종 도서)로 구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 및 인정 교과서로 나누던 때가 있었다. 국정 교과서는 문교부가 책임지고 개발한 교과서를 말하는데, 이를 1종 교과서로 한 것은 대체로 국책 교과서와 소량의 부수를 발행하는 실업계 교과서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격을 합산할 때 소량의 부수를 발행하는 교과서와 대량으로 생산하는 교과서와 합산하여 교과서의 가격을 동일하게 하였던 것이다.

(1) 1종 도서의 저작·편찬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살펴볼 때, 교과서는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지는 1종 교과서와 문교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2종 교과서로 구분되며, 이들은 모두 문교부가 고시한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편찬 기본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1종 도서는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지는 국책 교과서와 실업계의 일부 교과서를 말한다.

- ① 국민 학교 교과서와 지도서
- ② 중학교 교과목 중에서 국어, 도덕, 국사의 교과서와 지도서
- ③ 고등 학교의 교과목 중에서 국어, 국민 윤리, 국사의 교과서와 지도서

- ④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목 중에서 제 2 호 및 제 3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과목으로서 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 ⑤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과목 중에서 제 2 호 내지 제 4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로서 검정 신청 또는 검정 합격본이 없는 것
- ⑥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 각급 학교의 교과목 중에서 문교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1 종 도서는 문교부가 편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 종 도서는 연구 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1 종 도서는 연구 개발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문교부와 교과서 연구 개발 기관이 편찬 업무의 기능을 과정별·인쇄별로 구분, 조정하여 심의, 수정, 실험, 보완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편찬, 생산하도록 하였다.

(2) 2종 도서의 검정

문교부의 편수 파동으로 인하여 많은 교과서를 국정으로 묶어 발행하였으나 제 4 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책 교과서만 두고 나머지 교과서는 검정으로 풀었다.

1 종 도서에 해당되지 않는 교과용 도서는 문교부 장관의 검정을 받는 2 종 도서로서 이는 학생용의 2 종 교과서와 교사용 2 종 지도서로 되어 있다. 2 종 도서는 문교부가 고시한 2 종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에 따라 저작된다. 이는 저작자와 법령에 규정된 실적이 있는 출판사와 약정하여 집필하고, 검정 심사본을 만들어 출원 신청하는 자유 경쟁형으로 소정의 검정 절차에 따라 각 단계를 합격해야 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하여 교과마다 출원 교과서 중에서 5 종의 합격본을 선정하였다.

나. 교과서의 내용 구성

교과용 도서의 저작과 편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교과용 도서 편찬 기본 계획이다. 이는 교과용 도서 편찬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서 연구 개발 기관에서 위탁받은 교과서를 저작, 편찬하는 데 기본 설계도가 된다. 또, 2 종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도 1 종 도서 편찬 기본 계획과 같이 2 종 도서 편찬의 기준이 되었다.

교과용 도서 편찬 기본 계획에서는 편수 파트의 교육과정 담당관실에서 일반적 지침을 개발하였고, 이를 근거로 교과 편수 담당자가 교과 편찬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하여 기본 계획으로 확정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 때 강조한 것은 교과서가 연구 개발형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많은 교과 전문가와 학교의 교사가 참여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던 것이다.

(1) 교과용 도서 편찬 기본 계획

교과용 도서 편찬 기본 계획에는 우선, 교과용 도서 편찬의 기저가 되는 교육과정의 해설

요약 및 교과용 도서의 개념 등을 분명히 하였다. 다음에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지침은 일반 지침과 세부 지침이 교과목별로 제시되며, 외형상의 제재 및 교과서의 체재(판형, 쪽수, 지질, 색도 등) 등이 명시된다. 특히, 이 때 교과서 편찬의 일반 지침에 교과서의 내용 구성에 필요한 단위 전개 양식을 제시하였다. 이는 연구 개발 기관의 교과서 제작 과정에 창의성을 기대하고 학습 효과를 올리기 위함이었다. 마지막으로, 예산상의 문제와 연구 집필·협의진 구성 및 집필 세부 계획 작성상에 필요한 지침을 만들어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 때 필자는 교과서에서 단원의 전개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그것은 사실 단위 전개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교과서의 질을 결정하고 교지 지도의 방법을 제시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교과 내용은 단원으로 이미 교과 과정에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주제의 나열일 뿐 실제 단원의 전개는 아니다. 일본의 교과서는 교사용 교과서이며, 미국 교과서는 자료집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의 교과서는 학생들 지도에 용이하게 되어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의 교과서도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의 자율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 자료를 만드는 데 주력하였다.

(2) 단위 전개 과정

교과용 도서 편찬 기본 계획의 일반 지침에 의하면 “단위 전개 체제는 단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다음에 제시된 단위 전개의 일반 체제를 골격으로 집필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 각 교과 단원의 일반 체제는 학생들의 자율 학습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있도록 가능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학습 과제의 안내, 학습 내용 및 관련 정보·방법의 제시(본문), 학습 내용의 정리·적용, 학습 결과의 확인·보충 등을 포함하였다. 이는 종전 교과서의 단위 전개 과정이 내용의 제시와 익힘 문제에 한정된 데 비하여 이번 교과서에서는 일반 지침에 4 단계가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① 학습 과제의 안내

교과서나 기타 교재에서는 학생들이 단원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가 필요하다. 이 안내는 왜 이 단원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표의 제시를 분명히 하면서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자 한 것이다. 종래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이 없으며 교사의 지도에 맡겨놓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안내 부분은 일반적으로 학습 목표의 제시, 선수 학습과의 관련, 문제 의식의 고취를 위한 동기나 흥미의 유발, 학습 내용의 개요 및 학습 방향 제시 등으로 구성한다.

② 학습 내용의 제시

교과서에서 이 부분은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에 해당된다. 이는 본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습해야 할 내용의 설명, 주요 내용과 관련된 자료(사진, 그림, 도표, 사례 등), 실험, 관찰, 조사, 표현, 감상 등 방법과 절차에 관한 지식과 태도 및 과정을 포함한다. 교과서의 본문이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교과나 단원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교과 단원에서 의도한 학습 경험을 용이하게 하려면 단위에서 가르치려는 인지적 요소 및 정의적 요

소와 그들 자료, 방법 간에 적절한 관련을 맺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③ 학습 내용의 정리 적용

교과서 단위 전체가 사고의 흐름에 적합하도록 구성된다면 대체로 주제의 뒷부분이나 단원의 끝 주제는 앞에서 배운 기초적인 몇 개의 개념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하고, 개념을 주변 현상에 적용하는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한 내용을 정리, 적용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주면 학습 내용의 파악, 일반화, 전이 등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문제를 제시하여 해결 능력을 높여 주거나 어떤 과제의 학습 결과로서 가치관이나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

④ 학습 결과의 확인·보충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사의 확인, 활동의 관찰, 질문지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교과서가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면 특별한 평가 자료 없이도 학생 스스로 학습 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또한 교사가 확인 질문 또는 관찰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단원의 주제와 관련되는 내용의 읽을거리를 제시하거나 스스로 찾아서 심화·보충 학습을 하도록 해야 한다.

위와 같은 모형을 만들 당시 전문 위원으로 계셨던 정진권 선생님에게 국어과의 한 단원을 개발하도록 부탁을 드렸다. 그분이 우선 국어의 모델 단원을 개발하고 후 이를 참고로 수학, 사회, 과학 등 교과에서 모델 단원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한 단원을 여러 단계를 거쳐 검토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교과용 도서 개발 기본 지침에 넣었던 것이다.

다. 교과서의 체제와 품질

교과서의 품질은 외형과 체제로서 나타난다. 편찬 계획에서부터 좋은 교과서를 만든다는 기본 계획이 서 있었다. 세계적 수준의 교과서를 만들기 위하여 선진국의 교과서를 참고로 출판 전문가의 조언을 얻었다.

교과서의 체제(體裁)는 외형적인 체제와 내용적 체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형적 체제로서는 판형, 쪽수, 활자, 지질 등이 있으며, 내용적 체제로서는 표지, 화보, 머리말, 차례, 본문, 색인 등이 있다. 이번의 교과서 개편에서는 내용면에서뿐만 아니라 외형면에서도 교과서의 품질을 개선하였다. 그리하여 교과서를 국제적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첫째, 국판 체제의 판형 교과서를 국민 학교 1, 2 학년과 음악, 미술, 서예 및 사회과 부도 등 각급 학교 전 학년을 모두 4·6배판(가로 18.8 cm×세로 25.7 cm)으로 하였으며, 물리·화학·생물·지구 과학 교과서는 크라운판(가로 17.5 cm×세로 20.5 cm) 크기로 하였다. 이것은 과거의 교과서가 거의 국판 체제였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4·6 배판 내지 크라운판으로 바뀌었음을 말한다. 필자는 교과서의 판형을 결정할 때 4·6 배판의 교과서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과학 교과서의 판형을 결정할 때 논의가 많았다. 과학 교과서는 내용의 설명보다 그림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수관들은 4·6 배판으로 요청하였으나 크라운판으로 결정을 보았던 것이다.

둘째, 지질은 미색 55g/m² 갱지에서 교과서에 알맞은 70g/m² 미색 중질지를 사용하여 품질을 개선하였다. 표지는 엠보싱 모조지 180g/m²를 사용하였던 것을 코팅 모조지 250g/m²를 사용하여 품질을 개선하였고, 본문도 갱지 50~59g/m²에서 70g/m² 미색 중질지를 사용하여 지질이나 인쇄를 고급화하였다. 지질의 선택에서는 외국의 교과서를 참고하여 수준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셋째, 제본 방법도 유선철식으로 되어 책을 펼쳐보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번에는 무선철식으로 바꾸어 학생들이 책을 읽기에 편리하도록 개선하였다. 책 제본에서 낱장을 묶는 방법으로 지질을 고려하여 특수 풀을 사용, 제본하는 방식으로 책의 낱장을 넘기면 넘기는 대로 대로 있게 하였다.

넷째, 색도(色度)도 국민 학교 1, 2 학년만 4 색으로 하였던 것을 국민 학교 전 학년을 4 색으로 하였다.

이는 교과서의 체재와 품질면에서 종전과는 다른 획기적 발전을 이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 교과서의 발행과 공급

교과서의 발행과 공급은 발행사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공평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다. 특히, 어려운 것이 1 종 도서의 발행권 부여에 관한 것이었다. 4차에 와서 국정은 국정 교과서와 일부 회사가 발행하였고, 나머지 교과서는 검정으로 발행하였다. 그러나 비록 검정 교과를 확대했다고 하더라도 특정 회사가 1 종의 발행권을 가짐으로써 출간에 관한 시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교부 장관은 교과서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 또는 인쇄, 제본 및 발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에게 1 종 도서의 발행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28 조), 이에 따라 국정 교과서(주)가 발행권을 부여받았으며, 또한, 여러 민간 회사가 업무의 대행을 맡았다. 그리고 2 종 도서는 검정에 합격한 출원 회사가 발행하였다. 학교장은 1 학기에 사용할 교과서는 당해 학기 개시 6 개월 전까지, 2 학기에 사용할 교과서는 학기 개시 4 개월 전까지 문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령하도록 되어 있다(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30 조).

교과서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과서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을 공급 대행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32 조), 이에 따라 지정된 공급 대행 기관인 국정 교과서(주)는 시·군 교육장의 관할 구역 단위로 공급 담당 사원을 주재시키고 있었다. 이 사원은 제 39 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에게 교과서를 지체없이 공급하여야 하고 비용은 공급 대행 기관이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

4. 결 론

교과서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교사를 위한 것인지

또는 학생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 교과서는 불행히도 양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는 교과서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학습 형태에 보다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 교육이 교과서의 기능을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 4 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통해 최대한으로 학생들의 자율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첫째, 교육과정 정신을 설정하여 교과 과정에 반영함은 물론 교과서 편찬에까지 적용하였다.

둘째, 연구 개발형의 교과서가 편찬되었다. 교과서를 연구 개발 기관에 의뢰하여 편찬하도록 하였으며, 교과서 편찬에는 종전과 달리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셋째, 교과서 편찬의 전문가가 교과마다 있었다. 특히, 실업계 교과서는 한 편수 담당자가 그 분야의 모든 교과서 편찬을 담당하였다.

넷째, 국정과 검정 및 인정 제도를 둬으로써 다양한 교과서 제도를 운영하였다. 특히, 제 4 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에서는 국정을 국책 교과서에 한정하고 나머지는 검정으로 돌렸다.

넷째, 교과서의 내용 단위 구성에서 학습 목표를 분명히 하였으며, 내용 구성과 적용을 다양하게 하였고, 학습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두었다.

다섯째, 교과서의 장점과 체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세계적 수준의 교과서가 되게 하였다. 교과서의 크기를 교과에 따라 다양하게 하였으며, 지질을 미색 종질지로 개선하였다.

따라서, 제 4 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에서 이룩한 교과서 집필 방식, 교과서의 체재와 내용 구성 등은 향후 교과서 편찬에 그대로 이어진 것도 있으며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23

〈1981~1983년 편수국장〉

참고 자료

- 교과서 연구 재단. '한국 편수사 연구(II)'. 2001.
- 문교부. '유치원·국민 학교·중학교·고등 학교 교육과정'. 서울: 문교부, 1982.
- _____. '유치원·국민 학교·중학교·고등 학교 새 교육과정 개요'. 연수 교재, 서울: 문교부, 1982.
- 정태범. '교육 혁신의 과제와 교과서 개선 방향'. 교육 개발(통권 제 4 호, 1981. 10.) : pp. 7~8.
- _____. '새 교육과정 어떻게 달라지나'. 문교 행정(통권 제 1 호, 1982. 1.) : pp. 45~53.
- _____. '교과서 정책 기본 방향'. 새 교육(통권 제 340 호, 1983. 2.) : pp. 52~92
- 한국 교육 개발원.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제 1 집, 제 2 집, 제 3 집, 서울: 한국 교육 개발원, 1980. 12.

식민주의사관 경쟁에 휘말렸던 국사 교과서

■ 1부 / 역사·문화 (전 서를 「민족문화해독」 「국사」)

필자가 문교부에 몸담았던 13년 동안(1980~1992년)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안호상 씨를 비롯한 세칭 재야 학자들과 기존 학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식민주의사관’ 논쟁이었다. 이는 논쟁의 와중에 재야 학자들의 주요 공격 목표와 쟁점이 되었던 것이 중·고 국사 교과서이었기 때문이다. 재야 학자들은 기존 학계의 학자 개개인을 선정, 상대하여 공격하기보다 기존 학계의 연구 합작물이라 할 수 있는 국사 교과서를 공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교과서에 과장적인 공세를 취하였다. 당시에 국사 교과서 내용 문제는 학계뿐만 아니라 세인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모든 언론 기관에서 대서 특필하였다.

국사 문제가 세간에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76년, 안호상 씨를 비롯하여 임승국, 박시인 씨 등이 박창암 씨가 발행하는 ‘자유지’를 통해 기존 국사학계를 식민주의사관론자라고 비난하면서부터이다. 특히, 이들은 원로 사학자인 이병도, 신석호 씨가 일제 시대 때 조선사 편수회에 참여한 사실 등을 들어 이들을 식민사관론자라고 매도하고, 이들에 의해 형성된 현 국사학계도 같은 부류라고 공격하며, 이를 언론에서 취급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 국사 교과서 내용 시정 건의서 제출

이러한 속에서 1978년에 안호상 씨는 국사 교과서 내용 시정에 관한 건의서를 대통령, 국무 총리, 문교부 장관에 제출하였다. 이 건의서의 주요 내용은 주로 고대사에 관한 것으로서 ‘고조선의 강역 문제’, ‘단군신화 문제’, ‘한사군의 위치 문제’, ‘백제의 중국 지배 문제’ 등으로 기존 학계의 통설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이 건의서를 받은 문교부는 건의서를 국사 편찬 위원회(국편)에 보내 관계 학자들과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이에 국편에서는 국편 위원 및 관계 학자 20여 명을 소집하여 건의문을 검토하고 이를 반박하는 검토 의견서를 만들어 회신하였다. 국편은 회신문에서 “건의문의 내용은 역사의 발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료에 대한 충분한 비판과 해석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인접 과학인 고고학의 뒷받침이 전혀 없고 근본 사료가 될 수 없는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자료만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 더욱이 교과서는 국민 교육에 가장 기본적인 교재이므로 새로운 학설이 제시된다 하여도 학계의 정설로 정립되기까지는 교과서에 수록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회신을 받은 안호상 씨 등은 기존 학계의 학자들은 자기들이 제시한 중국 원전 사료들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 일본인들이 식민주의사관에 의해 왜곡한 고대사 인식 체계의 틀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2. 국사 교과서 소송

안호상 씨 측은 자기들의 주장이 문교부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법원에 제소하였다. 이 소송은 안호상 씨 외 2인이 공동으로 용태영 변호사를 소송 수행자로 하고 문교부 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 소송과 민사 소송이었는데 재판은 2년여 동안 계속되었다. 필자도 재판 진행 중에 편수관으로 발령받아 소송 수행자로 문교부 고문 변호사인 최광를 씨와 법원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았다. 재판은 대략 한 달 간격으로 계속되었는데 법정에서 실제로 재판을 받는 시간은 짧았지만, 법원에서 요구하는 많은 자료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바쁜 일상 속에서 매달 며칠씩 재판을 위한 준비와 뒤풀이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이 아깝고 귀찮았다.

특히, 원고측에서는 교과서 집필자를 증인으로 요구하는 바람에 이들에게 법정 출두 요구서가 날아들곤 하였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필자에게 자주 항의성 전화를 하였고, 출두하기 싫어하는 이들을 설득해서 법정에 데려가는 것도 큰 일이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뒤에는 증견 학자들이 교과서 집필을 기피하게 되어 집필자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재판은, 증인이 없을 때에는 피고 소송 수행자인 필자나 원고인 안호상 씨가 재판장의 몇 마디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기도 하였다. 선고가 있기 마지막 재판서 재판장은 필자에게 원고측의 주장은 우리 고대사를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미자는 것이고, 이를 국사 교과서에 수록하여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필자는 “교과서는 학문적인 연구가 미흡한 내용, 즉 학계에서 정설화되지 않은 내용은 수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을 교과서 집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 내용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현재 학계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소수 의견이기에 수용할 수 없다. 원고측이 학문적인 연구를 보다 깊게 하여 그 주장을 학계에서 정설로 수용하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외도 필자와 재판장 사이에 몇 가지 질의와 답변이 오간 후 이 날의 재판은 끝났다.

다음 달 학문적인 내용은 사법적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년여 동안

계속된 재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안호상 씨가 제소한 재판은 막을 내려 시원 하였지만, 국사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재판이 하나 더 남아 있었다. 이는 황상기라는 사람이 제소한 것으로, 자기 아들이 서울 고등 학교에 다니는데 잘못된 국사 교과서로 교육을 받아 피해를 받고 있으니 이 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국사 교과서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재판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필자만 소송 수행자로 법원에 계속 나아가 재판을 받았고 이 재판도 뒤에 2년여 만에 끝났다.

3. 제4차 교육과정과 국사 교과서 편수

필자가 편수관으로 문교부에 몸담았던 1980년은 제4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시작되던 때이다. 그런데 이 때에 교육과정 개정 작업과 병행하여 새 국사 교과서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원래는 새 교육과정이 고시된 뒤에 이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 개정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때에는 변칙적으로 교육과정 개정에 앞서 국사 교과서 개편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당시 사용하던 국사 교과서가 식민주의사관 논쟁에 휩싸여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세간에 알려져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었기에 새 교육과정 고시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 새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사 교과서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교육과정 개정 작업과 동시에 국사 교과서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필자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정 작업을 함께 진행하는 어려움도 어려움이었지만 이보다 재야 학자들의 과장적인 공격으로 정말 힘들었다. 이는 국사 교과서 개편 소식을 들은 안호상 씨를 비롯한 재야 학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강력한 공세를 펴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 동안 학생과 군인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강연회를 개최하고 책자를 보급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자기들의 학설에 대한 상당한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특히, 재야 학자들의 기관지처럼 되어 있던 박창암 장군이 발행하던 ‘자유지’가 군인들의 정훈 교재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이것이 군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컸다. 더욱이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심정적으로 재야 학자의 학설에 동조하고 있던 젊은 영관급 장교들이 정부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문교부에 유형, 무형으로 압력을 가해 왔다. 이러한 압력은 필자에게 집중되었는데, 주로 방문 항의, 다수인을 동원한 민원 제기, 정계 인사를 동원한 압력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이 가운데 제5공화국 정부의 실력자들인 영관 장교들은 장관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들 영관급 장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국사 교과서는 국민들에게 민족 의식과 민족적 자부심, 긍지를 심어 주는 민족 경전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국사 교과서 내용은 학문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이라도 국민 교육용으로 필요하다면 수록하여야 한다. 구약 성경 내용은 믿을 수 없는 내용도 많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자기들의 고대 역사 교과서로 활용하고 있으니 우리도 재야측 주장을 교과서에 수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물론 국사 교과서가 국민 교육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국사 교과서는 단순한 학문적인 내용보다 역사 교육이라는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도 학문이요 과학인데, 국민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학문적 연구도 미흡하고 확증적인 자료도 없는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근 재야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에는 사료 비판이나 고고학 등의 뒷받침이 없어 학계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학계의 연구 성과에 의해 이것이 학계의 정설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과서이기에 재야측의 주장도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수용 가능한 내용은 수록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래서 지금 개발하는 국사 교과서 내용이 현행 교과서보다 좀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서술이 되도록 노력하겠노라고 평상시 필자가 가지고 있던 소신을 피력하곤 하였다.

이러한 유형, 무형의 압력이 필자를 상당히 정신적으로 괴롭혔지만, 필자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교과서 개정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였다.

4. 국사 교과서 국회 공청회

안호상 씨는 자기들의 주장이 쉽게 교과서에 수용될 것 같지 않자 이 문제를 국회에 청원으로 제기하였다. 그래서 국사 교과서 시비는 입법부로 옮겨 가게 되었고, 이 문제는 새롭게 국민들에게 큰 관심거리로 부각되었다.

이 청원은 청원자를 안호상 씨로 하고 소개 의원을 권정달 의원 외 18인으로 하여 ‘국사 교과서 내용 시정 요구에 관한 청원’이란 이름으로 국회 문공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 청원서의 요지를 보면 현 초·중·고 국사 교과서에는 일제 시대 식민사관에 의해 왜곡된 내용이 많아 올바른 국사 교육과 민족 자존심 형성에 심한 해독을 끼치고 있으므로, 국사 교과서에 허구적인 내용이 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사의 고질 점으로 단군의 실존 문제, 고조선의 영역 문제, 한사군의 위치 문제, 백제의 중국 지배 문제, 통일신라의 영토 문제 등 과거부터 주창해 온 설과 같은 내용, 즉 고대사에 관한 것을 들었다.

이 청원서를 받은 국회 문공 위원회는 수차에 걸쳐 필자와 청원자를 불러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다. 여기서 필자는 청원자들이 제기한 문제는 편수관을 비롯하여 집필자들이 잘 알고 있는 문제이므로 이번 교과서 개정 작업시 충분히 검토하여 수용 가능한 내용은 받아들여려고 있다. 그런데 이를 국회에서 청원으로 받아들여 적부를 심사해 교과서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비해 청원자측은 청원 심사와 의결을 거쳐 청원 내용의 즉각적인 교과서 반영을 주장하였다.

국회 문공 위원회는 이러한 학문적인 내용을 국회 의결을 거쳐 교과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하에 먼저 양측의 주장을 듣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공청회에 대해 정책 문제가 아닌 학문적인 내용 문제를 공청회를 통해 전공 학자가 아닌 국회 의원이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교과서 등재 여부

를 결정한다는 것은 하나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공청회 불가를 주장하였으나, 문공 위원회는 공청회 개최를 결국 확정지었다. 이러한 문공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측은 발표자를 기존 학계측 8명, 재야측 3명, 발표 일자를 1981년 11월 26~27일 양일 간에하기로 합의하였다. 기존 학계측은 국편 위원을 중심으로 중진 학자로 최영희(국편 위원장), 김철준(서울대), 이용범(동국대), 김원룡(서울대), 전해종(서강대), 이기백(서강대), 이원순(서울대), 안승주(공주대) 교수로 결정하고, 청원자측은 안호상(국사찾기 협의회 회장), 박시인(서울대), 임승국(한국정사학 회장)으로 결정하였다. 이 국회 공청회는 문공 위원회에서 국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행사로 치르기로 하여 일반인의 방청을 제한하였기에 때문에 기존 학계측의 발표자들은 심리적인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언론 기관이나 국민의 관심은 대단하여 신문과 방송에서는 대서 특필하였다.

공청회는 11월 26일 오후 2시에 국회 문공 위원회 회의실에서 한병채 문공 위원장의 사회로 국회 문공 위원, 청원 소개 국회 의원, 문교부 장·차관, 양측 발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공청회는 한병채 위원장의 개회사와 이규호 장관의 '역사의 의미'라는 주제로 인사말을 한 후 양측 발표자가 발표를 하고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상당히 열띤 공방이 계속되었다. 기존 학계의 발표자들은 별로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던 데 비해 재야측 발표자들은 이러한 자리를 만든 것에 대해 상당히 뿌듯한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특히, 국회에 처음 나와 보는 대학 교수들은 생소한 분위기에 상당히 당혹해하는 것 같았다. 또, 일부 국회의원들은 학자들을 국회에 불러다 놓고 정부 관리들에게 하듯 공격적이고 면박성 질의를 하여 이를 보고 있는 필자를 곤혹스럽게 하기도 하였다.

이 공청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한국사 가운데서도 주로 고대사 분야에 관계된 문제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국사 교과서 내용에 한정된 문제라기보다 현 우리 국사학계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이었다. 그런데 고대사 분야에 대한 현 우리 학계의 실정이 연구 인력의 부족, 사료의 부실 등으로 재야 학자의 주장을 학문적으로 압도할 만한 연구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재야 학자들의 주장은 많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국민 정서상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었다.

더욱이 기존 학계에 몸담고 있는 학자들은 학문적인 고고성만을 내세워 대학이나 폐쇄적인 학계의 울타리 속에 파묻혀 대중과 유리된 채 안주하고 있었던 데 반하여, 재야 학자들은 학문적으로는 미숙하더라도 대중 매체나 대중과의 접촉을 통해 국민들에게 깊숙이 파고들어 많은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래서 공청회 과정 중에서도 재야 학자들은 극히 공격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대중성 있는 내용을 발표하여 국회 의원들로부터 호응과 지지를 얻어낸 데 비해 기존 학계의 발표들은 극히 수세적인 입장에서 기존 학설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내지 못하여 국회 의원들로부터 공격성 질의와 수모를 많이 받기도 하였다.

이는, 기존 학계의 학자들이 전공 학자들과 함께 하는 학술 회의에서의 발표에는 익숙하나 국회 의원 같은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적인 발표에는 미숙하였던 점도 원인 가운데

데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 기존 학계에서 재야 학자들의 주장을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 이 내용들을 학문적인 연구 바탕이 전혀 없는 아마추어 사가들이 만들어 낸 황당무계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하려고만 했던 것도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국회 문공 위원회는 공청회가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여 2차 공청회를 계획하고 발표학자 선발을 의뢰하여 필자에게 걱정거리를 또 하나 안겨 주었으나, 국회 자체의 사정으로 무산되어 한시를 놓았다.

필자는 공청회가 끝난 뒤에 여기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여러 대책을 만들어 내었다. 이중 주요한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학술회 개최

국사 편찬 위원회와 정신 문화 연구원으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다루어졌던 고대사를 주제로 하는 학술회를 1년에 2회씩 개최하도록 하여 한국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를 학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루도록 하였다.

나. 국사 교육 심의회 구성

한국사 교육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문교부의 상설 기구로서 국사 교육 심의회를 설치하였다. 이 기구는 일제의 식민지 교육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재야 학자들에 대한 선입견을 덜 가지고 있는 40대의 참신한 소장 학자로 구성하여 국사 문제에 새로운 시각을 갖고 접근하여 변화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 기구에는 일반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 이외도 국사 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군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삼군 사관학교의 역사 담당 교관인 현역 군인도 참여하도록 하였다. 뒤에 이 기구에서는 국사 교과서 내용뿐 아니라 정부의 역사 교육에 대한 정책 건의도 하여 우리 나라 역사 교육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어쨌든 이 공청회로 국사학계가 고대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국사 교과서에 재야 학자들의 주장이 일부 수록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의 수확이었다. 대신 공청회에 참여한 일부 학자들이 국회에서 받은 충격 때문에 교과서 개발에 참여를 기피하는 등 후유증을 남겨 주었다.

5. 맺는말

이 뒤에도(주로 제 4, 5차 교육과정기) 재야 학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회 의원 및 각종 단체들을 동원하여 각종 방법으로 필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왔다. 이들은 정치인을 앞세워 문교부 장관을 찾아와 장관실로 필자를 불러 국사 교과서 수정을 강요하고 집회도 열고 언론 기관을 동원하여 필자의 퇴진까지 요구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1986년에는 ‘민족사 바로잡기

국민 회의'라는 단체가 조직되면서 그 이전보다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이 단체는 윤보선 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부의장에 이종찬(민정당 민족사관 정립 추진 위원장), 정성태, 윤태림, 구상, 김은호, 이종남, 이재근으로 하고, 고문으로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최규하, 허웅, 이강홍, 윤길중, 김동리, 윤치영, 이희승 등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의 지도급 인사로 하고, 위원으로는 저명한 국회 의원, 교수 등을 참여시켜 조직하였다. 이들은 윤보선 씨 댁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정부 종합 청사 부근에 사무실을 열고 상근 직원까지 고용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이 단체는 여러 곳으로부터 재정적 지원도 충분히 받고 있는 것 같았고, 현실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참가하고 있어 그 영향력은 막강하였다. 이들은 장관을 수시로 찾아왔고 장관을 만난 뒤에는 필자의 방으로 몰려와 국사 교과서 내용 수정 요구를 하곤 하였다. 장관실에서도 이들의 잦은 방문에 곤혹스러워했지만 이들이 집권당 실력자나 현직 국회 의원을 앞세웠기에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이들과의 대화에는 엄청난 인내가 요구되었다. 이들은 필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보다 국회에서 행정부 관리를 몰아세우듯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힐난성 질문만을 남발하여 사람을 엄청나게 피곤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속에서 필자는 국사 교과서 편수에 대한 평상시 소신을 지켜가면서 예정대로 교과서 편찬 업무를 진행하였다. 어쨌든 제 4, 5 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서는 이러한 시련을 겪어가면서 출판, 공급되었지만 뒤에 학계나 언론계로부터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필자가 자기 소신을 지켜가면서 교과서 편수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장관(이규호, 손재석)들이 편수직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22

〈1980~1992년 역사 담당 편수관〉

장미 중심 만원 다정이며 바른 국어 교과서

■ 정준섭 (전 문성중학교 교장)

제 4 차 교육과정기의 국어 교과서는 오늘날처럼 교과 교육학의 튼튼한 이론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던 시기의 교과서이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국어 교과서의 특징을 살려 보고자 노력했던 교과서이다. 시대적으로도 전 세계가 교육 개혁의 열풍에 사로잡혔을 때이며, 국내적으로도 통합 교과서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을 때이다. 다사다난했던 이 시기 국어 교과서는 제 5 차 교육과정기의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이제 제 4 차 교육과정기의 국어과 편수 행정에서 특징적이었던 일을 몇 가지 적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초등 학교 1~2 학년에서 국어 교과서가 없어진 일이다. 그리고 ‘바른 생활’이란 통합 교과서가 나왔다. 처음 통합 교과서 편찬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좋았다. 그러나 국어 교육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른 생활’ 교과서는 실패작이었다. 그것은 초등 학교 저학년에서의 기초 기능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교육과정의 통합이 없는 교과서의 통합 때문이었다. 이러한 ‘바른 생활’ 교과서에 대한 한철우 교수(현 한국 교원 대학교)의 이야기는 당시의 우리 국어과 교육의 현실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는 제 4 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통합 교육과정이다. 제 4 차 교육과정의 최대 이슈는 통합 교육과정과 통합 교과서였다. 그 중에서도 국어와 도덕, 사회가 통합한 ‘바른 생활’이었다. 처음에는 괜찮을 듯싶던 ‘바른 생활’이 끝내는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어휘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준섭 편수관과 나는 제주도 출장을 가게 되었다. 물론, 제주도만이 아니라 마산, 목포 등으로 출장을 갔었다. 통합 교육과정은 우선 저학년에 시도되었는데, 교과서로 나타난 것은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었다. 바른 생활은 국어, 도덕, 사회가 통합된 교과서이고, 슬기로운 생활은 산수와 자연, 즐거운 생활은 음악, 미술, 체육이 통합된 교과서였다. 당시 통합 교육과정은 교육학 전공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주창하였고, 교과 분야 연구자들은 불만스러운 입장이었지만 그저 따라가는 형국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안타

갑고 슬프기까지 한 일이지만, 당시만 해도 교과에는 소위 교과 내용 학자는 있었지만 교과 교육학자는 거의 없었다. 그만큼 교과 교육학 연구가 기초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국어 교육만 해도 당시에는 국어학과 국문학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국어 교육은 국어 국문학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교육학으로부터도 한 수 아래로 치부되는 터였다. 그만큼 학문적 토대가 약했던 것이다. <중략> 그런 형국에서 한국 교육 개발원의 분위기는 교육학 전공자들, 특히 미국 박사 교육학자들이 주도하였고, 교과 교육 연구원들은 이론의 취약성 때문에 무슨 말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론적 논쟁에서 밀리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그 통합에 대한 이론적 배경도 우리는 없었다. (2000, '통합 교과서와 장르별 단위 구성 교과서', 정준섭 명예 퇴임 기념 문집 「국어 교육 사랑(상)」, pp. 8~9,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이러한 형편 때문에, 우리는 제 4 차 교육과정 시기에 초등 학교 저학년에서 국어 교과서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국어 교육학의 연구가 급속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드디어 제 5 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 학교 저학년에서 국어 교과서를 다시 갖게 되었음은 물론, 나아가 1 교과 1 교과서의 전통적 생각을 깨고, 국어 교과에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의 세 교과서 체제가 생기게 되었다.

둘째는 1982. 7. 24. 한국 일보 제 7면의 “‘유관순 누나’는 어디로 갔나요?” 사건이다. 한국 일보의 장명수 문화부 차장은 ‘여기자 칼럼’에서 “지난 봄에 개편되었다는 일본 고교생의 교과서를 놓고 우리 나라와 중국이 크게 분개하고 있다. 일제에 짓밟힌 36 년이 우리에게 ‘치욕의 역사’이듯이 남을 짓밟은 역사 또한 ‘부끄러운 역사’였든지 그들은 자기 나라의 침략사에서 되도록 핏자국을 덮어서 ‘피비린내가 덜 나는 역사’로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의 3·1 운동을 ‘폭동’으로, 중국 침략을 ‘진출’로, 20 만의 중국인을 죽인 남경의 학살을 ‘피해를 입고 격노한 일본군의 살해’로 각각 왜곡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침략 당했던 나라들이 분노할 일일 뿐 아니라 일본의 양식 있는 사람들 또한 개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아무리 일사불란을 자랑하는 일본 국민이지만 역사를 왜곡하여 자식들을 속이려는 거짓말에까지 일사불란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일본 교과서 소동’ 속에서 강원도 산골(화천군 놀미 초등 학교) 진병환 교장 선생님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하였다. “일본 교과서를 가지고 떠들기 전에 우리 교과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나는 금년 봄에 개편된 3학년 국어책을 보고 울었다. 새 학년 새 학기 국어책의 첫 장에 나오던 ‘유관순 누나’에 대한 글이 온데간데없었다. 일본은 우리의 3·1 운동을 ‘폭동’이라고 가르친다는데, 우리는 책에 들어 있던 ‘유관순 누나’까지 빼버리면 어찌자는 것인가. 이려고도 민족 주체성을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중략> 일제 시대에 젊은 날을 보낸 그가 ‘유관순 누나’가 없어진 국어책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올해 1, 2, 3 학년 교과서를 개편하면서 ‘유관순 누나’를 빼버린 문교 당국의 뜻은 무엇이였을까. 치욕의 역사이든 혐오스러운 역사이든 간에 그 누가 역사를 가릴 수 있단 말인가. 3월의 새 학기 국어책 첫 장을 펴들고 ‘나는 지금 파란 3월 하늘을 바라보며……’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교장 선생님의 마음에 국민으로서의 한 표를 던지고 싶다.”라고 썼다.

같은 해 7월 26일(월) 08시 MBC 뉴스 후의 ‘홀런 출발’에서도 위와 동일한 내용이 방송되었고, 한국일보 8월 3일(화) 6면에서는 김경수 목사가 문교부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통하여 ‘유관순 누나’를 국어책에서 왜 뺐느냐면서 교사, 학부형의 흥분을 아느냐고 힐책하고 있다. 같은 면에서 ‘여기자 칼럼’을 통하여 장명수 문화부 차장은 다시 한 번 ‘더욱 아쉬운 시 한 편’이란 글로 ‘유관순 누나’를 다시 교과서에 실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리고 8월 하순에는 3·1 여성 동지회에서 ‘자라나는 제 2 세 국민들의 가슴마다에 우리 조상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깊이 심어 주고 민족혼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초등 학교 국어 교과서에 유관순 열사의 생생한 독립 투쟁을 좀더 구체적이고 감명 깊게 수록해 달라는 민원을 보내 왔다. 또, 9월에는 대한 YWCA 연합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보내 왔다.

당시 문교부 인문 과학 편수관실에서 본인이 작성한 ‘유관순 누나’를 뺐 이유는, 「1. 국민 학교에 들어와 이제 처음으로 국어 교과서를 맞이하는(1~2학년에는 국어 교과서가 없음.) 3학년 학생들에게는 그 발달 단계로 보아 ‘삼월의 하늘’이라는 시의 내용이 너무 이념적이고 그 주제가 무거워 자칫 국어 교과에 대한 흥미를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2. 아동들의 흥미를 끌면서도 국민 정신 교육의 효과를 잘 거둘 수 있는 음악 교과서에서부터 노래로써 유관순 열사를 익히게 하고자 함이었습니 다, 3.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더 높이 고양하고자 함이었습니 다. 그래서 현행 고등 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찬양하는 시(박두진의 ‘3월 1일의 하늘’)를 실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4. 민족의 항쟁사는 대단히 중요한 교육 내용이니만큼 초등 학교에서 고등 학교에 이르는 전 과정에 고루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 침략과 민족의 독립 운동(항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교재를 현행 각급 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생략(윤봉길, 안중근, 이상재, 안창호, 광낙원, 김마리아 등에 관한 글과 기미 독립 선언문, 순국선열 추념문 등 다양한 내용이 실려 있음.)-」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이러한 변명을, 국어책에서 ‘유관순 누나’가 빠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주지를 않았다. 심지어는 청와대나 국회 문공위에서 문제가 되고, 담당 편수관이 일본의 로비를 받고 상당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소문까지 나돌게 되었다. 당시 본인은 1982년 4월 6일자로 부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내 전임자는 문제가 달랐다. 나는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임자를 방문하였다. 그는 말없이 자기가 결재본으로 확정하였던 3-1 국어 교과서를 내놓았는데 거기에는 ‘유관순 누나’가 들어 있었다. 물론 국정 교과서(주)로 넘어간 결재본에는 ‘유관순 누나’가 없었고, 내용도 상당히 달랐다. 나중에 확인된 사항이지만, 내 전임 편수관이 떠나고 본인이 부임하기 전에 개발 기관에서 만들어 온 것을, 앞에서 제시한 ‘유관순 누나’를 뺐 이유로 그대로 국정에 넘겨 주어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 문교부의 교과 담당 편수관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점을 깨달았다. 편수관은 시대 분위기는 물론, 사회적 분위기까지도 잘 파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개발 기관의 지나친 의욕도 적당히 조절할 수 있어야 함을 알았다. 결국 이 사건은 4-1

국어 교과서에 ‘유관순 누나’를 다시 심기로 했다는 문교부의 발표로 언론 기관과 시민 단체의 공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셋째는 1982년 8월 20일자, 감사원 사무처에서 문교부 장학 편수 실장에게 보내온 ‘질문서’에 대한 이야기다. 감사원은 제 2 국 제 2 과장의 명의로 다음과 같은 공문서를 보내왔다.

“1981년도에 편찬하여 1982년도에 실험 학교의 실험을 거쳐 평가한 후 1983학년도부터 전국 초등 학교 학생들에게 공급하기로 한 초등 학교 4, 5, 6 학년 실험용 교과서를 편찬 및 공급함에 있어, 새로이 편찬한 교과서를 전 학생에게 일시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실험 학교를 지정하여 실험용으로 실험을 하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교과 과정 및 개편된 내용을 수록한 교과서를 일시에 공급하여 수업을 하도록 하였을 경우에 발생하기 쉬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교육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험용 교과서는 학기 수업 개시 및 이전에 학생들에게 공급하여 소정의 수업 시간 동안 충실하게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초등 학교 4, 5, 6 학년 1 학기 수업 개시일인 1982년 3월 2일 이전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수업 개시 5 주 후인 1982년 4월 6일에야 실험 학교에 공급함으로써 실험 학교에서는 동 학기 동안 수업 시간 절대 부족으로 실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교육 효과면에서도 크게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며, 실험 학급 담당 교사들은 수업 계획서를 이증으로 작성하게 되어 그렇지 않더라도 교원 업무가 과중한 현 시점에서 교원 업무를 더욱더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실험용 교과서를 1 학기 수업 개시 및 이전에 공급하였더라면 공급할 필요가 없었던 현행 교과서를 공급함으로써 실험 학교 4, 5, 6 학년 학생 25,724명(교사용은 제외)에 대하여 공급한 현행 교과서 대금 26,484,810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 바, 1. 이 건 실험용 교과서의 공급이 지연된 것은 교과서 편찬이 늦어진 데 기인한 것인 바, 각 과목별로 편찬이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교과서 편찬 일정을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실시하실 것), 2. 이 건 앞으로의 처리 대책, 3. 이 건 교과서 이증 지급으로 인하여 낭비된 예산 26,484,810원에 대한 처리 의견, 4. 이 건 편찬에 관련된 책임자, 보조자의 소속, 직·성명, 관리 기간, 담당 업무 및 현 근무처, 5. 만약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면 당초의 처리가 정당하였음을 소명하는 증거 서류 및 의견을 제출하실 것.”

당시 교과 담당 편수관들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답변서로 일관하였고, 결국 감사원도 편수국장과 각 편수관에게 경고를 주는 데서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편수관실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나는, 직접 경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큰 충격을 받았다. 실험본 교과서를 제때에 공급하지 못해서 생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 볼 수 있었다. 이후, 나는 교과서 편찬 계획의 수립과 진행, 그리고 결재본의 작성 제출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 편수관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가는 데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끝으로, 장르 중심 단원 구성의 국어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한철우 교수의

글(앞의 같은 책, pp. 10~11)로 대신하고자 한다.

제 4 차 교육과정의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제 3 차 국어 교과에서의 주제 중심 단위 구성과는 달리 장르 중심 단위 구성이었다는 것이다. 주제 중심 단위 구성과 장르 중심 단위 구성은 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제 1~3 차 교육과정기까지 국어 교과서는 주제 중심 단위 구성 체제였다. 주제 중심 단위의 구성 체계는 국어 교육에서 무엇보다 주제를 강조하게 되었다. 주제 중심의 국어 교육은 이념 중심의 국어 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덕, 역사, 사회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이 자주 가르쳐지고 강조되기 쉬웠다. 즉, 국어 교과서의 여러 가지 종류의 글들은 효도, 우정, 절약, 봉사, 바른 인간, 자연 보호, 공중 도덕, 교통 질서, 애국, 반공 등의 주제를 가지고 있게 마련인데, 주제 중심 단위 구성은 자연스럽게 이런 주제를 강조하는 국어 교육을 하게 되어, 국어 수업 내용이 도덕 시간이나 역사 및 사회 교과의 교육 내용과 같게 되는 것이다.

국어 교육에서의 이념 또는 가치관 교육의 강조는, 국어 교육이 ‘언어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하여 왔다. 국어 교사들은 국어 능력의 신장보다는 올바른 인간을 교육하기 위한 가치관 교육에 더 전념하여 국어 교육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가치관 교육은 어느 교과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특히 도덕·사회·역사 등의 교과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미술, 음악, 수학, 과학 등의 교과는 각기 고유한 목표가 있으며, 가치관 교육은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국어 교과는 이들 교과보다는 이념 교과에 더 가깝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국어 교육의 중심 목표는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성, 즉 가치관 교육이 국어 교육의 중심이 아니라는 반성과 함께, 국어 교육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던 몸부림의 결과가 장르 중심 단위 구성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근래에 텍스트 중심 단위 체제니, 장르 중심 단위 구성이니 하는 박사 학위 논문이 나오는 것을 보면, 당시에 장르 중심 교과서 체제를 구상한 것이 국어 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를 하였으며, 또 바른 선택이 아니었나 한다. 24

〈1982~1994년 국어 담당 편수관〉

제 2 외국어 편수관 수 二話

■ 편 / 양 원 (전 어문중학과 (교장))

一話 : 국가 민족의 中興의 源을 담고

1983년 9월 ○일, 米승우 씨가 18 층 편수실에 나타났다는 전갈이 왔다. ‘무슨 일이 있구나.’ 직감을 하고 편수관들은 긴장했다. 그가 우리 방에 불쑥 들어와서는 대뜸 “일이 담당이 누구입니까?” 하더니 내 앞에 섰다.

“당신 대한 민국 편수관 맞습니까?”

“?”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냥 불렀습니까?”

‘아빨사, 아 그거였구나!’

나는 米승우 씨의 쏘아보는 눈초리를 피해 뚫뚫 주저앉았다. 순간 S 출판사 ‘일본의 국토(日本の 國土)’ 단원에서의 ‘東海’로 표기해야 할 것을 日本海로 한 것을 상기했다.

米승우 씨는 동아 일보 편집 기자 출신으로 교정 업무에 조예가 깊었다. 일제 시대 중등 교육을 받은 50 대 초반의 좀 키가 큰, 마른 얼굴에 늘 상기된 표정을 짓고, 교과서 오류를 적은 패선지를 편수관들에게 내밀고는 호통치는 자칭 ‘교과서 연구가’였다. 3 년 전부터 편수국 왕래가 있었다. 말썽 많은 국어 표기부터 식물명의 오류 등을 들고 와서는 한바탕 편수관을 들췄고 갔다.

“교과서가 오류투성이다.”라고 신문에 나면 담당 편수관은 물론 교과서 권위가 훼손되어 정부 기관의 권위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편수관들은 잘 알고 있었다. ‘막아야 된다’는 일념으로 편수국에서는 제 4 차 적용 검인정 교과서 검토 위원을 위촉하고 교과서 오류 사항을 지적하여 오도록 했다. 그것은 米 선생의 가정 경제에도 일조를 하겠지만, 편수관의 기를 꺾고 매스컴을 탄다면 편수국장 부럽지 않은 위상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가 지적한 것이 채택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애매 모호한 것이 많아 담당 과목 편수관은 병어리 냉가슴 앓듯 하면서 오류 검정에 동분서주했다.

제 4 차 적용 교과서 집필에는 당해 외국어 국제 이해를 도모하고 우리 나라 문물의 발전상을 기술한 단원을 삽입하도록 하

였다. 민족 의식의 고양이나 무역 입국으로의 경제 도약상을 4, 5 단원 확보 조직하는 것인데, 그것은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나 통과 후에도 단원 분석을 통해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일본어 교과서의 단원 제목을 살펴보면 ‘한국의 계절’, ‘무궁화’, ‘서울 타워’, ‘제주도’, ‘서울 올림픽’, ‘다보탑의 그림자’ 등 다소 온건한 소재의 내용도 있지만 1978년에 개발해서 제 4차 적용 검인정과 함께 사용한 국정 ‘일본어’ 교과서에는 ‘평화 통일의 길’,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 등 쇼비니즘 경향의 내용도 상당수 있었다. 오류 문제는 바로 이런 단원들에 있었다. 소재를 이루는 기초 자료는 관광 안내 책자나 정부 정책 홍보 자료 등을 재구성하여 당해 외국어로 옮긴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표기상은 물론 글이 논리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외국어로서 표현상 부자연스러워서 오류 검토 작업을 해야 할 것이 부지기수였다. 예를 들면, ‘平和 統一의 길’이 ‘平和 統一の 道’로,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가 ‘花が みだけて さく’에서 ‘花が さき みだれる’로, ‘나는 편지를 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합니다’가 ‘私は 手紙を もらったり あげたり します’에서 ‘私は 手紙を せりとりしています’로 수정됐다.

1978년 일본어 국정 교과서가 편찬될 무렵 일본어 자원 인사는 아주 희귀한 존재였다. 국내 일본어 학과는 국제 대학(명지 대학교 전신) 야간 일본어 학과가 유일하였다. 일제 시대 전문 대학이나 사범 학교, 일본 교포 출신 교수 등이 자원 인사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일본어 음성학, 일본어 응용 언어학 전공자는 전무하였다. 국정 일본어 교과서 ‘상권’만으로는 일본어 보급을 하던 교재의 빈약성에도 불구하고 1979년도에는 14만 권이 발매되었다. 1980년 13만 9천 권, 1981년 14만 5천 권, 1982년 18만 5천 권으로 일본어의 상승세가 계속되었다. 1984년에는 검인정 5종 교과서까지 합세해 일본어 채택 고등학교가 41%에 이르고, 일본어 선택 학생 수는 435,000 명으로, 고등학교 200만 명 중 22%에 해당되는 수치였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제시 중등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고 일본어에 일가견이 있는 인사들로부터 교과서 오류 지적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는 일본 광보관실의 가도와키 교수에게도 일본어 검토 의뢰를 했고, 오류 사항 지적을 공모하여 검토료를 지불하기도 했다. 1984년도에는 5종 검인정 교과서와 국정 일본어 교과서가 혼용되면서 교과서 단위별로는 오류 사항이 감소했으나 표기, 표현상의 오류, 한국어적인 일본어 표현 등의 지적 사항은 5종 전체적으로는 증가하였고, 그래서 교과서의 체통이 손상될 것 같은 위기감에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몰랐다. 1년에 2회로 수정 지시를 했고 긴급을 요하는 것은 그때 그때 해결하였다. 교과서의 절대적 권위를 보전하기 위해 사소한 미진함에도 얼마나 노심조사했는지를 떠올리면 쓴웃음이 절로 나는 것을 지금도 참을 수가 없다.

二話 : 외국어 습득의 새 地平을 열고

1981년 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확정되었다. 우리는 올림픽을 유치한 국민들로 달성해야 할 과업이 많았다. 문법 규칙이나 설명하고 명문장가의 발췌문을 번역하는 학습 형태로는 국

제화된 나라, 문화적으로 풍요를 구가하는 사회를 결코 이룩할 수 없었다. 듣기, 말하기 능력 신장을 도모하는 교수 방법을 개발하는 정책 수립이 절실했으며, 제 4 차 교육 과정을 적용한 검정 외국어 교과서부터 이를 실시하기로 되었다. 그리하여 의사 소통 능력 배양을 획책한 교과서가 탄생되었다. 유럽 언어, 그 중에서도 프랑스어는 '시청각 접근법'을 이용해서 조직한 교재였다. 1984년도 지학사 발행 프랑스어 교과서 머리말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선진 대국을 향해 세계를 무대로 우리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와 교역을 해야 하며 ~ 언어의 기능은 의사 소통이므로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은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과서 편찬 취지로써

1.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신 프랑스어'를 ~ 기초 프랑스어의 기본 구조를 통해 배웁니다.
2. 그림으로 교실에서나마 실제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 설정을 해 둡니다.
3. 녹음된 테이프를 사용하여 처음부터 정확한 발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배웁니다.
4. 듣고 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읽고 쓰는 기능도 처음부터 배웁니다.

'88.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 외국어 교육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1981년부터 '프랑스 연구 학교'를 문교부가 지정해 2년 기한으로 교수 방법을 개발하고 그 방법에 따라 시청각 연수를 함과 동시에 시청각 교재를 일반화해서 보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수원 여고, 경남 여고, 대구 경북 고교, 진주 여고, 충북 여고가 연구 학교 계속 사업으로 6년간 운영했다. 지정된 단위 학교 해당 부서와 프랑스어 교사는 실천 연구에 투입되어 계획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시작부터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주관해야 할 프랑스어 교사가 프랑스어를 책을 통해 이해하는 수준이었고, 전통적 교수 방법에 익숙해 있어 언어 구사 능력이 너무 빈약하였다. 프랑스 문화원과 협력해서 우선 불어 교사들의 회화 능력을 신장하고 시청각 교수법을 연수를 통해 숙달하게 하는 방책을 수립했다. 그리고 교과서 역할을 확대, 음성 교육 자료, 시청각 자료를 개발하는 것들도 마련했으며, 문화원 어학 담당 프랑스인으로 하여금 음성 자료를 개발 녹음해 줄 것을 약속받았다. 시행 1차년도에는 계획 일정에 맞추지도 못하고 연기만 했다. 그 당시에는 시청각 교수 방법하면 언어 실험실 확보를 떠올렸다.

수원 여고가 2차년도 연구 학교 발표를 앞두고 거액인 500만 원을 들여 대학교 수준의 언어 실험실을 설치했다. 중앙 제어 시스템에다 60명 규모의 부스(booth) 기자재를 외국에서 들여와 새로 건축한 2층에 시청각 교실과 함께 어학실을 둔 시설을 갖춘 것이다.

교사의 언어 구사 능력 부족, 연기재 제작 미완료 등을 이유로 모범 수업은 생략하고 외국제의 새 고급 기자재로 채워진 언어 실험실을 구경만 하고 교장 선생님에게 언어 실험실에 대한 칭송의 말만하고 돌아왔다.

경남 여고도 언어 실험실에서 수업은 했지만 프랑스 문화원의 지원으로 제작된 음성 교재를 학생들에게 듣게만 하고 일제 반복을 한두 번 하고는 연구 학교 발표를 마쳤다.

우선 교사의 개별 학습, 일제 학습, 발음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이미 녹

음된 자극 → 학생의 응답(반응) → 이미 녹음된 정확한 대답 → 정확한 대답에 대한 반복(강화) 이런 수순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교사의 교실 프랑스어 구사 능력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발화 자체가 불안했다. 그 후의 다른 연구 학교 발표회에서도 일상적인 교실 수업 수준을 넘지 못했다. 언어 실험실용 녹음 자료 선화(線畵)로 된 일련의 상황을 드로잉한 궤도를 열람하고, 참가 프랑스어 교사들에게 이들 녹음 자료를 나누어 줌으로써 연구 학교의 실험 결과를 평가했던 것이다.

1984년 김인정 교과서에서는 교과서에 따른 녹음 테이프를 개발해서 시판했고, 그 중에 외국어 대학 송정희 교수는 선화(線畵)로 된 상황 설명 궤도를 교사들에게 무료로 배부하였다. 문교부 외국어 연구학교, 시·도 교육청 단위, 외국어 실험 학교 등에서 시범 수업을 참관하고 다음과 같은 평가 메모를 남기곤 했다.

“시청각 교수법을 적용한 교과서를 문법 설명 번역식 수업 방식으로 하고 있다.”

“한 학급 50여 명으로서는 문형 연습을 할 수 없다. 몇 번 일제 문형을 복창하는 것으로는 문형 연습이 미흡하다.”

“문형 연습은 금새 싫증을 느끼게 하여, 학생들은 수동적이며 기계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단어의 의미를 전달해야 되는데 교사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못 미친다.”

“직접 교수법에서는 단어의 성격에 따라 그림 제시, 몸짓, 관념 연합 등 다양한 의미 전달 수순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청각 음성 자료, 시각 자료를 교사 스스로 개발해 이용하기란 시간, 업무상 과중한 부담을 준다.”

“10 단위~12 단위로서는 교육과정 목표 달성에는 부족한 이수 단위다.” 등 ㉠

〈1979~1981년 일본어, 프랑스어 담당 편수관〉

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논쟁’

■ 글 / 신영범 (전 은곡중학교 교장)

1. 국사 교육 내용 준거안의 연구 배경

II 자가 교육부에 근무하기 시작한 1990년 대 초에는 제 6 차 교육과정 총론이 확정되고, 과목별 각론이 정리되면서 교과서 편찬 작업이 준비되고 있던 시기였다.

당시에 교육부에 근무하고 있던 편수 담당자들은 다년간 근무 경험으로 경륜이 풍부하고 국제적 감각까지도 지니고 있어 업무에 대한 자긍심이 높았다. 박용진 장학편수실장, 함수근 편수관리담당관, 한명희 사회과학편수관(뒤에 김성환 편수관), 김용만 교육과정담당관 등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일반 행정직까지도 우리의 담당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당시 학계와 일부 언론계에서 제기한 국사 교과서 관련 민원 사항은, 첫째 국사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관점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것과, 둘째 당시 사용하고 있던 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기술 내용이 정권 홍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써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의 분위기

속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제 6 차 교육과정에 따라 1996년도부터 사용할 중·고등 학교 국사 교과서의 서술 지침이 되는 ‘국사 교육 내용 준거안 연구’를 정책 연구 과제로 선정하고, 중견 역사학자로 구성된 연구 위원회를 조직하여 연구, 위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첫째 그 동안 역사학계에서 축적된 새로운 연구성과를 교과서 내용에 반영하고, 둘째 제 6 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 요소에 따라 서술 지침을 제시하도록 하며, 셋째 특히 근·현대사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역사 용어를 정리하여 통일안을 제시하자는데 있었다.

2. 논쟁의 발단과 파장

연구 위원 선정에는 전공 분야, 교육 경력, 출신 대학 및 재직 대학 등을 고려하여 9 명으로 구성하고, 가장 관심이 컸던 근·현대사 담당 연구 위원은 학문적 성향까지도 고려하여 3 명을 배정하도록 하였다. 연구 위원 선

정은 필자와 연구 위원장인 이준희 교수의 협의하에 이루어졌고, 교육부의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연구 위원은 고고학 분야에 이용조 교수(충북대), 고대사에 노태돈 교수(서울대), 고려 시대에 박용운 교수(고려대), 조선 전기에 이준희 교수(서울 시립대), 조선 후기에 정만조 교수(국민대), 근·현대사에 이현희 교수(성신 여대), 정재정 교수(당시 방송 통신대), 서중석 교수(성균관대), 역사 교육에 김홍수 교수(춘천교육대)가 선정되었다.

연구 위원 위촉 과정에서 수락을 받는 데 가장 힘들었던 분은 서중석 교수였다. 필자가 대학 연구실로 두 번씩이나 찾아가 겨우 승낙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뒤에 현대사 파동이 일어났을 때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고, 서중석 교수가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인신 공격까지 퍼부었을 때는 서글픈 마음까지 들었다.

심지어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지어 서중석 교수를 연구 위원으로 추천한 분이 당시 청와대의 모 비서관이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금도 두 분께 미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당시 편수국의 편수관들은 상부의 어느 누구의 압력을 받은 일이 없이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였음을 밝히며, 서중석 교수에게는 터무니없는 공격까지도 감내하면서 연구 과제 수행에 참여해 주셨던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연구 위원들은 담당 분야에 대한 안을 만들어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준거한 1차 시안을 만들어 학계와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994년 3월 18일 서울 시립

대학교 대강당에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때, 각 영역별 시안 발표자는 연구 위원들이었고, 토론자는 발표자와 비교적 성향이 다른 분으로 선정하여 참여시켰다. 세미나에서 쟁점이 되었던 주요한 내용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교과서에 소개하는 문제와 제주도 4·3 사건을 제주도 4·3 항쟁으로, 대구 10·1 소요 사건을 10월 항쟁으로 표기하자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이 날 세미나 현장에는 역사 교육 연구회나 역사학회, 학교 현장에서 참석자가 그리 많지 않았고, 언론사에서도 토론 자료집만 가져가고 그리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홍보 부족의 책임도 있었음.).

그러나 학술 세미나의 토론 자료집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학계,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으로부터 가히 폭발적인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다.

4월 19일 이후, 주요 일간지와 주간지, 월간지에 게재된 기사 제목을 보면 “어느 나라 국사 교과서인가?”, “교과서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 “교육의 핵심부에까지 불순 세력 침투” 등이었다.

이렇게 국사 교과서 문제가 불거지자 4월 20일(일요일)에는 당시 대통령께서도 “국사 교과서 개정은 신중히 다루어야 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내용이 신문에 발표되었고, 드디어 실무 책임자인 필자와 한명희 편수국장이 소환되어 장관 댁에까지 가서 보고하게 되었다.

현대사 분야 연구 담당자인 서중석 교수가 국사 교과서에 북한의 주체 사상을 수록하자는 것은 고등 학교에서 북한의 실상을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 올라와 무비판적으

로 쉽게 의식화되기 때문이라고 보고드리고, 현행 국사 교과서에서 독립 운동사를 민족주의 계통의 독립 운동만 다루고 사회주의 계통의 독립 운동도 학계에서 정설로 공인된 것은 수록하는 것이 옳다는 연구자들의 의견이었음을 보고드렸다.

그리고 대구 10·1 사건을 10월 항쟁으로, 제주도 4·3 사건을 제주도 4·3 항쟁으로 하자는 주장은, 당시 무고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한 연구자 개인의 사건이었음을 밝히고 교육부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발표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드렸다.

이와 같은 보고를 다 들으신 장관께서도 실상을 이해하고, 편수국장 명의로 교육부에서 연구자의 개인적인 사건은 교과서 내용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언론을 통하여 해명하도록 지시받고 일단 급박한 비판 여론에서 헤어날 수 있었다.

3. 준거안의 확정 과정

준거안 연구팀에서는 여러 차례의 토론 과정과 그 동안 학계와 교육계에서 제기되었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1994년 7월에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교육부에서는 연구팀에서 제출한 연구 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대학 교수, 교과 교육 전문가, 중·고등 학교 교사로 구성된 별도의 작업 팀을 구성하여 제6차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요목에 따라 ‘교육부 준거안 시안’을 마련하였다.

이 때, 작업 위원들은 시안 작성에 앞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원칙을 정해 놓고 작업을 시행하였다.

① 그 동안 축적된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

를 충분히 검토하여 정설로 인정된 사항만을 교과서에 반영한다.

② 우리 민족사의 주체적인 발전 과정을 중시하며 문화 역량이 풍부하였음을 부각시키고, 민족사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가지도록 한다.

③ 세계사적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특정 이념이나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고 우리 역사를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⑤ 역사 교육적 관점에서 역사 용어를 정리하고 서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작성된 준거안 시안은 국사 전공 교수 및 동양사와 서양사 분야 전공 교수, 현장 교사 등 31명으로 구성된 준거안 심의 위원회의 두 차례의 심의 과정과 국사 편찬 위원들의 검토 과정을 거쳐 1994년 11월에 ‘국사 교육 내용 준거안’을 확정하여 중·고등 학교 국사 교과서 편찬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 때 정리된 근·현대사 관련 주요 역사 용어로는 홍선 대원군의 대외 정책을 통상 수교 거부로 표기하기로 하였고, 여수·순천 10·19 사건, 제주도 4·3 사건, 4·19 혁명, 5·16 군사 정변, 6월 민주 항쟁, 5·18 민주화 운동 등이 있었다.

이러한 역사 용어의 정리 작업은 교과서 편찬의 전 단계로서 연구 과정에 의한 합의가 필요하였고, 교과서에 수록될 역사 용어는 다원성이 허용되는 전문 서적과는 달리, 교육 용어로서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학문적 정확성과 교육적 배려가 동시에 요구되었다.

특히, 8·15 광복 이후의 한국 현대사는 자유 민주주의와 국력 신장을 위한 부단한 노

력이라는 관점과 통일 지향적인 방향으로 서술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준거안을 작성하였다.

4. 맺는말

제 6 차 교육과정에 의한 ‘국사 교육 내용 준거안 연구’는 연구 과정에서의 논쟁을 통하여 근·현대사 분야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걸러져서 실제 국사 교과서 편찬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점이 있었다.

특히, 국사 교과서와 국사 교육에 관하여 언론 기관이 중심이 되어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사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이룩하기도 하였다.

한편, 일부 급진적인 관점을 가지고 국정 교과서를 비판하던 학자들에게도 국민적 정서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사 교과서의 편찬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현대사 관련 의 논쟁 과정에서 일부 학자들까지도 사료에 근거를 둔 학문적 논리성에서 벗어난 주장은 토론 문화의 성숙을 어렵게 하였다.

역사적 사실에 관한 학문적 논쟁은 신뢰할 수 있는 사료를 가지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하는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평가만큼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육인적자원부가 수행하는 업무 가운데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

수 업무만큼 중요한 것은 없고, 이 기능이야말로 교육 인적 자원부의 존재 이유와도 직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조직의 직제 개편 때마다 교육의 본질을 담당하는 교육 전문직 인력은 약화시키고, 일반 교육 행정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

2000년도에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와 2002년도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도 결국은 교육 인적 자원부의 편수 인력의 부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전문 인력의 확보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 기관의 육성과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대안 교과서’와 이를 둘러싼 시비

■ 글 / 박남화 (한국교육신문 편집·취재부장)

아마도 교과용 도서, 혹은 교과서와 관련한 금년도 최대 쟁점 사안의 하나가 이른바 대안 교과서에 대한 시비일 것이다. 아직 용어조차 정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시비가 법정으로까지 비화한 사안이긴 하나 그만큼 대안 교과서 문제가 우리 나라 출판계, 나아가 교육계의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진행 과정과 쟁점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1. 대안 교과서란 무엇인가

올 봄 일선 중·고교에는 기존의 교과서가 아닌, ‘대안 교과서’란 이름의 다소 생소한 책자들이 등장했다. 국어의 ‘우리말 우리글’과 국사의 ‘살아 있는 한국사’, 그리고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란 제목을 단 이들 책자들은 기존의 국정이나 검·인정 교과서가 아니면서도 ‘대안 교과서’란 이름을 달고 있어 적지 않은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 대안 교과서는 저자들이 현직 교사들이고 책의 장정이나 편집 등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책 내용이 기존의 교과서와 크게 달라 일선 학교는 물론 출판계의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전국 역사 교사 모임이 쓴 ‘살아 있는 한국사’는 급기야 조선 일보가 지난 5월 제정한 ‘이 달의 책’ 첫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 같은 관심에 힘입어 이 책자는 올 상반기 베스트 셀러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전국 국어 교사 모임이 쓴 ‘우리말 우리글’ 역시 새 학기에 전국의 고교에서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대량 구매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어 교사 모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우리말 우리글’을 부교재로 선택한 학교가 많으며 학교 명단과 보급 부수까지 홈 페이지에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B 여고 470 부, 서울 K 고 560 부, 울산 J 고 407 부 등 전국적으로 27개 학교를 직접 거명하면서 대규모 구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스스로 자랑하기까지 했다.

‘우리말 우리글’의 경우 국어 교사 모임은 지난해에 벌써 중학교 1학년용을 발간해 3만 부 가량 판매한 바 있었다. 국어 교사 모임은 이 같은 반향이 “국정 교과서의 벽에 절망했던 학생들과 교사들의 여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자평하고 여세를 몰아 올 봄 고교 1학년용을 다시 제작했던 것이다. 이 같은 대안 교과서 붐이 일선 학교에 불면서 적지 않은

잡음이 동시에 일기 시작했다.

우선, 일선 학교에서 이 책의 구독이나 사용을 주장하는 교사들과 무원칙한 구독이나 수업 시간 중 사용은 문제가 있다는 교장·교감들 간의 시비가 시작되었다. 교장·교감들은 국어 교사 모임이나 역사 교사 모임 등 대안 교과서를 저술한 교사들이 전교조 소속이라 편향된 시각이 깔려 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기존 교과서와 대안 교과서를 혼동하고 있으며, 부교재 채택 비리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보였다. 그러나 해당 교사들은 기존의 교과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한 대안 교과서야말로 국가나 출판사가 아닌, 교사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줬다며 구독 권장 행위를 계속했다. 이 같은 갈등이 급기야 교육 인적 자원부나 언론 기관에 접수되기 시작했다. 교육 인적 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에는 대안 교과서의 실체와 사용 여부에 대한 학교 관리자들의 문의와 대안 교과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교사들의 의견이 쇄도했으며, 언론 기관 역시 이에 대한 제보가 쌓여갔다.

2. 문제 제기와 시비 논란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한국 교육 신문’은 4월 1일자 기사로 이 문제를 다뤘다. 한국 교육 신문은 기존의 교과서와 차별되는 ‘또다른 교과서’를 표방한 대안 교과서가 내용과 편집면에서는 참신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나 판매와 교재로서의 활용 방법 등에서 시비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상 국사와 국어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도서, 즉 국정 교과서만 사용해야 하며, 다만 인정 도서의 경우 재량 활동 시간에는 사용 가능하다는 교육 인적 자원부 관계자의

유권 해석을 인용했다. 교육 인적 자원부 관계자는 대안 교과서는 사실상 교과서가 아닌 책자이므로 정규 수업 시간뿐 아니라 재량 활동 시간에도 사용할 수 없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들과 출판사측은 “일선 중·고교에서 참고서를 채택해 사용하고 있는 관행이 수십 년 되었는데, 대안 교과서를 문제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 교육 신문은 이어서 5월 6일자 ‘대안 교과서 부교재 시비 가열’ 제하의 기사를 통해 대안 교과서를 둘러싼 시비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보도했다. 즉, 일반 도서로 출간된 대안 교과서가 교과서로 잘못 알려지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규 수업 시간에 사용할 수 없는 부교재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들이 이를 어기고 반공개적으로 학생들에게 구입을 강요하고 있으며, 책 가격 역시 국정 도서보다 8~9배 비싸 사교육비 가중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해당 교사들은 공개적으로 교육 인적 자원부가 대안 교과서를 수업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과 교재 선택권을 학교장의 권한에서 교사의 자율과 학교 운영 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교육 인적 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 관계자는 “초·중등 교육법이 명시한 것처럼 정규 수업시간, 특별 활동, 재량 활동 등 교육과정상의 수업 시간에는 국정이나 검·인정 교과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대안 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부교재의 일종이므로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것

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교육 인적 자원부는 대안 교과서를 도서관에 비치하거나 한 부분을 인용해 참고 자료나 학습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 인적 자원부 학교정책과 관계자도 “특기 적성 교육의 경우에도 부교재를 일괄 구입해 활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면서 “이를 어기고 일괄 구입하거나 구독을 권유하는 행위는 행정 지도를 통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 국어 교사 모임 교사들은 제7차 교육과정 도입 취지에 따라 수업 시간에 교과서 이외에 부교재인 대안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교육 인적 자원부에 강력한 항의를 나타냈다.

교육 인적 자원부는 이에 대해 5월 29일자로 ‘교과용 도서 관련 규정 해석 및 활용 안내’ 제하의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보내 대안 교과서의 수업 중 사용을 금지하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 인적 자원부는 이 공문에서 “국정, 검정, 인정 도서 등 교과용 도서를 대체해 학습 참고서인 부교재를 주된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면서 수업 중 대안 교과서를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정의했다. 그러나 부교재 개념이 아닌 학습 자료를 수업 중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며 학습 자료의 구체적인 사례로 신문 스크랩, 멀티미디어 교수·학습 자료, 교육 방송 프로그램 등을 예시했다.

즉, 대안 교과서를 학습 자료로 본다면 해도 책 내용의 일부를 복사하는 식으로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완제품 책자를 수업 중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일괄 구입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부교재로 간주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해당 교사들은 교육 인적

자원부 방침에 강력한 반발을 보이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교육 인적 자원부를 직접 방문해 항의성 반발을 하거나 사이버 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 당시 국어 교사 모임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들을 잠깐 살펴보자.

“우리 회원들이 두 달 가까이 교육 인적 자원부 홈페이지에 사이버 시위를 한 결과, 학습 자료 사용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되기 시작하자 교육 인적 자원부는 5월 29일자로 시·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핵심은 학습 자료로 교과서를 보충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교과서를 대체해 쓰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과서 중심 교육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려 합니다. 교육 인적 자원부는 7차 교육과정을 통해 ‘교과서 중심 수업’이 아니라 ‘교육과정 중심 수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교육법 29조는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원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과거의 관행을 반복하는 것은 교과서 성전주의의 보루입니다. 이제 이 법조항을 폐지해 교육과정 중심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초·중등 교육법 폐지와 교과서 제도 폐지 운동을 성원해 주시고 적극 동참하길 바랍니다.”

“교육 인적 자원부와 (한국 교육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한국 교총의 비열한 작태에 대해 전교조와 언론의 대응을 요청했다. 전교조의 경우 본부 정책실과 신문국, 참실위와 논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으며 국어 교사 모임뿐 아니라 역사 교사 모임 등 교과 연합이 공동 대응하고, 한겨레나 경향

신문, 에스비에스 등 언론을 동원한다.”는 내용 등을 올려놓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교총(한국 교육 신문)에 대한 언론 중재위 제소나 명예 훼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어 교사 모임은 급기야 8월 말 한국 교육 신문을 서울 민사 지법에 명예 훼손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한국 교육 신문과 해당 교사들 간의 시비가 가열되자 일반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문화 일보 보도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

“정규 교과서 보완용으로 출판된 이른바 대안 교과서를 둘러싼 전교조와 한국 교총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대안 교과서를 사용하는 전교조 교사들은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창의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교총측(한국 교육 신문)은 정규 수업 중 부교재 사용은 불법일 뿐 아니라 검정 교과서보다 훨씬 비싼 대안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강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중에서 대안 교과서는 일반 교과서보다 4~5배 가량 비싼 13,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전교조 기관지인 ‘교육희망’은 15일자 보도에서 기존 교과서만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려는 교사들의 노력에 대해 불법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국 교육 신문은 일반 도서로 출간된 대안 교과서가 교과서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학생, 학부모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없는 부교재임에도 일부 교사들이 이를 어기

고 반공개적으로 학생들에게 구입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어 교사 모임에 따르면 대안 교과서는 현재 전국 170여 개 중·고교에서 부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한겨레 신문은 대안 교과서 문제에 대해 여러 번 기사화했을 뿐 아니라 사설로도 다뤘다. 기사 논조는 대부분 저자나 출판사의 주장을 옹호하는 내용들이었다. 5월 20일자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선 교사들이 직접 집필해 호평을 받고 있는 대안 교과서의 수업 활용에 대해 교육 당국이 제동을 걸자 집필진 등 해당 교사들이 사이버 시위에 나서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국어 교사 모임은 19일 교육 인적 자원부가 최근 이 모임에서 1년간의 집필 기간을 거쳐 올 초 펴낸 ‘우리말 우리글’의 부교재 채택에 대해 학교에서는 국정과 검인정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29조를 들어 불허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말 우리글’을 부교재로 채택한 서울 모 고교 등 60여 개교는 이 책자의 보조 교재 활용을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살아 있는 한국사’ 역시 역사 수업에서 부교재로 활용할 길이 막히게 됐다.

해당 교사들은 교사들의 교수 학습 자료 개발을 강조하는 7차 교육과정 취지에 반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교육 인적 자원부가 1999년 7차 교육과정 시행에 앞서 교과용 도서 사용을 금지시킨 ‘교과용 도서 규정’ 51조를 폐지시킨 점을 들어 채택 금지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 인적 자원부는 해당 교사들이 ‘교과용 도서 규정’ 51 조가 폐지된 것과 관련, 마치

아무 책이나 학교 수업 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즉, 현행 “초·중등 교육법” 29 조는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 인적 자원부 장관이 검정,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학교에서의 교과서나 학습 자료 활용에 관한 최고 수준의 법적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과용 도서 규정’ 51 조가 삭제된 것은 해당 교사들의 주장처럼 교과서 이외의 학습 교재나 부교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인 ‘초·중등 교육법’ 29 조와의 중복 때문에 삭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안 교과서를 둘러싼 시비가 유독 국어, 국사 등 특정 교과목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이들 과목이 이념성이나 정체성을 담는 ‘이념 교과’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이나 국민적 정서를 어떻게 바라보고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아직 판단 능력이 성숙되지 못한 초·중·고 학생들에게 저자들의 검증받지 않은 주장이나 의견이 여과 없이 교육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다른 시비의 하나는 대안 교과서를 포함해 학습 교재(부교재)가 학교에서 무원칙하게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문제집이나 참고서 같은 부교재의 채택을 둘러싼 비리는 그 동안 일선 학교의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는 출판사나 보급업자와 교직원 간 유착 비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 학생의 학습량 증가 등의 문제점을 유발해 왔기 때문이다. 실례로 교사가 저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대안 교과서같은 형태의 부교재가 교과별로 기준이나 원칙 없이 수십,

수백 가지 제작되어 일선 학교에 통용될 때, 그 부작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 국회에서조차 문제 제기

대안 교과서 문제는 급기야 국회로까지 비화했다. 7월 임시 국회 교육위에서 김정숙 의원(한나라당), 황우여 의원(한나라당) 등은 역사 대안 교과서인 ‘살아 있는 한국사’의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고 국사 편찬 위원회에 이 책자를 분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사 편찬 위원회는 한 달여의 검토 기간을 거쳐 8월, 국사 대안 교과서의 분석 검토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사 편찬 위원회가 비교적 특정한 경향이나 이념에 경도되지 않는 국가 기관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 보고서의 내용은 놀랄 만한 것이었다. 그 동안 언론이나 출판계가 찬탄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국사 편찬 위원회는 ‘살아 있는 한국사’ 책자에서 무려 120여 군데의 잘못이나 오류 부분을 지적했다. 지적된 부분 중 몇 가지 실례를 살펴보자.

▶ ‘전열을 가다듬은 남한군과 미군은 다시 인민군을 몰아붙였고’(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다. 북한군이 인민군이면 남한군은 국군이여야 맞다. ‘몰아붙였다’는 표현 역시 어색하다.) ▶ ‘5·18 광주 민주 항쟁’(법으로 ‘5·18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달리 항쟁이라 쓸 이유가 없다.) ▶ ‘민중의 힘으로 무너뜨린 거대한 힘’(지나치게 혁명적 표현을 하고 있다. 비교육적이다.) ▶ ‘10여 년 동안 국군은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인 4만여 명을 사살했으며’(베트남

양민을 4만 명 사살했다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월맹군을 사살한 것인지, 양민을 사살한 것인지…… 위험한 표현이다.) ▶ ‘전태일의 분신은 70년대 전후의 경제 성장이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졌음을 보여 준다.’(다분히 선정적 표현이다.) ▶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과격한 표현이다.) ▶ ‘임수경의 북한 방문은’(임수경은 정부의 허락을 받아 정식 방문한 것이 아니라 밀입북한 것이다.)

국사 편찬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구성 및 흐름면에서 대안 교과서라는 용어가 합당하지 않고 ‘살아 있는’이란 표현도 문제다. 여성과 역사라는 항목이 어색하다. 역사 용어가 현행 교과서와 통일되지 않아 혼란스럽다. 적절치 않은 전거, 즉 사진, 그래프, 읽기 자료가 많다. 근·현대사가 너무 많이 할애되어 있다. 적절치 않은 비교육적 표현이 매우 많다.

둘째, 민중사관의 문제. 역사 발전의 시각이 민중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너무 지나치다.

국가를 민중에 대한 착취 기구로 보는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계급 투쟁론에 입각해 반복 대립 현상만 노출한다. 민중이 역사를 만들었다는 견지에서 집권층에 대한 항쟁만 중요시하고 있다.

국사 편찬 위원회는 책의 편찬은 자유로운 것이나 대안 교과서를 현장의 교사들이 이용하고 학생들에게 권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누구나 자유로운 역사적 사실을 표현할 수는 있으나 이를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단

지 참고 자료로나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9월 16일 실시된 교육 인적 자원부에 대한 국회 교육 위원회의 금년도 국정 감사에서도 대안 교과서 문제는 비중 있게 다뤄졌다. 현승일 의원(한나라당)은 일선 학교에서 대안 교과서란 이름의 학습 부교재가 무비판적으로 보급되고 있다면서 교육 인적 자원부의 대응 방안을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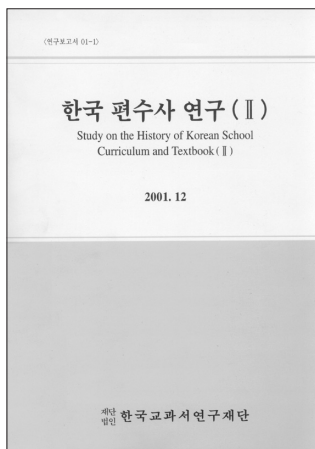
이에 대해 이상주 부총리는 “학생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인식을 심어 줄 우려가 있는 자료가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육 인적 자원부의 기본 입장이며, 현행 교과용 도서 관련 규정에도 엄연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또 “우리 부는 소위 대안 교과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각급 학교가 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차례 지도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 교직 단체(전교조 지칭)가 만든 ‘이 겨레 살리는 통일’과 관련해 통일부에서 면밀하게 내용을 검토해 교육청 담당자 교육을 통해 이의 사용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안 교과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이를 둘러싼 시비는 아직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교육 인적 자원부나 국사 편찬 위원회, 통일부 등 정부의 소관 부처가 분석한 것처럼 대안 교과서가 담고 있는 내용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란 것이 일차 판명되었으나 해당 교사들이나 출판사 등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는 듯하다.

대안 교과서 과문이 더 이상 진전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24

한국 편수사 연구(II)



〈연구 보고서 01-1〉

‘한국 편수사 연구(II)’는 제4차 교육과정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를 정리한 것으로 ‘한국 편수사 연구(I)’의 후속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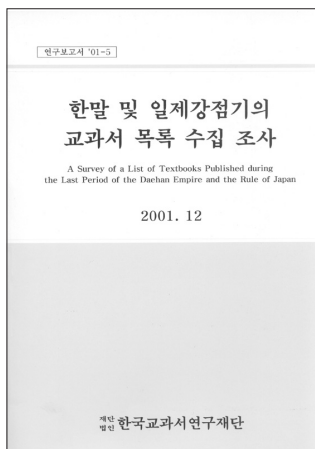
이 연구 보고서는 제1부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의 제한점 및 연구의 기대 효과’, 그리고 ‘연구 보고서의 구조’ 등을, 제2부에서는 제4차 교육과정으로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 등에 대해 그 사실을 서술하고 분석 정리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기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에 대한 연구는 한국교원대학교 정태범 교수가, 제5차 교육과정기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에 대한 집필은 전 금천고등학교 윤종영 교장이, 제6차 교육과정기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은 한국교원대학교 함수곤 교수가 맡아 집필하였다. 그

리고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에 대해 그 사실은 서울교육청 김영일 장학관이 서술하고 분석, 정리하였다. 그리고 한국 편수사 연구(I), (II)가 연계되는 성격 때문에, 미 군정기, 교수요목기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으로부터 제7차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편찬까지를 한 군데에 모아 요약,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편수사 연구 및 집필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문화, 사회 경제적 조건에 부합되는 한국의 주체성에 입각한 편수 업무의 관(觀)을 정립하고, 나아가 한국 교육 이념에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의 개발, 교과서의 편찬, 발행, 공급 등 편수 업무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 착오를 거울삼아 차기에 발전적인 편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좋은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셋째, 한 번 연구, 개발하여 적용한 후 사장되고 소멸되기 쉬운 편수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 정리해 놓음으로써 편수 업무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살리고, 연구 개발 실적을 정리, 보관해 두는 데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넷째, 한국 편수사는 광복 후 우리 나라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서 편찬 등을 교육과정기별로 체계화하는 최초의 연구서(I, II)로서, 이것이 기반이 되어 앞으로의 연구는 더욱 심화, 보완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또 주제별 또는 하위 내용별로 전문 연구가 이루어지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허강 님(연구 책임자), 박상만 님(한국교육개발원 자문 교수), 김용만 님(동경한국학교 교장), 정태범 님(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함수곤 님(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윤종영 님(전 금천고등학교 교장), 김영일 님(서울시교육청 장학관), 이종국 님(대전 혜천대학 교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한말 및 일제 강점기의 교과서 목록 수집 조사



〈연구 보고서 01-5〉

한말 및 일제 강점기의 교과서 목록 수집 조사 연구는 우리 나라에 근대 교육이 도입된 지 120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교육이 어떻게 도입, 전개되었고, 당시의 교육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으며, 교과서는 어떻게 편찬되었고, 일본의 영향은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없어 이의 학문적 접근과 연구를 위해 추진하였다.

구한국 말기는 서양 외세가 도래하고 우리도 개화를 해야 한다고 몸부림치던 시기로서,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시기는 1880년대부터 1894년 갑오개혁까지이다. 이 시기는 근대 학교의 발상기로서,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일정하게 법제화되지 못했던 때이다.

둘째 시기는 1895년부터 1905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우리의 의지대로 근대 학교를 발족시키고, 교책대강, 교칙, 학칙 등 교육과정을 세우고, 교과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학부에서 교과서도 편찬하고, 민간인이 편찬한 교과서도 학교 교재로 받아들여 정리, 정돈된 형태를 보이던 때이다.

셋째 시기는 1905년부터 1910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일제 통감부의 학습 주도하에 우리 정부의 학부가 일제의 지배적 관여에 수동적으로 따르던 때로서, 일본인 주도하에 일본식 학교 제도에 따라 교육과정을 제정하고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일제 강점기를 교육기로는 제1차 조선교육령기, 제2차 조선교육령기, 제3차 조선교육령기, 제4차 조선교육령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의 도입 과정과 갑오개혁 이후의 교과서의 흐름, 을사조약 이후의 변화, 그리고 제1차 조선교육령기, 한·일 합방 직후의 변화, 제2차 조선교육령기, 제3, 4차 조선교육령기의 교육은 어떠하였는가를 조사, 연구하였으며, 이 때의 교과서 목록 또는 정가표를 우선 조사, 발굴하였고, 직접적인 자료를 발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술 서적, 연구지 또는 조선총독부의 '교과서 편집휘보'와 일본 문부성의 '국정 교과서 편찬 취의서' 등의 자료에서 추출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목록을 조사, 발굴하였다. 구한국의 관보, 조선총독부의 관보, 일본의 관보, 한국 및 일본의 국회 도서관 자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이 있고, 일본의 교과서 연구 센터의 도서관 및 일본 동서문고의 교과용 도서 목록(제1, 2, 3권) 근대 일본 교과서 총설 목록편 등에서는 당시의 목록의 실물은 발굴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일이지만 향후 이 분야 연구가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편집·교열학회 이승구 님(연구 책임자), 박봉배 님(서울교육대학교)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북한의 교육¹⁾

1. 교육 정책

(1) 교육 목표

북한에서는 헌법 제 43 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이란 ‘첫째, 공산주의는 놀고 먹는 사회가 아니므로 노동을 사랑하고 즐기며 이에 자각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둘째, 개인주의 낡은 사상, 자본주의 사상을 철저히 뿌리뽑고 김일성 유일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 셋째, 자기 개인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오직 사회 전체를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 그리고 넷째, 공산주의의 승리를 확신하고 어떤 역경에서도 혁명적 낙관주의를 찾는 사람’을 의미한다.²⁾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교육은 개인의 자아 발달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공산주의자를 양성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교육 목표는 김일성이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행한 연설과 교시 등을 정리하여 1977년에 발표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근거한다. 이 ‘테제’에 의하면,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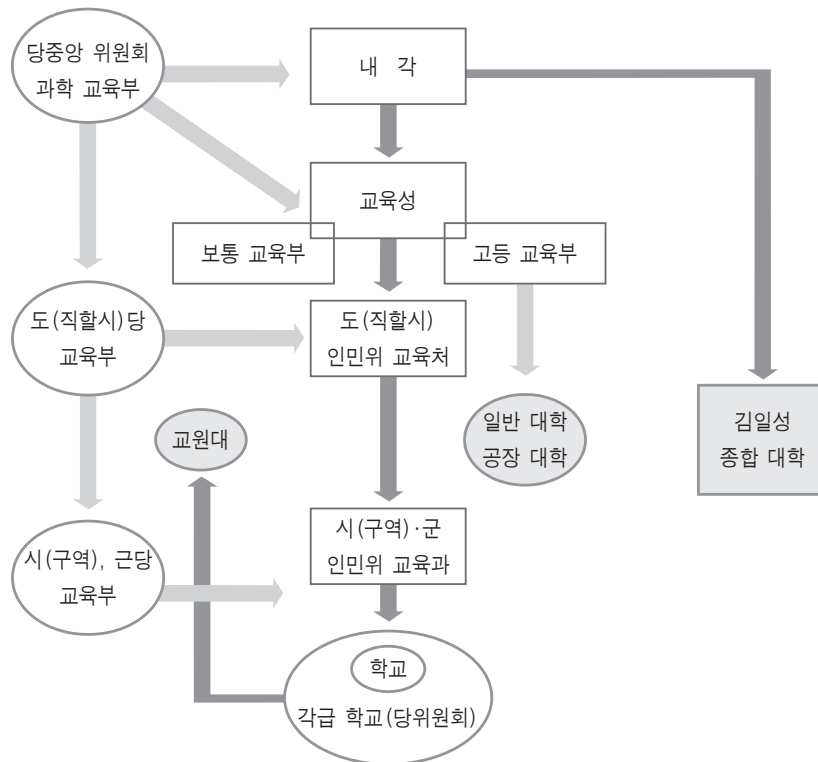
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 혁명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없애고……집단주의 원칙에 따라……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과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해 놓았다. 또,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교육이 본질적으로 계급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당성과 노동 계급적 성격이 교육에서 나타나야만 당과 혁명에 충실한 혁명 인재를 키울 수 있다고 한다. 결국 교육을 통해 북한 당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학생들을 ‘혁명화, 노동 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김일성 부자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 투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

(2) 교육 행정 체계

북한의 교육 행정 체계는 <그림 6-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의 교육 행정은 3원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당은 지시와 감독을 하고, 내각은 당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구체적인 교육 정책을 관장하며, 학교는 교육을 실시한다.

① 노동당 : 북한 교육 제도의 큰 특징은 노동당의 통제를 수반한다는 점이다. 당은 교육과 관련된 당 중앙 위원회의 결정을 하급 당 위원회와 내각에 지시, 전달한다. 북한의 행

〈그림 6-1〉 북한의 교육 행정 체계



정이 그러하듯이, 당은 내각이나 일선 학교에 대해 우선적인 권한을 갖고 인사나 교육 문제를 다룬다. 모든 학교는 형식상 교장이 책임을 지고 있지만, 학교에 파견한 당 위원회 위원장이 실권을 장악한다.

② 내각 : 행정적, 실무적인 업무는 내각의 교육성이 담당한다. 교육성 산하에는 보통 교육부와 고등 교육부가 있다. 보통 교육부에서는 인민 학교와 고등 중학교, 그리고 교원 대학을 관장하며, 고등 교육부에서는 일반 대학과 사범 대학을 관장한다. 교육성은 해당 업무를 각 도(직할시)에 위치한 인민 위원회 교육처로 하달하고, 인민위 교육처는 다시 해당 시·군·구에 위치한 인민 교육처로 송부한다.

이 교육 지침이 최종적으로 각급 학교에 하달 되면, 그 지침에 의거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학교 : 학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북한에는 인민 학교, 고등 중학교, 대학교가 있다. 인민 학교와 고등 중학교는 유치원 높은 반과 더불어 의무 교육제로 운영된다. 고등 교육은 특정한 선발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다. 북한의 고등 교육 기관으로는 김일성 종합 대학, 김책 공업 종합 대학, 고려성균관(경공업 종합 대학) 등 3개의 종합 대학을 비롯하여 280여 개의 대학이 있다. 체육 및 예술 전문 학교와 기술계 전문 학교도 607여 개에 달한다. 이들 각급 학교는 당과 내각의 지도 및 통제를 받아 교육을 실시한다.

2. 교육 제도

(1) 학제

북한의 학제는 <그림 6-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4-6-4년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민 학교 4년, 고등 중학교 6년, 대학교 4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기본 학제와는 별도로 각종 특수 학교를 설치하고 예·체능 분야의 특기자 교육과 출신 성분에 근거한 특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등 교육과 특수 교육은 다양한 학제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등 전문 학교는 2~3년제이며, 교원 대학은 3년제, 사범 대학은 4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 대학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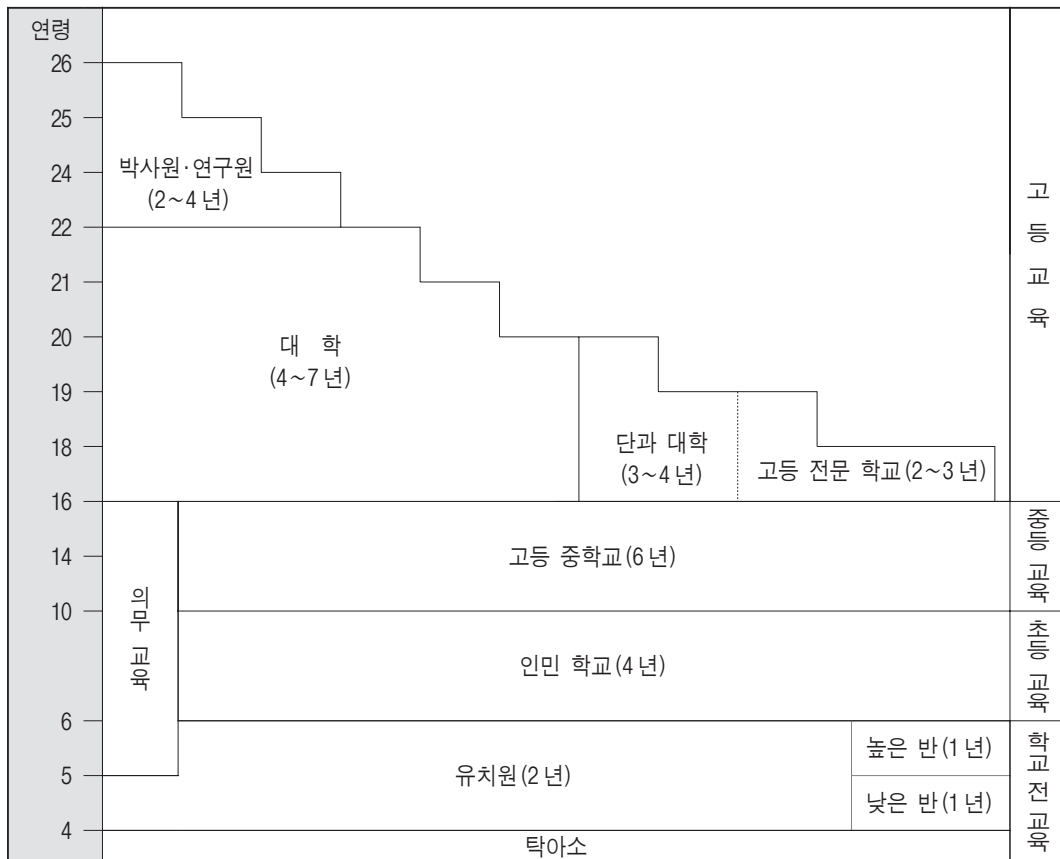
우도 학교와 전공에 따라 4~7년을 수학 기간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학기는 1969년 이후 “당면한 경제 과업 완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한다.”라는 명목으로 9월 1일을 기해 학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6년부터는 4월 1일로 환원되었다. 방학은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이 각각 한 달(8월과 1월)이다. 3월에 학년 말 시험을 치르고 약 10일 정도 휴식을 가진 후, 4월 1일에 새 학년이 시작된다.

(2) 보통 교육

북한에서는 해방과 더불어 「북조선 학교 교육 실시 조치법」을 제정하여 종래의 국민

<그림 6-2> 북한의 학제



학교를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분에서 인민 학교로 개칭하고, 예비반 1년 과정을 포함하여 6년제 인민 학교를 시작으로 근대적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 후 여러 차례 걸쳐 학제를 개편하였으며, 최근 실시되고 있는 학제의 골간은 1975년부터 실시된 ‘전반적 11년제 의무 교육’ 제도이다. 11년의 의무 교육 기간은 유치원 높은반 1년, 인민 학교 4년, 그리고 고등 중학교 6년을 의미한다.

북한의 의무 교육은 최고 인민 회의 제 1기 4차 회의(1949. 9.)에서 1950년 7월 1일부터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를 실시키로 하였으나, 6·25 전쟁으로 인해 실시되지 못하다가 195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1956년부터 초등 의무 교육제(4년제 인민 학교)가 실시되고, 1958년부터 3년제 중등 교육까지 의무 교육이 확대되었다. 1975년 9월부터는 유치원 높은반 학생을 ‘학교 전 의무 교육’에 포함시킴으로써 오늘날의 ‘전반적 11년제 의무 교육’의 틀이 마련되었다.

북한에서는 초·중등 교육을 의무 교육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의무 교육 제도는 ‘사회의 모든 성인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全民적 교육’으로 하기 위함이며, 이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11년제 의무 교육 방침은 1772년 제 5기 4차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9월부터 학교 전(유치원) 의무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였다. ‘전반적 11년제 의무 교육’이 시행된 것은 1975년 9월부터이다. 이에 따라 의무 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은 유치원 높은반, 즉 취학 전 나이인 만 5세로 1년이 낮아졌고, 인민 학교와 고등 중학교(6년)를 의무 교육으로 하게 되

었다.

북한에서는 의무 교육 제도의 실시로 보통 교육이 무상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다고 보기 힘들다. 첫째,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므로 모든 자원이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고, 또한 모든 생산물 역시 국가가 소유하여 분배한다. 따라서, 이런 자원 독점하에서 무상 교육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 둘째, 북한의 학생은 학교의 등록금을 노동으로 보상하는 의미도 있다.³⁾

북한의 교육은 ‘로동을 병행’하는 원칙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생산 활동을 해야 한다. 생산 활동이 보수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교의 등록금은 노동을 통해 지불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학생들은 각종 명목의 잡부금을 내야 하며, 교과서 등 교육 자료도 돈을 내서 구입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 학생들의 교과서는 20전~1원 정도의 대금을 지불해야 구입할 수 있다. 결국 의무 교육이라고 해서 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허구이다.

북한이 형식상으로나마 보통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규정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교육 수준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지금 현재 문맹인 북한 주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고등 교육

북한은 보통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원칙적으로 고등 중학교까지는 모두 졸업한다. 그러나 대학 진학은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고등 중학교를 졸업하면 보통은 70% 정도가 군에 입대(남자의 경우)하며, 20%는 직장에 배치된다.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 고

등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직통생’이다. 직통생은 성분이 확실하고 가정 환경이 우수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직통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등 중학교를 졸업하고 2~5년간 직장 생활을 하거나 7년 이상의 군 복무를 마치고 난 후에 추천을 받아 대학에 가기도 한다.

고등 중학교 졸업반이 되어 대학에 진학하려면 각 도 및 시·군에 조직되어 있는 대학 추천 위원회의 사상 검토를 포함하는 복잡한 추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대학 진학을 위한 예비 시험을 거쳐 대학 입학 자격 고사를 치러야 하는데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시·군(구역) 인민 위원회(대학 모집과)에서 고등 중학교별로 지정표를 배치한다. 지정표란 특정 고등 중학교에서 대학에 보낼 수 있는 학생들의 수를 의미하며, 시·군(구역) 단위로 결정되기 때문에 일부 학교의 경우는 지정표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각 고등 중학교는 그 지정표에 맞는 수의 학생을 선발하여 배정된 대학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고등 중학교에서의 선발은 일반적으로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험은 1780년대부터는 고등 중학교 졸업반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수학·물리·화학·외국어·김일성 혁명 역사 등 5과목에 걸쳐 치르는 ‘국가 판정 시험’이다. 여기서 합격해야 추천을 받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출신 성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당과 보위부에서 출신 성분을 조사해 보고 나쁘면 변경할 것을 학교측에 종용하기도 하며, 수준이 낮은 학교로 보낸다. 학교측에서는 학생 지도 목적상 성적을 우선시 하고자 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대학 진학 추천을 받으면 각 대학별로 시험을 치른다. 시험은 혁명 역사·국어·영어·수학이며,

과목별로 3~5개의 논술식 문제를 출제한다.

(4) 특수 교육

북한에서는 특수한 신분과 자질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 교육 기관으로는 제1고등 중학교, 평양 외국어 학원, 만경 대혁명 학원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남포 중앙 체육 학원, 김정일 예술 학원 등이 있으며, 여기서 무용, 음악, 조형 예술, 교예 등에 뛰어난 소질을 가진 특기자들을 가르친다. 제1고등 중학교는 영재 교육 기관으로 출발했지만, 1970년대 후반 들어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사상 위주의 교육으로 과학 기술 부문이 뒤떨어졌음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과학 영재 육성을 서둘러 왔다. 그 일환으로 1984년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옳게 선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라.”는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지시에 의거하여 제1고등 중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첫 학교는 1984년 9월 평양에 설립되었다. 이듬해인 1987년에는 남포, 개성, 청진, 혜산 등 각 도 소재지와 직할시로 확대되어 12개의 학교를 운영해 왔다. 주로 과학, 수학, 물리 등 이과 계통의 과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위주로 하며, 제1고등 중학교에 입학하려면 출신 성분 및 과학과 수학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그러나 1997년에는 시·군(구역)까지 확대 신설하여 현재는 200여 개에 달한다.⁴⁾

이는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교육시킬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일부 학생만이나마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최근의 제7고등 중학교는 영재 교육 기관으로서의 의미보다는 부족한 교육 예산을 선택적으로 집중 투자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도모

하려는 의도로 설립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양 외국어 학원은 6년제 고등 중학교 과정으로서 노어, 중국어, 일어, 영어 등 8개 외국어를 중점 교육시키고 있다. 기타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외국어 학원은 7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만경 대혁명 학원은 1947년 10월 21일 당시 민족 보위성 산하 교육 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인민 학교 졸업 후 입학할 수 있다. 입학 자격은 혁명 유가족 및 당·정 고위 간부 자녀들로서 7년제로 운영되는 특수 학교이다. 입학과 동시에 기숙사에 집단 수용되어 엄격한 군사 조직 아래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치 학습에 동원된다. 일반 주민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내각의 상을 비롯한 중앙의 간부들도 매주 토요일에 오후 학습을 받으며, 1년에 1개월씩 학습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학습의 종류는 강습회, 강연회, 자습회, 작업 전에 실시하는 독보회와 조회 등이 있다. 학습 자료는 주로 김일성·김정일 노작과 노동신문 등이며, 그 밖에 공장이나 마을 단위로 설치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기도 한다. 정기적인 교육 이외에도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밭머리 학습’, 행군 중의 문답식 학습, 훈련을 수행하면서 실시하는 군정 학습 등 다양한 학습이 진행된다.

(5) 사회 교육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북한의 모든 주민은 각종 정

3. 교육 내용과 방법

(1) 교육 내용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의하면, 학

〈표 6-1〉 인민 학교 교육과정

번호	교과명	구 분	학년 학기별 수업 주수 및 주당 수업 시간 수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1	1	1	1
2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장군님 어린 시절		1	1	1	1
3	공산주의 투사 김정숙 어머니 어린 시절		1	1	1	1
4	공산주의 도덕		1	1	1	1
5	수 학		5	5	6	6
6	국 어		8	8	7	7
7	자 연		2	2	2	2
8	위 생		1	1	1	1
9	음 악		2	2	2	2
10	체 육		2	2	2	2
11	도 화		1	1	1	1
12	공 작		1	1	1	1

※ 북한 교육성의 과정안(1996년 3월)을 바탕으로 이후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

※ 1 학기 16 주, 2 학기 18 주(여름·겨울 방학 외에 3월 말 1주일간 봄방학)

교 교육의 내용은 ① 정치 사상 교육, ② 과학 기술 교육, ③ 체육 교육으로 구분된다. 정치 사상 교육은 김일성·김정일의 혁명 역사와 혁명 활동을, 과학 기술 교육은 일반 과학과 전문 기술을, 체육 교육은 노동과 국방에 임하는 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초등 교육의 경우 <표 6-1>에 제시되어 있듯이, 인민 학교 재학 4년 동안 국어 등 총 12개 과목을 교육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초등 교육과정에서의 교육 내용은 크게 정치 사상 교육, 과학 기술 교육, 체육 교육, 예능 교육, 국방 교육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당 수업 시간을 보면 국어, 수학, 자연, 체육, 음악, 도화, 공작의 순이고, 이어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등 김일성·김정일·김정숙을 우상화하는 과목이 각각 주당 7시간씩 배정되어 있다. 국어가 전체 수업 시간의 1/3을, 수학이 1/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여 두 과목의 시간 배당이 전체의 57%나 되고 자연 과목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중등 교육의 경우 <표 6-2>에 제시되어 있듯이, 고등 중학교 재학 6년 동안 모두 23개 과목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 고등 중학교의 교과목 역시 과목들이 보다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유사한 내용을 가르친다.

북한 교육 내용의 큰 특징은 정치 사상 교육을 우선시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치 사상성은 김일성 가계를 우상화하는 <어린 시절>이나 <혁명 활동> 등 인민 학교와 고등 중학교의 교과목은 물론, 대학의 경우도 전공과 관계 없이 <주체 철학>, <혁명력사>, 그리고 <주체 정치 경제학> 등을 이수해야 한다.

이런 사상성은 교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 내용에 나타난다. 예를 들면 ‘문화 언어로 말하기’ 단원에서 “원수들에 대하여 말할 때

에는 지주 놈의 상통, 미제 놈이 뒤흔다는 식으로 말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친다. 한문 교과서의 경우도 고전에 나오는 내용이나 고사성어는 거의 없다. 대신 김일성 우상화와 사회주의의 우월성, 그리고 남한에 대한 비난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음악의 경우도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원수님 계시어 우리도 있다> 등 김일성 부자의 가계를 직접, 간접적으로 찬양하는 노래가 권마다 40~60%에 이른다.

(2) 교육 방법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의하면, 북한의 교육은 5개의 방법을 중요시하고 있다. 첫째는 ‘깨우쳐 주는 방법’이다. 이는 한 마디로 가르치는 사람은 이야기, 담화의 형식으로 설명을 하고, 배우는 학생은 토론과 논쟁의 ‘문답식 방법’을 통해 잘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설과 설복’이 동시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기본 방법은 ‘궁정적 모범으로 감화’시키는 것이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항일 혁명 인물들의 투쟁’이나 ‘누구누구를 따라 배우자’는 방식들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론 교육과 실천 교육, 교육과 생산 노동의 종합 방법이다. 책에서 배운 이론을 혁명의 실천으로 써먹어야 ‘산지식’이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교육은 생산 노동에 직접 참가하여 노동 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의 구분을 막고, 이론과 실천을 결합한다는 명분을 내걸면서 학생들의 노동력을 끌어 내는 이론적인 기반도 된다.

셋째, 조직 생활, 사회 정치 활동의 강화 방법이다. 북한에서 조직 생활은 공산주의의

품성과 태도를 집단적으로 단련하는 ‘정치 생활’ 자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동당이 차지하는 정치 사회화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조직 생활을 통해서 사상 교육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실제로 정치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에 따라 어린 시절에는 ‘조선 소년단’에서, 그 이후의 청소년 시

절에는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에서 조직 생활을 하게 된다. 특히, 소년단의 활동은 ‘과외 교양지기’로 일컬을 만큼 중시한다.

또, 성인이 되어도 각자가 직장 조직 외에 각종 직업 조직 등에 참가해야 하므로 평생 동안 조직 활동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 조직의 벽은 이중·삼중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조

〈표 6-2〉 고등 중학교 교육과정

번호	교과명	학년 학기별 수업 주수 및 주당 수업 시간 수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 활동	1	1	1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혁명력사				2	2	2
3	경애하는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 혁명 활동	1	1	1			
4	경애하는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력사				2	2	2
5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 어머니 혁명력사						
6	공산주의 도덕	1	1	1	1	1	1
7	현행 당정책				1 주	1 주	1 주
8	국 어	5	5	4			
9	문 학				4	3	2
10	한 문	2	2	1	1	1	1
11	외국어	4	3	3	3	3	3
12	력 사	1	1	2	2	2	2
13	지 리	2	2	2	2	2	
14	수 학	7	7	6	6	6	6
15	물 리		2	3	4	4	4
16	화 학			2	3	3	4
17	생 물		2	2	2	3	3
18	체 육	2	2	2	1	1	1
19	음 악	1	1	1	1		
20	미 술	1	1				
21	제 도				1	1	
22	컴퓨터				2	2	2
23	실습(남·녀)	1 주	1 주	1 주	1 주	1 주	1 주

※ 북한 교육성의 과정안(1996년 3월)을 바탕으로 이후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

※ 1~3 학년은 연간 50주, 4~6 학년은 연간 40 주

직 생활의 틀을 벗어난다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언제나 조직을 우선하는, 즉 집단 우선의 정치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넷째,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결합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규 학교 교육 이외에 다른 정치 사회화의 일차적 매체인 가정과 ‘사회 교양 수단(당과 외곽 조직 단체, 언론 매체)’들을 잘 연계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언론 매체의 역할은 ‘사회의 거울’로서가 아니라 ‘당치 얼굴’로서 중시되고 있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의 언론 매체는 개인 찬양, 충성,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노력 동원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다섯째, 학교 전 교육, 학교 교육, 성인 교육의 병진 방법이다. 이 방법은 “사람들의 사상 의식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는 전제 아래,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유치원으로부터 성인 교육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 혁명 사상 교양과 도덕 교양을 기본으로 교육한다는 점은 이미 지적하였다.

북한의 어린이, 학생들은 물론 성인들까지 하나같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그를 행동에 옮기는 것은 이처럼 각 ‘교육 공정’이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인들의 경우 ‘토요일 학습, 수요일 강연회에서 매일 2시간 학습’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도 좋은 예이다.

북한의 교육은 다섯 가지 ‘혁명적인 사회주의 교육 방법’을 기초로 하여 가능한 모든 매체(당, 가정, 교육 기관, 조직 단체, 대중 매체 등)들이 관여한다. 교육·교양 내용은 일차적으로는 당원으로부터 핵심 군중(계층)으로 전달되며, 마지막으로 일반 대중에게 확산하는 방식을 취한다.

4. 학교 생활

(1) 수업

북한의 교육 시간은 학교별로 다르다. 인민 학교는 하루 평균 5시간을 가르치며, 과목당 45분 수업에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고등 중학교는 1~3년이 6시간, 그리고 4~6학년이 7시간을 가르친다. 대학은 하루 4강좌를 기준으로 하며, 강좌당 90분간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은 보통 8시에 시작한다. 인민 학교의 경우 8시에 1교시를 시작하여 12시 35분까지 5교시를 마친다. 3교시와 4교시 사이에는 15분간의 ‘업간 체조’ 시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5교시를 마치고 1시간 50분간(12:30~2:20) 점심 시간을 가진다. 점심 시간에는 오침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점심 시간이 끝나면 5교시를 시작하여 3시 15분이 되면 6교시가 끝난다.

대학생의 경우 등교 후 30분간 독보와 상학 전 검열이 실시되며, 8시 반부터 오전 강의가 시작된다. 오전에 3강좌를 마치고, 1시 반부터는 점심 및 오침 시간이며, 오후 강의는 4시에 시작하여 1강좌를 하고, 5시 반에는 정규 강의를 종료된다. 그러나 농촌 지원이나 노력 지원 등으로 수업에 결손이 있는 경우는 1강좌를 더하여 7시까지 강의를 하기도 한다.

(2) 과외 활동

북한에서는 남한과 같은 과외 열풍은 없다. 고급 관리의 경우, 대학생이나 학교 교원을 초대해 부정기적으로 자녀의 지도를 부탁하는 하지만 예외적인 현상이다. 우리의 과외에 가장 근접한 활동이 소조 활동이다. 소조 활동이란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방과 후에

교원 외 지도를 받는, 이른바 보충 수업 형식이다. 소조의 종류로는 수학 소조, 외국어 소조, 그리고 예체능 소조 등이 있으며, 매일 방과 후 2~3 시간 정도 활동한다.

북한 학생에게 특징적인 과외 활동은 노력 동원과 조직 생활이다. 북한 헌법 제 44 조에 “교육과 생산 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학생은 생산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학생 사회 의무 노동은 1959년부터 정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인민 학생은 연간 2~4 주, 고등 중학생은 연간 4~8 주, 고등 전문 학생은 연간 10 주, 그리고 대학생은 연간 12~14 주로서,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동원 기간을 길게 하고 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의무 노동은 농촌 지원과 경제 건설 분야의 노동이다. 모내기, 강냉이 심기, 그리고 김매기가 농촌 지원의 주를 이루며, 경제 건설 분야는 도시 건설, 발전소 건설, 철도 부설, 학교 시설 및 기계 제작, 탄광 건설 등이다. 이런 노동은 학교 수업의 연장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인민 학교 학생들도 행인의 복장 상태를 단속하는 ‘꼬마 규찰대’, 생산물을 갖다바치는 ‘꼬마 계획’,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선거 가창대’에 동원되며 각종 청소와 녹화 사업, 그리고 국가적 행사에 동원된다.

북한의 주민이라면 모두 조직 생활을 해야 하며 학생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인민 학교 2학년이 되면 누구나 소년단에 가입하게 된다. 고등 중학교 4학년이 되면, 붉은 넥타이를 풀고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에 가입한다. 고등 중학교 고등반으로 진급하면 교내 군사 조직인 ‘붉은 청년 근위대’에 편입되며, 대학생이 되면 교도대라는 준군사 조직에 편입된다. 북한의 학교는 그 자체가 군대

식 대열로 편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는 연대로, 학부는 대대로, 학과는 중대로, 그리고 학급은 소대로 편성된다.

다른 북한의 주민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학생들도 생활 총화를 한다. 생활 총화는 일일 총화, 주간 총화, 월간 총화 등으로 구분되는데, 북한의 학생들은 생활 총화를 큰 부담으로 여긴다. 생활 총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비판을 되풀이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 지각했다, 숙제를 안했다 등이 가장 흔한 비판 내용이다. 그래서 저학년일 때는 열성적으로 참여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형식적인 비판이 주를 이룬다.

(3) 학생의 일탈과 처벌

북한의 고등 중학생들은 개인적 노력에 의해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한 학생은 공부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졸업반의 경우 5% 정도만 공부에 열중하며, 나머지는 놀거나 장난치는 학생이 많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장 마당을 배회하거나 식량을 구하러 돌아다니는 경우가 태반이었으며, 등교한다 하더라도 수업 중에 책상에 엎드려 자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교원들도 결근을 자주하고, 결석하거나 수업 중에 자는 학생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큰 처벌은 없다고 한다. 물론 북한의 학생들이 성적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록 대학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생님에게 맞지 않거나 이성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부정 행위도 종종 있다.

북한 학생이 저지르는 일탈 행위는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하는 것 이외에 다양하다. 생활 총화에 빠지기도 하고, 절도를 하기도 한

다. 엉덩이춤, 장발, 쪽대바지, 외국어가 쓰인 옷은 처벌 대상이다. 화장이나 문신, 귀고리 등도 처벌받는다. 이성 교제도 엄격하게 통제된다. 그러나 고등 중학교 졸업반 정도에 이르면 반지를 주고받는 등 선물을 하거나 모임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짝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대학생도 이성 교제가 금지되어 있지만 은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학생에 대한 처벌 권한은 청년 동맹에 있다. 물론 교원들도 수업 중에 떠드는 학생이나 숙제를 안 한 학생 등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만, 교실 밖에서는 소년단이나 청년 동맹에서 벌을 준다. 수업 중에 체벌이 빈번하며, 학생은 대개 체벌을 감수한다. 물론 간혹 반항하는 학생도 있다.

퇴학 제도는 없고, 학교에서 개인별로 교양을 한다. 수업을 받으면서 방과 후 교양을 받기도 하며,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양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는 시·군·구역별로 문제 학생을 모아 놓고 집단적으로 교양을 하기도 한다.

(4) 북한의 교원

북한에서는 교사, 교수를 통칭하여 ‘교원’이라고 부른다. 물론 ‘선생님’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대학 교원의 경우 교수라고 하는 점은 우리와 같다. 일반 교원인 경우 임금 수준은 노동자의 상급 수준인 100원 남짓을 받으며, 대학 교원인 경우는 200~250원으로 거의 장성급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는다. 그러나 임금에 관계 없이 교원에 대한 사회적 지위는 높은 편이다. 학부모들도 교원을 깎듯이 대하며, 명절 때면 학생들이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간단한 선물도 준다.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감자나 옥수수 등 일용 식품을 보내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교원 양성 대학을 나와야 한다. 교원 양성 대학으로는 시범 대학과 교원 대학으로 구분되는데, 각 도(직할시)마다 1~2개씩 설치되어 있다. 사범 대학에서는 고등 중학교 교원을, 교원 대학에서는 인민 학교 교원과 유치원 교양원을 양성하고 있다. 이들 대학에서는 교원 충당을 위해서 주간의 정규 교육 이외에 통신 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교원의 재교육을 실시한다. 북한의 주요 교원 양성 기관으로는 김형직 사범 대학, 김정숙 사범 대학 등이 있다.

북한 교사의 주업무는 물론 교육이지만, 방과 후 월요일에는 학습과 총화 시간을 가지며,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분과 모임을 가진다. 나머지는 교재 연구를 위한 시간이다. 교원의 분과 모임은 수업 내용을 준비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서, 혁명 역사 분과, 역사 지리 분과 등 9개 분과로 구성된다.

북한의 교사는 우리의 생활 기록부와 유사한 ‘교원 수첩’을 갖고 있다. 교원 수첩은 개별 학생들의 신상 명세와 학교 활동, 그리고 지도 내용 등을 기록한다. 북한의 담임은 우리와는 달리, 첫 학년의 담임이 졸업할 때까지 맡으므로(예를 들어, 인민 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교원 수첩을 한 번 만들면 추가적인 내용만 기록하면 된다.²¹⁾

- 1) 편집자 주: 이 자료는 통일부 통일 교육원에서 발간한 「2002 북한 이해」 중 ‘북한의 교육(pp. 183~203.)’ 부분임.
- 2)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 (로동당 출판사, 1975), p. 27.
- 3)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I)’. 자료원, 1995, p. 82.
- 4) 통일부. ‘주간 북한 동향’, 제 428 호. 1999, pp. 14~16.

교과용 도서 보상금 지급 기준

—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13호(2002. 10. 19.) —

1. 적용 기간은 1년(2003. 1. 1. ~2003. 12. 31.)으로 함.
2. 보상 대상은 교과용도서예관규정(대통령령 제 17634 호) 제 2 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 함.
3.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함.
4.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 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 원저작권자와 2 차적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 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되, 협의 불성립시는 원저작권자와 2 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 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 지급함.
5.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1만 부 기준)

저작물별		보상 기준	보상 금액	비 고
어문 저작물	산문	200 자 원고지 1 매	630원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 편 이상 1 편 이하	6,310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 편 이상 1/2 편 미만	3,150원	
		1/4 편 미만	1,890원	
음악 저작물		1/2 편 이상 1 편 이하	4,060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 편 이상 1/2 편 미만	2,030원	
		1/4 편 미만	1,210원	
미술·사진 저작물		1/2 쪽 이상 1 쪽 이하 크기	6,200원	
		1/4 쪽 이상 1/2 쪽 미만 크기	3,100원	
		1/4 쪽 미만 크기	1,860원	

※ 최저 1만 부 이하는 1만 부로 하고, 1만 부 초과부터 발행 부수에 비례함.

NEWS

연구재단 소식

✧ 임원 동정

○...박기명, 광상돈 상임 이사 퇴임

우리 연구재단의 광상돈 상임 이사가 2002년 7월 31일자로, 박기명 상무 이사가 2002년 9월 30일자로 각각 퇴임하였다. 그 동안 교과용 도서 공급 업무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사님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

○...이상갑 이사 퇴임

우리 연구재단의 당연직 이사 이상갑 전 학교정책실장이 2002년 9월 30일자로 퇴임하였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이사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사님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

○...이수일 이사 취임

정부의 인사 발령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으로 부임한 이수일 실장(전 오금 고등 학교 교장)이 우리 연구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2002년 10월 1일 취임하였다.

✧ 이사회 개최

○...우리 연구재단은 2002년 9월 13일 오전 7시 30분 코리아나 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 교과용 도서 공급 관련 업무 정리 계획
- 정관 개정
- 직제 규정 개정
-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 조성 계획

• 2002 회계년도 추가 경정 예산

• 임원 해임

• (주) 한진의 용역 대금 지급 청구 소송 대책 보고

✧ 2002학년도 2학기 초·중·고 교과서 공급

○...우리 연구재단은 2002학년도 2학기용 교과서를 8월 말까지 각급 학교에 공급 완료하였다. 이번 학기에 공급한 교과서는 초등 39,319 천 부, 중등 3,131 천 부, 특수 3천 부 총 42,453 천 부에 이른다.

2학기 교과서 공급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각급 학교와 발행사의 관계자에게 감사 드린다.

✧ 외국의 교과용 도서 수집

○...우리 연구재단은 교과서의 국제 비교 연구와 교과서 개발 등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를 얻어 외국의 교과용 도서를 수집하였다. 금년에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등 6개국의 초·중등 교과용 도서를 현지 한국 학교 등을 통해 1,260책을 구입하였다.

이번 교과용 도서 구입에 협조해 주신 재외공관의 교육원장, 한국학교 교장님께 감사 드린다.

✳ 국내의 초·중등 학교 교과용 도서 전시회 개최

○...우리 연구재단은 각국의 교과용 도서를 비교해 보고 우리 나라 교과용 도서의 기획·집필·편집·제작에 참여하거나 이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나라 교과용 도서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2년 11월 11일부터 2002년 11월 16일까지 6일간 연구재단 교과서 정보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나라 등 13개국의 초·중등 교과서 6,161책을 전시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와 교과서 발행사인 대한교과서(주), (주)교학사, (주)두산, (주)중앙교육연구소, (주)지학사, (주)천재교육, 한국검정교과서협회 등이 후원하여 전시회가 성황을 이루었다. 전시회에 협조해 주신 관계 기관 및 발행사에 감

사 드린다.

✳ 교과용 도서 공급 대행 업무 중단

○...우리 연구재단은 2001학년도부터 초·중등 학교 교과용 도서 공급 업무를 각 발행사의 위탁으로 대행하여 왔으나, 2002년 9월 10일자 교육인적자원부의 '교과용 도서 발행자 자율 책임 공급 제도 추진 계획' 시행에 따라 2003학년도 이후 교과서 공급 업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어, 2002년 9월 13일 이사회를 열고 수익 사업인 교과용 도서 공급업 폐지에 따른 정관 및 직제 규정을 개정하고, 공급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2002년 9월 30일자로 시행하였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과용 도서 공급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련 임직원께 감사 드린다. ☎

알림 다

고(古) 교과용 도서 수집

우리 연구재단은 국내 유일의 교과서 전문 연구 기관으로 고(古) 교과용 도서를 수집합니다.

기증해 주신 자료는 『교과서정보관』에 비치하여 교과서 연구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역사적 자료로 소중히 보존하겠습니다.

- 대 상: 전 교과용 도서(교과서, 인정 교과서, 지도서, 참고서, CD, 테이프 등)
- 수 량: 제한 없음.
- 기 간: 수시 접수
- 보 상: 기증자에게는 '기증서' 교부와 아울러 명단을 영구히 보존하고, 실비 보상도 할 수 있음.
- 연락처: (우) 135-936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1-11 서울빌딩 6층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 담당자 앞
Tel: (02) 501-9103(대), Fax: (02) 501-9105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장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44-12
- 자동응답 안내전화: (031) 735-8105,
(041) 861-3183
- 홈페이지: <http://www.daehane.com>

※ (주)교학사

- 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67
- 전화: (02) 701-6371
- 홈페이지: <http://www.kyohak.co.kr>

※ (주)두산

-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18-12
두산타워 20층
- 전화: (02) 3398-2700
- 홈페이지: <http://www.dong-a.com>

※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 장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77-1
- 전화: (02) 2296-4590, 2296-8000
- 홈페이지: <http://www.edutopia.com>

※ (주)지학사

- 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80-20
- 전화: (02) 330-5302
- 홈페이지: <http://www.jihak.co.kr>

※ (주)천재교육

- 장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8
- 전화: (02) 3282-1773, 3282-1775
- 홈페이지: <http://www.chunjae.co.kr>

※ 한국검정교과서협회

- 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3-11
- 전화: (02) 3663-4292~3
- 자동응답 안내전화: (02) 3663-5409~12,
3663-9120~2
- 홈페이지: <http://www.textbook2.co.kr>

※ 향우산업주식회사

- 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3 향군회관 3층
- 전화: (02) 2203-6601~2

※ 기타 지역별 개별 판매 서점 및 구입 신청 방법은 각 발행사에 문의바랍니다.

발행사별 국정 교과서 발행 현황

발행사	학교급별	도서명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유치 및 초등	유치원 전 교과(12책), 초등 전 교과(212책), 특수 학교 전 교과(79책)
	중학	국어 및 생활 국어 1, 2학년(12책), 도덕 1학년(2책), 국사(2책), 생활 외국어(14책), 특별 활동(5책), 정보 통신 기술 활용 자료(1책)
	고등	정보 통신 기술 활용 자료(1책), 공업계(112책), 수산 해운계(36책)
(주)교학사	중학	국어 및 생활 국어 3학년(6책)
	고등	농업계(39책), 상업계(19책)
(주)두산	고등	국어 및 문법(6책), 국사(2책), 아랍어(4책), 외국어계(80책)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중학	도덕 2, 3학년(4책)
	고등	특별 활동(5책), 해양 과학(1책), 가사 실업계(31책)
(주)지학사	고등	도덕(2책), 윤리와 사상·전통 윤리·시민 윤리(6책), 생활과 과학(2책), 과학계(15책)
(주)천재교육	고등	이산 수학 및 확률과 통계(4책), 체육계(5책)
향우산업주식회사	고등	교련(2책)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